


12-30-2000

치유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보광장로교회를 중심으로

So Am Song 송소암

Follow this and additional works at: <https://digitalcommons.fuller.edu/kdmin>

 Part of the [Biblical Studies Commons](#), [Christian Denominations and Sects Commons](#), and the [Christianity Commons](#)

Recommended Citation

송소암, "치유목회를 통한 교회성장에 관한 연구: 보광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풀러신학대학원, 2000.

This Project is brought to you for free and open access by the Korean Studies Center at Digital Commons @ Fuller. It has been accepted for inclusion in Korean Doctor of Ministry Projects / 한인 목회학 박사 졸업 논문 by an authorized administrator of Digital Commons @ Fuller.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archives@fuller.edu.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CHURCH GROWTH THROUGH HEALING MINISTR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O-KWANG PRESBYTERIAN CHURCH

written by

SO AM SONG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Moon Sang Kwon

Jeong Kii Min

Seyoon Kim

December 30, 2000

**CHURCH GROWTH THROUGH HEALING MINISTR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O-KWANG
PRESBYTERIAN CHURCH**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SO AM SONG

DECEMBER 2000

치유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보광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권문상 교수

송 소 암

2000년 12월

Abstract
Church Growth through Healing Ministry:
With a Special Reference to Bo-Kwang Presbyterian Church
So Am Song
Doctor of Ministry
2001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the influence of healing ministry program for church growth. Korean church has experienced the stagnating phase since 1993. One of its reasons would be the problem of human mental and physical diseases. In this paper, I try to suggest an effective healing ministry program to overcome the stagnation in the Korean churches.

This paper is composed of three parts. In the first part, I examine the human disease and healing ministry as a prerequisite to purpose its biblical, theological and pastoral principles. In the second part, I show the surroundings in Bo-Kwang Presbyterian Church. In the third part, I propose a strategy of the healing ministry. I also analyze the current healing ministry program in this church in view of the church growth.

I argue that a healing ministry program in a church is the necessity for church growth and church ministry. The healing ministry program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Image of God, because healing ministry should not be limited to healing of human body, so that we should deal with all range of human life. I also argue that the healing ministry program has not only to be emphasized for the church growth, but also to be considered a significant principle for the church ministry. Church growth and healing ministry is the will of God.

Theological Mentors: Moon Sang Kwon, Ph.D.

Jeong Kii Min, Ph.D.

Seyoon Kim, Ph.D.

감사의 글

너무나 부족한 종이기에 이렇게 좋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본 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고 친절하게 지도해 주신 권문상 박사님과 민종기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흠어져 있는 보석 구슬을 꿰어 모으듯 '신약 성경 연구' 강의를 통하여 '복음'의 진수를 기쁨으로 재발견케 해 주신 김세윤 박사님과 자상한 강의로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엄예선 박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이란 학문이 공부로만 그치지 않도록 성원해 주신 보광 장로 교회의 세 분 장로님들과 여러 성도님들의 배려가 없었다면 본 논문이 나오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들어 공부하는 남편이 밤새워 글을 쓸 때에 항상 격려하고 기도해 주었으며, 육 남매를 기르느라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아내 이문희에게도 사랑과 감사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려운 농촌 교회에서 말없이 목회에 충성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에게 이 부족한 논문을 전합니다.

2000년 12월

송 소 암

목 차

Abstract	ii
감사의 말씀	iv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 2 장 치유와 교회 성장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초	6
제 1 절 질병의 이해	6
1.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6
가. 질병의 개념	6
나.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7
(1)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7
(2)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	9
2. 질병의 성서적 이해	11
가. 질병의 기원에 관한 성서의 견해들	11
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병	12
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병	12
제 2 절 치유 목회의 신학	14
1. 치유에 대한 이해	14
가. 치유에 대한 어원적 고찰	14
(1) 히브리어	14
(2) 헬라어	15
나. 치유의 의미	16
2. 성서에 나타난 치유 사역	18

가. 구약 성서에서의 치유	19
(1) 예방적 측면	19
(2) 치유적 측면	20
나. 신약 성서에서의 치유	20
(1) 예수의 치유 사역	20
(2) 사도들의 치유 사역	24
3. 교회사에 있어서의 치유 사역	26
가. 고대 교부 시대의 치유 사역	27
나. 중세기의 치유 사역	28
다. 종교 개혁 이후의 치유 사역	28
4. 치유 목회의 이해	30
가. 목회의 의미	30
나. 목회의 치유 기능	31
5. 치유 목회의 문제점	33
제 3 절 교회 성장의 신학	35
1.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35
가. 교회 성장의 필연성	35
나. 교회 성장의 정의	36
다. 교회 성장의 본질	37
2.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의 상관성	38
가. 교회 성장의 유형들	39
(1) 내적 성장	39
(2) 팽창 성장	40
(3) 확장 성장	41
(4) 선교 성장	42
나.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	42
(1) 목회와 치유의 관계	43
(2) 치유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	43

제 4 절 요약 및 결론	45
제 3 장 지역 사회와 교회의 현황	47
제 1 절 보광 장로 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47
1. 지리적인 여건	47
2. 산업과 경제적인 요인	48
3. 인구 현황	49
4. 종교적인 환경	50
가. 무속 종교	51
나. 유교	52
다. 불교	52
라. 기타	53
5. 앞으로의 전망	53
제 2 절 보광 장로 교회의 현황	54
1. 역사적 현황	55
2. 교인 현황	56
가. 수적(數的) 현황	56
나. 직업 및 교육 수준 현황	58
제 3 절 요약 및 결론	58
제 4 장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	60
제 1 절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치유 목회	60
1.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의 증상과 치유의 필요성	60
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61
(1) 예배 시간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61
(2)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61
나. 일반적인 증상들	62
다. 치유의 필요성	62

2. 보광 장로 교회에 대한 진단	63
가. 보광 장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 분석	63
(1) 인구 감소 증세	63
(2) 고령화 증세(old age)	64
(3) 상호 오해 증세(people blindness)	64
(4) 친교 과잉 증세(koinonitis)	64
(5) 열정 감퇴 증세(St. John's syndrome)	65
(6) 지도력 긴장 증세(leadership tension)	65
(7) 영적 발전 제한 증세(arrested spiritual development)	65
(8) 시설 협소 증세	66
나. 보광 장로 교회의 질병 정도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의 결과	66
3. 종합 진단의 결과와 처방	68
가. 종합 진단의 결과	69
나. 진단에 대한 처방	69
(1)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처방	70
(2) 교회 조직과 분위기에 대한 처방	73
(3) 프로그램에 대한 처방	73
제 2 절 치유 목회의 방법들	77
1. 예배를 통한 치유	77
가. 상담 설교를 통한 치유	78
(1) 설교의 치유 기능	79
(2) 상담 설교의 치유 효과	81
(3) 상담 설교의 실제	81
나. 성례전을 통한 치유	82
(1) 칼빈의 성례전 이해	82
(2) 성례전에서의 치유 사역	83
(3) 성례전을 통한 치유의 실제	85
다. 기도를 통한 치유	87

(1) 치유 사역에서 기도의 중요성	87
(2) 치유 기도의 요소	87
(3) 치유 기도의 실제	88
라. 찬양을 통한 치유	91
(1) 성경에 나타난 찬양	91
(2) 예배와 찬양	92
(3) 찬양을 통한 치유의 효과	93
2. 교육을 통한 치유	93
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치유	93
(1) 소그룹의 필요성	94
(2) 소그룹 성경 연구의 유익	94
(3) 소그룹 성경 연구의 실제 방법	95
나. QT를 통한 치유	96
(1) 치유를 위한 QT의 필요성	97
(2) QT의 요소	97
(3) QT의 실제적인 방법	98
다. 영성 훈련을 통한 치유	99
(1) 말씀 훈련	100
(2) 기도 훈련	101
(3) 나눔 훈련	102
3.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	104
가. 내적 치유 상담	105
나. 구원 상담	107
4. 팀 사역을 통한 치유	108
가. 팀 사역의 성서적 배경	108
(1) 구약 성서에 나타난 팀 사역	108
(2) 신약 성서에 나타난 팀 사역	109
나. 팀 사역의 원리	110

다. 팀 사역 치유의 실제	111
제 3 절 요약 및 결론	112
제 5 장 결 론	113
부록	117
참고문헌	128
VITA	134

표 목 차

<표 1> 건강한 인간	32
<표 2> 병든 인간	33
<표 3> 치유의 유형	34
<표 4> 완주군 인구 추세	50
<표 5> 구이면 인구 추세	50
<표 6> 구이면 가구수 추세	51
<표 7> 보광 장로 교회 교인 연령 분포	57
<표 8> 교회 질병 정도의 진단 결과	66
<표 9> 리더십 진단 점수표	67
<표 10> 교회 조직 진단 점수표	68
<표 11> 프로그램 진단 점수표	68
<표 12> 내적 치유가 필요한 요인과 결과	106
<표 13> 사역을 위한 팀조직 모형	10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와 목적

한국 교회의 성장 가도(街道)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특히 농촌 교회는 교회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한미준 갤럽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는 1990년대 이후 교세의 증가율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향후 전망에 있어서도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역시 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의 증가율은 정체 또는 둔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¹⁾ 또한 우리 나라의 농어촌 복음화율이 14 퍼센트 선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가 한국 컴퓨터 선교회에서 최근 발표한 '2000년도 대한민국 기독교세 현황'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되고 있다.²⁾

오늘날 교회 성장이 정체되는 원인은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있다. 조지 바나(George Barna)는 성장이 둔화되고 쇠퇴하는 교회는 여덟 가지 증상들이 있다고 하였다.³⁾ 첫째는 인구 이동에 따른 변화이다. 한국의 경우, 묘판처럼 농촌 교회에서 키워진 젊은층의 교인들은 직장을 따라 도시 교회로 이동해 갔다. 따라서 농촌은 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교회 역시 인구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1)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9), 42.

2) 한국 농선회, 농어촌 선교 신문, 2000년 2월 28일자. 컴퓨터 선교회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의 평균 복음화율은 26 퍼센트이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30 퍼센트이다. 지역적으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익산시, 군산시, 과천시, 김제시로 각각 34, 32, 32, 30퍼센트이며 전국 최저의 복음화율을 보인 곳은 경남 합천군,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으로 각각 4, 5, 6, 6 퍼센트이다. 전국 86개 군 지역의 평균 복음화율은 14.4 퍼센트이다. 한편 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완주군 지역의 복음화율은 25 퍼센트 정도이다.

3) George Barna, 교회 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Turnaround Churches),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40-47.

둘째는 교회 지도자의 지도력과 비전의 결핍으로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가끔 교회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지도자들의 추문을 지켜보아 왔다. 그들이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는 지도자와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로 빈약한 교회 운영이다. 비전이 없는 지도자 밑에서 운영되고 관리되는 교회는 열정이 없이 기계적이고 제한적인 사역만 하게 된다. 따라서 교회 성장이 둔화된다. 넷째로 새 신자는 오지 않고 오래된 노인들만 있는 교회는 성장하기 어렵다. 다섯째로 교인들이 성전이나 교육관 건축 등으로 경제적인 부담과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여섯째로 교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이다. 일곱째로 교회가 죽어 가고 있는데도 한사코 변화를 싫어하는 교인들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냉랭한 교회, 이런 교회는 성장이 되지 않는다.

이제 한국 교회는 저마다 교회 성장을 위한 새로운 목회의 방향을 모색하며 고민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도자의 리더십과 교회 성장, 설교 방법과 교회 성장, 평신도들의 역할을 강조한 교회 성장, 팀 목회(team ministry)를 통한 교회 성장, 효과적인 구역 관리를 통한 교회 성장, 열정적인 전도로 이루어지는 교회 성장, 셀(cell)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성장, 자연적인 교회 성장 등 수많은 '성장 이론'들이 춘추 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고 있다. 이제 교회 성장의 당위성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교회 성장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칼 조지(Carl F. George)와 로버트 로간(Robert E. Rogan)은 교회를 성장시키고 활성화하려면 목회자의 지도력이 개발되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⁴⁾ 즉 교회가 성장하려면 지도자의 지도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창규는 교회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설교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⁵⁾ 그는 영락 교회 한경직 목사의 설교, 갈보리 교회 박조준 목사의 설교, 광림 교회 김선도 목사의 설교, 소망 교회 박선희 목사의 설교, 충현 교회 김창인 목사의 설교,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조용기 목사의 설교를 분석, 평가하여 설교가 한국 교회 성장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최정성은 구역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역

4) Carl F. George & Robert E. Logan, 리더십과 교회 성장 (Leading & Managing Your Church),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16-18.

5) 김창규, 설교 방법과 교회 성장 (서울: 쿤란 출판사, 1992), 200-210.

의 활성화를 통한 교회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며⁶⁾ 정석현은 교회 성장과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고 평신도 교육과 훈련을 통한 교회 성장을 말하고 있다.⁷⁾ 고훈은 대표적인 한국 교회들이 팀 목회를 통해서 성장하였다고 본다.⁸⁾ 즉 한국 교회의 성장 유형으로서 명성 교회는 새벽기도를, 사랑의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온누리 교회는 경배와 찬양으로, 금란 교회는 성령 운동으로,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구역 조직과 선교회로, 영락 교회는 전통적인 모델로 팀 목회가 성장하는 교회에서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한편 래리 스톡스틸(Larry Stockstill)은 셀 목회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4P'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⁹⁾ 즉 전도(Preaching)-목양(Pastoring)-준비(Preparing)-개척(Planting)에 기초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동화(흡수)시켜 제자를 삼고 파송하는 것을 말한다. 또 크리스티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는 열심 있는 기도와 전도를 많이 강조하던 종래의 교회 성장 이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연적 교회 성장(natural church development: NCD)' 이론을 발전시켜 교회가 질적으로 건강할 때 양적으로도 성장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¹⁰⁾

그런데 이러한 교회 성장의 제이론(諸理論)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자기 교회 성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슈바르츠가 지적한 대로 교회 성장에서 '최소치 요소의 영향'¹¹⁾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교회 안에 잠재해 있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을 논할 수가 없다. 즉 교회 내에 질병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부터의 목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목회(healing ministry)가 되어야 하고 교회는 치유 공동체(healing community)가 되어야 한다.¹²⁾ 교회가 성장을

6) 최정성, 구역 관리와 교회 성장 (서울: 엘멘 출판사, 1994), 192-195.

7) 정석현, 교회 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대구: 보문 출판사, 1990), 145-153.

8) 고훈, 교회 성장을 위한 팀목회 (서울: 베드로 서원, 1996), 19-22.

9) Larry Stockstill, 셀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The Cell Church),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8), 118-119.

10) Christian A. Schwarz,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역 (서울: 도서 출판 NCD, 2000), 78-79.

11) Ibid., 68. '최소치 요소의 영향'이란 길이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널빤지로 하나의 원형 물통을 만들어 물을 부었을 때 가장 짧은 널빤지(최소치 요소)로 물이 흘러 넘치는 것(예배 출석인 수)을 말한다.

12)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3), 6.

멈추고 있는 커다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은 병 고침을 받고자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치유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이다.

본 교회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전주시를 환상(環狀)으로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산수가 아름답고 깨끗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대화, 도시화라는 물결 속에 썰물과 같이 빠져나간 인구의 변화 속에서 '남은 자들'은 대부분 농업으로 삶을 영위해 가고 있다. 저들은 피폐(疲弊)한 경제 구조, 문화적인 소외, 육신의 질병, 떨어진 자녀들과의 단절된 고독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깊은 병은 영혼의 안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세상, 이러한 인간들을 고치시고 싸매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의 목회 활동에 있어서 치유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사역이었다(마 9:35).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치유의 사역을 행하게 하셨다(마 10:1). 예수께서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遊離)하는 것을 긍휼히 보신 것처럼(마 9:36), 이제 교회는 이들을 돌보아야 한다. 예수의 목회 중의 하나가 치유 목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목회도 치유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예배, 교육, 상담, 봉사 등 다양한 목회 활동을 통해서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 전인적(whole personality)인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치유 목회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완치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모습 그대로의 인간 회복을 위한 목회가 치유 목회이다. 치유는 복음의 핵심 교리요, 교회의 중심 사명이다. 예배와 교육, 상담과 봉사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가 목적이다. 그러므로 치유를 위한 예배(worship for healing), 치유를 위한 교육(teaching for healing), 치유를 위한 상담(counseling for healing), 치유를 위한 봉사(service for healing)가 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필요성에 근거하여 최근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 있는 한국 교회를 보광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진단해 보고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 이론을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정립한 다음, 치유를 통해 교회 성장이 가능한 목회 방법을 수립하는 데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장은 치유와 교회 성장에 대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기초로서 질병에 대한 의미를 먼저 알아 볼 것이다. 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처방을 하고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목장 안의 양들이 병들어 있으면 불어날 수가 없는 것과 같이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원인을 여기에서부터 찾아보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치유 목회를 통해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한다.

3장은 보광 장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사회와 교회의 현황을 살펴보게 된다. 이 지역의 지리, 산업 경제, 인구 및 종교적 현황을 통계와 자료를 통해 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해 볼 것이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와 교인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 볼 것이다.

4장은 보광 장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처방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치유 목회 전략과 방법으로 여기에는 예배, 교육, 목회 상담 그리고 팀 사역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필요성과 유익 그리고 효과를 치유의 실재를 통해 제시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의 이상 세 부분의 서두는 1장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범위와 그 진행 방법을 서술하였다. 마지막 5장은 결론으로 이제까지 논의하고 연구한 것을 요약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 보광 장로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 교회 성장을 위한 치유 목회의 방법들을 제언함으로써 본 연구를 마치게 될 것이다.

제 2 장

치유와 교회 성장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기초

슈바르츠(Christian A. Schwarz)가 말한 '최소치 요소의 영향'인 질병이 잠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 성장이 일어나기 어렵다. 2장에서는 먼저 인간의 질병을 이해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것을 토대로 치유 목회 이론을 확립한 후 치유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의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전체를 치유하는 전인 치유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자 교회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이다.

제 1 절 질병의 이해

질병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견해와 성서적인 견해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질병에 대한 개념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보는 관점은 다양성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견해와 의학적인 견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질병의 개념

우리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정상적인 생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이것을 병으로 본다. 그래서 건강하다고 하면 영과 육의 생명 활동이 아주 정상적으로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 나가는 것을 뜻하나 질병은 이와 반대로 최저 상태로 떨어지

는 것을 말한다.¹³⁾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질병(disease)이란 “평온함이 결여된 상태” 또는 “건강의 질서가 어긋남을 경험하는 상태”이다.¹⁴⁾ 즉 인간에게 있어서의 질병은 몸과 마음의 온갖 기능이 장애를 받고 정상적이지 않은 이상 상태이다. 웹스터 사전에서 “평온함의 결여된 상태”를 질병이라 하였을 때 이는 주로 마음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평안치 못한 느낌 곧 불안, 공포, 억압, 절망, 분노, 슬픔, 증오, 시기, 질투, 적개심, 거부감, 이기심, 애정 결핍 등을 의미한다. 또한 “건강의 질서가 어긋남”이라고 하는 정의는 주로 신체적 상태에 대한 언급으로, 생명(vitality)의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죽음으로 이끄는 파괴적인 힘과 그에 대한 저항력 사이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신체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나. 질병의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질병의 원인에는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견해와 의학적인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질병의 원인에 대하여 보는 관점은 다양성을 띠고 있다. 조용기는 범죄, 마귀, 귀신, 저주로 보고 있으며 김기동은 모든 질병의 원인을 대부분 귀신의 역사에 두고 있다.¹⁵⁾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어느 일면만 보는 왜곡의 문제점이 있다. 이명수는 질병이 육체, 마음, 영과 구성 요소간의 무질서 또는 부조화, 균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내의 무질서를 의미한다고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과 이웃 사람들, 환경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한다고 본다.¹⁶⁾

여기에 반하여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는 질병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그릇된 자세 즉 그릇된 식사, 폭주, 과로, 문란한 성생활, 도덕적 가책 등이

13) 단아한, 성서 의학 (서울: 도서 출판 누가, 1989), 62.

14) Bobcock Gove Philip and The Merriam-Webster editorial staff, "Disease",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Chicago: The Lakeside Press, 1969), 648.

15) 박기백, "한국 교회의 치유 목회", 풀빛 목회, 1984년 1월호, 36-39.

16) Myoung Soo Lee, 치유 선교론 (A Treatise on Healing Ministry), 박행열 역 (서울: 나임 출판사, 1993), 13.

수년간 쌓여서 결국 자신의 존재 활력을 상실하게 됨으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¹⁷⁾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는 질병의 원인을 인간의 조직체들이 정상 상태에서 부조화 상태와 무질서 상태로 되어 고장이 난 것이라고 보았다.¹⁸⁾ 또한 게리 콜린스(Gary R. Collins)는 질병의 원인들을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병을 전염시키는 식물이나 동물과의 접촉, 영양가가 적은 음식물, 운동이나 체력 관리의 부족, 상처, 유전적 결함, 마취제나 독약과 같은 해로운 물질의 섭취, 신체 기관의 노쇠나 약화,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것과의 접촉 등으로 보고 있다.¹⁹⁾

그러나 보다 포괄적인 접근은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의 견해를 들 수 있다. 그는 모든 질병이 똑같은 원인으로 오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는 영의 질병, 감정의 질병, 육체의 질병, 귀신에 의한 질병을 들고 있다.²⁰⁾ 즉 어떤 질병은 개인적인 죄로 발생할 수 있으며 과거의 고통스러운 감정의 상처로 인해 발생한 병도 있고 사고나 기타 원인으로 생겨난 병도 있으며 귀신으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말한 질병의 원인을 네 가지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로, 삶의 잘못으로 오는 원인으로서는 대부분의 육체적 질병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삶의 방법과 자연 질서의 파괴로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순리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기 때문에 병이 걸리게 된다고 본다. 둘째로, 평형 파괴로 오는 것으로서 유기체 내의 각 요소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요소가 영향을 받으면 그것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바로 그러한 때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고 자연과 환경의 평형 상태가 파괴되어 병이 오게 된다. 셋째로, 죄악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인간은 타락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과 더불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내의 인간 상호간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므로 질병이 온 것으로서 인간 사회의 삶은 질서와 협력, 양보와 존중, 정직과 신뢰가 살아 있어야

17) Paul Tournier, 인간 치유에의 길 (The Healing of Persons), 황찬규 역 (서울: 보이스사, 1988), 36-39.

18) Oral Roberts, 기적과 건강, 서울 서적 편집부 역 (서울: 영산 출판사, 1989), 210-219.

19) Gary R. Collins, 크리스찬 카운셀링 (Christian Counseling), 피현희, 이해련 역 (서울: 두란노, 1984), 558.

20) Francis MacNutt, 치유의 능력, 조원길 역 (서울: 전망사, 1979), 201-208.

하는데 이것이 자기 중심주의와 이기주의(집단 이기주의를 포함하여)로 인하여 공동체 전체의 안녕과 평화를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병이 오게 되는 것이다.

(2)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

인간의 건강은 긍정적 요건과 부정적 요건, 즉 기본적 요소의 충족과 심각한 위험 요소의 회피 모두에 의해 결정된다. 건강은 또한 자연적으로나 인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해 요인에 의해 손상될 수도 있다. 의학적으로 질병이 발생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²¹⁾

(가) 흑사병이나 발진티푸스, 유행성 감기 등의 폭발적인 전염에서와 같이 유기체가 최초로 또는 몇 세대 간격으로 전염될 경우로서 첫째는, 바이러스가 증식에 실패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숙주(宿主)가 모르는 사이에 지나가게 된다. 둘째는, 바이러스가 증식되어서 다른 숙주에게 전달되지 않은 채 그 숙주를 죽이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전염은 여기서 끝나게 된다. 셋째는, 초기에는 일부 숙주나 바이러스가 질병에 걸리거나 죽게 되지만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바이러스와 숙주가 질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또한 숙주의 질병과 그로 인한 증상이 유기체의 생존을 도모하는 경우로서 감기의 경우 재채기에 의해 전파되고, 콜레라는 설사, 폐결핵은 기침, 광견병은 개에게 물림으로써 전파된다. 그러한 예들은 질병과 죽음을 야기시키는 유기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 숙주와 기생물 사이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로서 이는 대부분 생태학적 불균형이나 스트레스에 기인한다. 그 이유는 인구의 증가와 식량 부족이며 더욱이 이러한 이유는 서로 관련이 있는데 인구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비롯되는 스트레스는 거의가 식량 부족의 위협이 있거나 실제로 식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질병이 생기는 원인 규명은 질병을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내기 위

21) Thomas McKeoun, 질병의 기원 (The Origins of Human Disease), 서일, 박종연 역 (서울: 동문선, 1996), 16.

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질병을 근본적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질병이 수태시에 결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나눈다.²²⁾ 태아기 질병은 출생 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전적 질병이며, 출생 후 질병인 결핍과 위험 요인, 그리고 부적응이 그 원인이 된다. 이런 질환의 대부분은 인간의 산업화와 문명 정도에 따라 부적응을 초래하는 식사, 운동, 흡연 및 출산 등의 변화에 기인하고 있다. 이것은 문명병, 산업화와 관련된 질병, 서구적 질병 그리고 풍요의 질병 등으로 부른다. 이러한 일부의 질병은 수렵과 채취 시대에는 보기 어려운 정신 질환으로 발전되고 있다. 이것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태시에 결정되는 이상으로써 유전적 질병이다. 그것은 염색체 이상이나 단일 유전자 결손으로 인하여 생기며 수태 후에 결정되는 이상으로 다운 증후군(down's syndrome), 심장 기형(cardiac malformations), 이분 척추(spina bifida), 뇌수종(hydrocephalus) 그리고 정신적 장애와 저체중 출산이 있다. 수태시에 결정되는 건강 상태는 주로 단일 유전자 결함과 염색체 이상이다. 태아기 질병의 기원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것들이 나타나는 문제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병이 환경적 수단에 의해서 예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첫째 이유는 수태시에 결정되기 때문이고, 둘째 이유는 질병의 결정 시기가 접근 불가능할 때인 임신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빈곤으로 인한 질병이다. 이것은 결핍과 위험 요인에 기인한 질병으로 삶의 환경이 중요한 관건이다. 즉 빈곤이 질병의 문제와 관련되고 있다. 본 교회가 소재한 농촌 지역 사람들의 나쁜 건강 상태가 빈곤에서 오는 영양분의 결핍과 위험 요인 때문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많은 아동들이 가난으로 영양 실조 상태이며, 지하 음용수는 각 가정으로부터 나오는 폐수, 가축 분뇨와 잔류 농약 등 오염 물질에 지배당하고 있고, 화장실은 아직도 비위생적인 것이 많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은 질병으로 이끄는 한 요인이다.

셋째, 풍요에 따른 질병이다. 풍요의 질병은 인구 성장과 도시의 발달에 기인한다. 인구의 규모가 커지고 밀도가 높아질수록 도시의 위생은 공기와 물을 통하여 질병의 확산에 대한 노출이 증대되고 있다. 산업화이래 식사의 내용은 현저하게 편리성을 추구한 즉석 대용식(instant meal)이 발달되어 위장 질환이 늘고 있다. 향락주의의

22) Thomas McKeoun, 질병의 기원, 120-121.

영향으로 담배와 술 그리고 중독 약물인 마약이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도 증가하고 있으며 에이즈(AIDS) 환자와 정신 이상자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생활에서 육체 활동의 필요성이 크게 감소하여 비만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제 성인병은 어릴 때부터 생기고 있다. 풍요는 현대인들의 현대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질병의 성서적 이해

성서에서는 질병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질병의 성서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질병의 기원에 관한 성서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구약과 신약에 나타나는 병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한다.

가. 질병의 기원에 관한 성서의 견해들

질병은 육체의 건강이 상실된 것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은 질병을 정신적, 심리적인 원인과 육체적인 이외에도 죄와 사탄과의 관련성과 하나님의 섭리로서의 넓은 의미로 보고 있다.²³⁾ 성경에 나타난 질병의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죄의 결과로 말하고 있다(민 12:1-16; 21:1-9; 신 28:20-22; 대하 26:19). 에드워드 투르나이젠(Eduard Thurneysen)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배반하며 죄를 짓기 때문에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보았다.²⁴⁾ 요즘 죽음의 병이라 부르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성적 죄를 범함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둘째로, 질병의 원인이 하나님의 섭리로 오는 경우이다. 그 예로 욥의 병을 들 수 있다(욥 2:4-7). 욥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질병을 포함한 시련을 주도도록 허락하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욥 1:12). 욥의 병은 본인의 죄의 유무와 무관하게 찾아온 질병이다. 셋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질병이 오기도 한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도 예수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요 9:1-3). 넷째로, 인간의 부주의 때문에 병이 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건강한 생활에 대한 부주의로 인해서 질병이 오게 되는 경우이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딤후

23) 오성춘, "질병, 신앙, 하나님의 치유", 기도, 1985년 6월호, 48-49.

24) Eduard Thurneysen, 목회학 실천론 (Seelorge im Vollzug), 박근원 역 (서울: 서울 신학 연구소, 1982), 193.

5:2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든 질병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병의 원인은 인간의 범죄와 부주의, 하나님의 섭리 등 여러 원인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질병에 대한 일차적인 접근은 영적인 측면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며, 질병의 원인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치유에 임해야 할 것이다.

나. 구약 성서에 나타난 병

특정한 질병들 중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눈병이 있다. 이러한 눈병은 기 후적인 요인, 파리의 전염, 유전적인 경우, 노쇠, 기타 다른 요인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원인의 결과였다. 또한 성병이 옮긴 결과로 갓난아기에게 나타나는 심한 화농성 결막염(*ophthalmia neonatorum*)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각막의 항구적인 오탁(汚濁)을 일으키기 쉬웠다. 그리고 이것이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원인의 하나다.

구약 성서에 나타난 청각 장애자와 농아자의 결함은 대뇌피질의 장애, 내이(內耳)의 병, 또는 그밖의 원인들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지 중의 하나가 못 쓰게 되었거나 다른 신체 부분이 불구가 된 사람들은 외과적 사고의 결과이거나, 척수 회백 질염과 같은 병의 결과인 경우도 있었다. 척추에 흠(곰사등이)이 있으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없었으며(레 21:18-21),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덜하거나 더 있어도 그러했다. 거인의 비정상적으로 큰 키는 뇌하수체 전엽에 발생한 종양의 결과로 보이며 가드의 골리앗도 같은 경우에 속하였다.

구약 시대에는 소아과에 속하는 질병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 밧세바의 갓난 아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병에 걸렸으며(삼하 12:15), 7일 후에 이름 모를 병으로 죽었다. 수넴의 여인에게서 난 아이는 일곱 살이 되던 해의 여름에 갑자기 병을 얻어 하루도 채 안 되어 죽었으나 엘리사가 살려 주었다(왕하 4:17-37). 이것은 대뇌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열사병, 말라리아, 또는 뇌막염의 발병을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왕상 17:17) 역시 비슷한 성질의 병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병

예수의 시대에는 많은 수의 각종 질병이 있었고 그것들은 모두 예수에 의해 치유되었다. 실명, 나병, 중풍, 육체적 결함, 귀신들림, 정신적 고통 등이 모두 예수의 치유 활동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경우는 환자의 상태와 환경 등에 합당한 방식으로 치유되었는데 벧새다의 소경은 침을 바르고 난 다음 치유되었다(막 8:22-25). 이 소경은 시력을 되찾기 원하고 있던 거지 바디매오(마 20:29-34; 막 10:46-52)와는 달리 선천적인 소경이었다. 치유된 자들의 실명의 원인에 대해서는 기후, 환경, 위생, 정신, 신체 의학상의 원인이 병원학적인 요인이다.

예수께서 치유하신 문둥병의 성질은 한센(Hansen)병 또는 고약한 피부병의 일종인 백반으로 보인다. 예수께서는 문둥병자를 치료할 때 그를 ‘플레레스 레프라스(plèrès lepras)’라 부르셨는데(눅 5:12-13) 이 말은 그가 매우 위급한 단계에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다른 10명의 문둥병자들에 대해서는 ‘레프로이(leproi)’라고만 묘사되었을 뿐,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없다.

복음서에는 중풍의 사례가 몇 번 나타나는데 이는 중추신경 계통의 기질성 질환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마 9:2; 막 2:1-5)는 누가복음(눅 5:17-26)에서보다 기술적인 단어인 ‘파랄렐뤼메노스(paralelymenos)’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하반신 불수였던 것이 확실하다. 이 환자의 상태는 어렸을 때 사고나 뼈의 장애 때문에 일어난 압박 척수염의 결과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척수에 기질성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전환 히스테리와 같은 정신적 성질의 요인 때문인 것으로 본다. 그러한 전환 히스테리는 죄나 마음의 갈등 따위에 따르는 정신적 상태를 중풍이나 실명과 같은 병의 육체적 징후로 변하게도 한다.

백부장의 하인(마 8:5-13; 눅 7:1-10)은 급성 상부 진행 중풍 및 이에 수반된 척수염으로, 손이 마른 사람(마 12:9-13; 막 3:1-5; 눅 6:6-10)은 젊었을 때 전방 척수 회백질염을 앓았던 것으로, 매니아가 8년 동안 앓았던 병(행 9:33)은 하반신 불수였던 것으로 사료된다. 베데스다의 혈기 마른 자(요 5:2-9)는 운동 기능 실조, 하반신 불수, 또는 파종성 경화증의 희생자로서 환자는 어린아이였을 때 전방 척수 회백질염에 걸렸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마 9:20-22; 막

5:25-34; 눅 8:43-48)은 월경 과다 또는 월경 곤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환자들에게 대한 예수의 치료에서 '믿음'에 대한 강조가 포함되고 있는 것은 환자에게 심리요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것은 병의 치유에 있어서 정신적 요인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다.

제 2 절 치유 목회의 신학

여기서는 먼저 치유에 대한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원들을 고찰해 볼 것이다. 그리고 구약 성서에 나타난 치유 사역을 예방적인 측면과 치유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 사역, 고대 교부 시대와 중세기 그리고 종교 개혁 이후의 치유 사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목회의 치유적 기능과 치유 목회의 문제점도 짚어 볼 것이다.

1. 치유에 대한 이해

여기서는 치유에 대한 낱말의 어원적 의미와 함께 자크 엘룰(Jacques Ellul)을 비롯한 여러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전인적인 측면에서 존 Wimber(John Wimber)와 케빈 스프링거(Kevin Springer)가 말한 치유의 다섯 가지 영역도 살펴 볼 것이다.

가. 치유에 대한 어원적 고찰

치유에 대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어원적 고찰을 통해 그 의미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히브리어

구약 성서에서 명사로 '치유'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אָרוּחָה(arukhah)'이고 또 하나는 'מַרְפֵּי(marpe)'이다. '아룩하'는 의사가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긴 붕대'라는 뜻으로 예레미야 8장 22절, 30장 17절, 33장 6절에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말페'는 예레미야 14장 19절에서 '치료', '고침'으로 사

용되고 있는 것 외에 '원기 회복'이란 뜻도 있는데, 잠언 4장 22절의 '그의 온 몸에 건강을 준다'와 12장 18절의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낮게 하는) 양약과 같다'가 바로 그런 예이다.

동사로서 치유를 의미하는 단어는 'חָלַם(halram)', 'רָפָא(rapha)', 'סָמַח(samah)'가 사용되고 있다. '할람'은 '회복케 하다'로 이사야 38장 16절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견고하게 묶다', 함축적 의미로 '뚱뚱하게 되다' 또 상징적으로 '꿈꾸다', '꿈에 생각하다', '몽상하다', '강하게 되다'라는 의미가 있다. 때에 따라서 '강하게 만들다, 힘세게 하다, 치료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중 '라파'가 가장 많이 성서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세분해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다', '고치다', '상처를 싸매어 주다'(창 20:17; 대하 7:14; 욥 5:18, 시 30:2, 렘 8:11; 17:14, 겔 34:4), '치료받다'(사 53:5), '자신이 고침 받게 하다'(왕하 8:29)'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삼 마'는 이사야 58장 8절에 '치료하다'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 상징적 의미는 '썩이 트다', '열매를 맺다', '산출하다', '자라다', '나오다', '쏟아나다', '쏟아 나오게 하다', '자식이 생기다' 등이 있다.

(2) 헬라어

신약 성서에서 병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ἰάομαι'(이아오마이), 'θεραπεύω'(테라퓨우오), 'ἰγιάω'(휘기아이노), 'σώζω'(소조) 그리고 복합어인 'διασώζω'(디아소조) 등이 있다. 이러한 단어들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와 후대의 다른 사람들의 사역에서 치료가 발생하는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었다.

ἰάομαι는 '병을 고치다'를 의미하는 단어로 희랍어 용법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의학적인 용어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단어는 도덕적인 상처나 질병의 치료에까지 그 용법이 확장되었으며, 실제로 희랍어만을 생각할 경우에 특수하게 죄를 의미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죄 그 자체는 독특한 조건(육체적 또는 정신적)을 유발시키는 하나의 분리된 별개의 것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질병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θεραπεύω는 영어 'therapy'의 어원이 되는 단어로 의료적 처치나 치유를 표현하는 말이다. 원래의 의미는 신들을 섬기는 것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돌봄이나 섬김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차용(借用)에 의해서 이 단어는 '치료하다, 회복시키다, 병

을 고치다'를 의미한다. ὕγιαλνω는 '좋은 건강 상태에 있다'를 의미하는 단어로서 몸이나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일들의 건강 또는 건전한 상태를 언급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 단어는 희랍의 의료 용어에서 기본적인 단어이며, 영어의 'hygiene'는 이 말에서 유래하였다. σωζω는 '보존하다, 상하지 않게 지키다, 구제하다,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다'를 뜻하고 있는데 고대 희랍어에서 의료적인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되었다. 이 말은 치료의 뜻을, 한 사람을 질병이나 죽음으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으로 전달해 주었다. 희랍어의 개념 가운데는 몸을 구원하는 것이 전 존재의 구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의미상으로 완전한 구원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 단어로부터 신학적인 용어인 '구원론'(soteriology)이라는 말이 유래하였다. 마지막으로 διασωζω는 '위험을 뚫고 안전하게 가져오다, 또는 위험을 헤치고 보존하다'를 의미하며, 그 의미나 용법에 있어서 'σωζω'와 유사하다.

나. 치유의 의미

치유는 인간에게 병이 있기 전인 본래적 상태로의 원형적 회복이다. 원형적 회복이란, 원초적 상태로의 구조적 회복이 아니라 더욱 발전된 상태로의 성장 측면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치유란 단순하게 어떤 질병의 제거나 질병 이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상승하는 것이다. 이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상승한다는 것은 치유를 단순하게 신체적 영역에만 국한시킨다는 뜻이 아니다.

자크 엘룰은 "치유는 언제나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이다"²⁵라고 하였으며 치유 목회에 오랫동안 종사해 온 버나드 마틴(Bernard Martin)은 "치유란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인격의 완전한 성숙을 저해하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²⁶라고 하였다. 또한 의료 선교에 종사해 온 버스커크(Buskirk)는 "치유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 내재해 있는 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²⁷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에벌린 언더힐(Evelyn Underhill)은 "치유란 인간성을 회복시켜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5) Paul Tournier, 성서와 의학 (A Doctor's Case Book in the Light of the Bible), 마경일 역 (서울: 전망사, 1979), 291.

26) F. B.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서울: 도서 출판 나단, 1992), 32.

27) Ibid., 33.

모습을 갖추게 함으로써 원래의 정상적인 상태를 되찾게 하는 것이다”²⁸⁾라고 하였다.

비록 설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치유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의사의 처치나 투약, 휴식이나 심리요법 등이 치유의 전부가 아니며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므로 유일하고도 독자적인 치유 방법은 없으며, 치유를 위해서 정당한 방법들은 모두 동원될 수 있다고 본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전인적인 측면에서 존 워버(John Wimber)와 케빈 스프링거(Kevin Springer)는 치유의 영역을 다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²⁹⁾ 첫째, 영의 치유(healing of the spirit)는 죄로 인하여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의 치유는 흔히 ‘내적 치유’(inner healing)라고도 하는 것으로 과거에 손상된 감정이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기억 그 자체는 치유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나 감정의 억압으로부터 오는 후유증-죄책감, 수치심, 좌절감, 분노 등-은 치유될 수 있다. 내적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저해하고 있는 정신 생활의 영역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셋째, 귀신들림과 정신 질환의 치유(healing of the demonize and mental illness)이다. 어떤 사람의 존재와 삶 속에서 귀신이 활동하거나 또는 악한 영에 의해 외부적인 영향이든, 혹은 내적인 감정상의 혼란이든 간에 이들은 모두 질병을 야기할 수 있으며 치유를 필요로 한다. 넷째,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healing of the body)는 병균의 감염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질병을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신경성 대장염이나 근육 수축성 두통과 같이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인 것 같으나 본인에게는 심각한 고통의 원인이 되는 질병들의 치유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치유는 육체의 질병 상태를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죽어 가는 사람, 또는 이미 죽은 사람의 가족에 대한 치유(healing of the dying and the family)로서 죽어 가고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굳센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것을 말한다. 죽

28) Ibid.

29) John Wimber and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이재범 역 (서울: 도서 출판 나단, 1991), 114-115.

어 가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나타난 허물과 죄악 때문에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하며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이때 목회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한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가온다는 것임을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희망(고전 15:1-2)이며, 그래서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순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목회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과 천국의 확신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또 죽은 사람의 남아 있는 가족, 친척, 친구들에 대한 사역으로 이어져야 한다. 남은 유가족과 친구들은 죽은 사람의 생전에 자기들이 잘못된 일들로 인한 마음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목회자의 치유 사역이다.³⁰⁾

지금까지 살펴본 질병의 개념과 원인을 일반적 요인과 성서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때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요인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치유도 역시 질병의 원인에 맞게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볼 수 있고 각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함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치유를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창 1:27)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 말은 곧 치유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치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전인적인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치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삶을 영위해 가는 일을 가능케 해 준다.

2. 성서에 나타난 치유 사역

구약 성서에서의 치유 사역은 주로 모세 오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해 나타난 예방적 측면과 치유적 측면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는 미리 병이 오는 것을 막는 것이며 후자는 이미 병든 몸과 마음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이다. 이

30) John Wimber and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272-277.

두 가지는 구약성서에서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강조되고 있다. 신약 성서에 나타난 치유 사역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치유 사역이 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인간 이해와 치유 동기, 그리고 치유하신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구약 성서에서의 치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는 말씀이 있다. 치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경우도 있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하여 치유한 경우도 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는 예방의 가르침과 또 하나는 질병을 낮게 하는 방법이다.

(1) 예방적 측면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예방을 가르치라고 하셨다. 모세를 통하여 장티프스, 이질, 콜레라 등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설물 처리를 위생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신 23:12-13) 제사장들을 통하여는 문둥병, 피부병의 여부를 살피고 그러한 환자를 격리, 수용하여 개인적인 접촉을 금지하게 하였다(레 13:4-5).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들에게 할례(割禮)를 행하도록 하여 선민 의식을 고취함과 아울러 부인병을 예방하게 하였다(창 17:10-14). 지혜의 왕 솔로몬은 술에 관하여 경고하면서 술의 중독이 많은 병의 원인이 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잠 23:29-35). 오늘날도 술은 내장의 손상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 질환과 많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구약 시대에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건강을 위한 예방법을 가르쳤다. 하나님은 질병을 예방하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출 15:26; 레 26:14-16) 또한 가지는 말씀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생에 관한 법(신 23:12-13), 청결에 관한 법(신 23:10-11, 레 15장), 격리에 관한 법(민 5:1-4), 식이요법에 관한 법(레 11장), 절제에 관한 법(민 6장) 등을 통해 자신을 잘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가 있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모든 질병을 미리 예방하여 주는 말씀 순종과 자기 건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2) 치유적 측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짓고 숲 속에 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을 그 숨은 곳으로부터 잡아 낸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 오셨다. 그리고 까칠까칠한 무화과 나뭇잎 대신 부드럽고 따뜻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실히 볼 수가 있다(창 3:1-21). 이것이 최초의 치유이며 치유자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창 20:17).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셨다. 또 모세의 기도로 미리암의 문둥병이 치료되었으며(민 12:1-16) 아론의 기도로 이스라엘에 퍼진 염병이 그쳤다(민 16:41-50). 욥의 기도로 악창이 치료되었고(욥 42:10) 히스기야 왕은 기도함으로 그의 병이 낫고 생명까지 연장되었다(왕하 20:1-7).

구약 성서에서의 치유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하심이 나타나 있는 뚜렷한 징표였다. 이것은 성서 전체를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을 통하여 기적과 치유의 사역을 하였고 여기에서 치유의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표적들이요, 부르심에 대한 신임장이었다.³¹⁾

나. 신약 성서에서의 치유

신약 성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에 의하여 많은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1) 예수의 치유 사역

몰튼 켈시(Morton T. Kelsey)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복음서 내용의 7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예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

31) Henry W. Post, 개인적인 치유, 이희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110.

면 사복음서 전체 3,779절 중 498절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기술하는데 사용하였다.³²⁾ 여기에 추가해서 138절이 귀신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분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예수님의 사역의 비중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뚜렷하게 두드러진 부분이다.³³⁾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단지 병자들에게 치유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보여 주어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셨던 것이다(눅 11:20).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당연히 치유의 사역에 힘써야 할 것이다.

(가) 예수의 인간 이해

예수는 인간을 단순한 인간으로 보시지 않았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 사역의 초점은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이해하신 인간은 첫째로, 인간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보았다(마 16:26). 거라사 지방의 한 공동묘지에서 고랑과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던 귀신들린 청년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천 마리의 돼지 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한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막 5:1-20). 안식일이지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고쳐 주심으로 안식일 준수라는 종교적 계율보다는 인간의 지체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일이 훨씬 더 값지고 소중한 일임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중히 여기시어 천하보다 더 귀한 생명의 존엄성(막 8:36)을 지닌 인격의 주체로 보셨던 것이다.³⁴⁾ 둘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전인(whole person)'으로 보았다.³⁵⁾ 육체와 영혼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격체로 인간을 이해하셨던 것이다(마 9:22). 예수님은 치유 사역에서도 육체에 국한시키거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치유하신 사실을 볼 수 있다. 중풍 병자에게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마 9:2)고 말씀하심으로 병을 고쳐 주심과 함께 죄사함의 전인 치유를 행

32) Morton T. Kelsey, Encounter with God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2), 242-245.

33) George Martin, 예수님의 치유, 이재범 역 (서울: 보이스사, 1985), 26.

34) 정소영, “상담자로서의 교사”,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 3.

35)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서울: 도서 출판 광림, 1984), 27.

하셨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간을 고통 당하는 존재로 이해하셨다(마 11:28-30). 인간이야말로 죄와 질병,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을 진 존재이며 이 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셨다. 예수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인간이 짊어진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박봉량도 “인간은 죄의 포로 속에 있는 인간”이라고 기독교의 인간관을 소개하면서 “인간은 계속 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운명적 존재이고 그 죄 속에서 질병과 죽음과 공포가 온다”³⁶⁾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수의 인간 이해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중히 여기셨으며 전인적인 치유에 관심을 두어 인간을 죄와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려 오신 분임을 알 수가 있다. 예수의 치유 사역은 이러한 인간 이해가 밑바탕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나) 예수의 치유 동기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셨던 근본적인 이유는 첫째, 병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었다. 복음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마 9:36; 14:14). 예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다. 어거스틴(Augustine)은 치유 능력의 요소를 동정심과 나란히 두고 있다.³⁷⁾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었다. 이 견해는 복음서 전승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예수의 치유는 예수께서 단순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서 나타나고 있다.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요 5:19-21) 병자를 치유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³⁸⁾ 셋째,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치유하셨다.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자에 대한 기사(요 9:1-41)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소경을 치유해 주셨다. 예수는 이 일을 통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 주시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 넷째, 율법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것이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 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심한 반감을 사

36) 박봉량, 인간의 본질 (서울: 형성 출판사, 1982), 99-100.

37) Augustine, 예수의 치유, 고재봉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8), 26.

38) Ibid., 26-27.

게 되었다(막 3:1-6).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은 율법으로 지켜지고 있었으므로 올바른 안식의 개념을 실천하기 위하여 치유의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다.³⁹⁾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과 악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그 결박을 풀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셨다. 이러한 치유 사역은 사탄의 세력에 대한 승리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한다(마 12:28; 눅 11:20).

(다) 예수의 치유 방법

예수의 치유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씀과 명령으로 치유하셨다. 예수님은 환자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어도 그의 말씀으로 모든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다. 마태복음 8장 5-13절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심한 중풍병으로 고생할 때 환자를 접촉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치유를 하셨다. 또한 말씀과 명령은 열 사람의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을 때(눅 17:12-14) 거라사의 귀신들린 청년의 귀신을 내어쫓아 주셨을 때(막 5:1-20), 왕의 신하의 아들을 멀리서 치유할 때(요 4:46-53)도 사용하셨다. 이와 같이 예수의 말씀 자체에는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음을 보여 준다.⁴⁰⁾

둘째, 안수하거나 만져 주심으로 치유를 하셨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귀신들려 18년간이나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안수하시매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고 하였다. 귀가 먹고 어눌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양쪽 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으시고 “에바다”(열리라) 하시므로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해 주셨다(막 7:33-35). 접촉의 방법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동일한 능력으로 치유가 나타났다.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치유 사건(막 5:25-34)이 대표적이다. 또 마태복음 14장 36절에 “무리들이 예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환자에게 직접 접촉하거나 환자 편에서 예수님께 접촉하

39)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 이적 해설, 김득중, 김영봉 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95-102.

40) 신성종, 신약 신학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81), 689.

거나 똑같은 기적이 일어났으며, 사도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행 19:11-12).

셋째, 타액과 진흙을 사용하여 치유해 주셨다. 예수 당시에 있어서 침(唾液)은 치유의 수단으로써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을 직접적인 치유의 기능을 지닌 것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권능의 매개체로 사용하셨다. 요한 복음 9장 6-7절에 예수께서는 침을 진흙에 섞어서 소경의 눈에 문지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 23-25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침을 발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 이러한 치료 방법을 볼 때 예수께서는 원시적인 의료 방법도 같이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치유자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치유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⁴¹⁾

넷째,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 주셨다. 예수의 치유에 있어서 당사자의 믿음과 열심이 또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복잡한 군중 속에서도 예수의 옷가에 기어코 손을 댄으로써 혈루증을 치유 받은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막 5:34). 그리고 두 명의 소경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다(마 9:29). 또 간질병에 걸린 소년의 아버지에게 질병을 치유 받음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을 때, 그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어 그의 아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막 9:23-24).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약 5:15).

다섯째, 대화를 통하여 고치셨다. 예수께서는 대화하실 때 그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치유하기도 하셨다. 요한 복음 4장 5-25절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물 좀 달라” 하는 가장 평범한 문제로 시작하여 그 여자의 심층 심리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갈등의 문제에 접근하고, 대화로서 심한 혼돈의 감정을 정리하여 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여 주며, 삶의 새로운 진로를 열어 치유케 하신 기사를 볼 수 있다. 죄책감, 낮은 자존감의 치유는 용서와 함께 사랑의 대화가 치유해 준다.⁴²⁾

41) John Wimber and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235.

42) David A. Seamands,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d Emotions), 송헌복 역 (서울: 두란노, 1997), 29-32.

(2) 사도들의 치유 사역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오는 병자들을 모두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다(눅 9:1-6). 치유 사역은 제자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병을 고치는 권세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시행하였다.⁴³⁾ 그러므로 초대 교회는 치유를 통한 기사와 표적이 전형적인 특징이었고 그래서 병의 치유는 처음부터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되었다.⁴⁴⁾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의 치유 사역이 여러 군데 강조되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베드로와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행해진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누가는 사도 베드로에 의해 행하여진 치유의 이적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곧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성문 입구에 앉아 있는 앓은뱅이 걸인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 볼 때에 “가로되 은과 금은 네게 없거니와 네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행 3:6-8). 반신불수 걸인을 일으키니 앓은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사도행전 5장 15-16절에 보면 베드로에 의하여 위대한 성령의 치유 능력이 나타났음을 잘 묘사해 주고 있다. “병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닦게 덮일까 바랐다”고 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33-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애니야를 8년 동안 앓고 있었던 중풍에서 낫게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하면서 치유하여 주었다. 또 사도행전 9장 40절에도 죽은 다비다를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살려 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초대 교회 때 치유 사역을 하였던 제자였다. 그는 성령에 의한 치유의 능력을 받은 제자였다. 여기서 사도들은 언제나 치유 사역을 감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자기들은 능력을 전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⁴⁵⁾

(나) 바울의 치유 사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43) George Martin, 예수님의 치유, 35.

44) William Barclay, 예수의 치유 이적 해설, 241-242.

45) 이상근, 사도행전 주해 (대구: 성등사, 1990), 85-93.

만나 붙들림을 받고 아나니아의 기도예 의해 병이 낫는 체험을 하였던 사람이다(행 9:15-19). 이런 바울도 베드로처럼 치유 사역을 하였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고 있는 앉은뱅이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보고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 역사가 일어났다(행 14:10).

누가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행한 치유 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행 19:11-12).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바울의 치유 목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곧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들어가서 기도하며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행 28:8-9)라고 전하고 있다. 한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표적을 체험하면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중풍 병자와 앉은뱅이가 많이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다(행 8:5-8).

초대 교회 사도들의 치유는 초대 교회의 일상적인 사역에서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치유 사역을 이어 받은 것이었으며,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권능을 받아 행하였다. 또한 초대 교회는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증언했다. 치유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여졌다(행 3:6; 16:18). 초대 교회의 치유 사역에는 언제나 성령이 임하셨으며,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가져다 준 것은 물론 폭발적인 복음 전도와 교회 성장의 계기가 되게 하였다(행 2:33; 2:46-47; 4:8-12; 5:14; 8:6-8). 그리고 초대 교회의 치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계심을 극적으로 증거하는 일이었다. 따라서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새로운 운동의 거센 물결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⁴⁶⁾

3. 교회사에 있어서의 치유 사역

여기서는 교회사에 나타난 치유 사역을 고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대 교부 시대에는 치유 사역에 대한 인식

46) F. B. Stanger, 위대한 의사 예수, 48-49.

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중세 시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으로 말미암아 치유 사역이 크게 위축되었다가 종교 개혁 이후에야 겨우 치유 사역을 인식하는 정도였다.

가. 고대 교부 시대의 치유 사역

초대 교회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주신 것을 많이 강조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는 치유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라는 측면에서 혼란의 여지가 없었으나 교부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조금씩 흔들리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⁴⁷⁾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은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의 '변증'(Apology)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에 덧붙여 치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세계 전역과 폐허의 도시 안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귀신들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귀신들을 쫓아내 왔고 또 지금도 귀신을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주문(呪文)과 약물을 사용한 다른 구마사(驅魔師)들은 도저히 추방할 수가 없었던 것들입니다.⁴⁸⁾

오리겐(Origen)은 이교를 논박하기 위하여 쓴 그의 논문 '켈수스에 대항하여 (Against Celsus)'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악령에 대항하여 그들을 추방하는 비법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는 악령 추방의 현장을 여러 번 목격하였다고 말했다(Origen, Against Celsus, 1. 46-47). 키프리안(Cyprian)은 세례가 때로는 질병을 고치는 수단이 된다고 말했으며(Cyprian, Epistle, 75, 15), 터툴리안(Tertullian)은 북아프리카 집정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로마 관리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당하게 취급한 일)은 각하의 지시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심지어 법정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리하도록 증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런 관리들 중의 한 사람이 걸핏하면 악령에 의해 땅에 떨어지곤 했지만 우리에게 의해 악령에게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일어났으며 어린 소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평민은 말할 것도

47) 도한호, "치유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41.

48) Justin Martyr, Second Apology: To the Roman Senate의 일부를 Ibid., 42에서 재인용

없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되었습니까? 황제의 부친 안토니우스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을 잊지 않고 감사했습니다.49)

이러한 고대 교부들의 변증을 통하여 당시 치유 사역의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다. 밀란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Ambrose)는 그의 저서 '성령'에서 치유와 방언의 은사가 아직도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⁵⁰⁾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St. Augustine)도 그의 저서 '참회록'에서 치유의 기적에 관하여 글을 쓰고 있다.⁵¹⁾ 그밖에 유스타비우스(Eustabius), 소솜(Sozom), 데오도르(Theodorer) 등도 치유의 기적들을 증언하고 있다.⁵²⁾

나. 중세기의 치유 사역

그리스도교 치유 사상에 영향을 끼친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인 제롬(Jerome, A. D. 340-420)은 헬라어 성경에 나오는 '치유'(heal and care)라는 단어를 라틴어의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salvo'로 번역하는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그리스도교 치유에 대한 부정적인 사상이 16세기 종교 개혁 이후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다.⁵³⁾ 이렇게 된 그리스도교 치유 사상은 11세기 이후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의 철학 사상이 그리스도교 신학 사상의 발판을 이루면서 더욱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증명 철학은 눈으로 확인하고 수적으로 실험한 결과를 얻어내고 증명할 수 있는 진리요, 지식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여 중세기 최대의 신학 사상을 확립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이다. 그의 신학에서 하나님은 체험보다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분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는 설자리가 없어지고 만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 속에 파고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 지배하고 있던 중세기 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치유는 자리를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다.⁵⁴⁾

49) Ibid.

50) John Wimber and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17.

51) George Martin, 예수님의 치유, 43.

52)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157-162.

53) 정태기, "전인 치유에 관한 연구", 신학 연구, 제35집 (1994), 113-114.

다. 종교개혁 이후의 치유 사역

16세기의 종교개혁과 더불어 수학, 물리학, 철학 및 신학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붓물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이런 이론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교의 치유가 자리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16, 17세기의 과학과 지성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던 합리주의자들은 '이성적 사고'를 강조하면서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합리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물질 세계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가 인정되기 어려웠다.⁵⁴⁾

18세기에 등장한 역사 성서 비평학은 복음서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려고 애썼지만 이들 역시 합리주의적 철학 사상의 소유자로서 신약 성서에 나오는 치유 기사들은 조작된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자유주의 성서 비평 운동이 일기 시작했다. 이들은 합리주의적 사상으로 무장되어 있었기에 성서에 나오는 치유의 역사를 전부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들에 의하면 복음서 치유 가운데서 육체의 치유는 사실이 아니지만 히스테리성 맹인 치유 기사 정도는 충분히 있었던 사건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들은 인간 예수의 능력에 의한 치유 행위가 가능했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치유는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⁵⁵⁾

그러나 고든(A. J. Gordon)은 왈드파(Waldenses), 모라비안 교도들(Moravians), 유그노들(Huguenots), 카버넌트들(Covenanters), 감리교도들(Methodists), 침례교도들(Baptists), 친구파(Friends) 등 많은 개신교 단체들이 그들대로의 치유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⁵⁶⁾ 조지 팍스(George Fox)는 친구단(Society of Friends)의 창시자로서 그는 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 그는 그의 책 여러 곳에서 직접 체험한 치유 사역을 소개하고 있다.⁵⁷⁾ 진젠돌프(Zinzendorf)도 사람으로는 치료 불가능인 난치병-암이나 폐병 등-으로 환자들이 죽음의 고뇌 속에 있을 때에 믿음으로

54) Ibid.

55) 정태기, "전인 치유에 관한 연구", 113-114.

56) Kenneth L. Bakken, The Journey toward Wholeness (New York: Crossroad, 1988), 25.

57) A. J. Gordon, The Ministry of Healing (Chicago: Fleming H. Revealing Co. 1961), 65.

58)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232.

치유된 확실한 증거와 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다고 하였다.

초창기의 영국이나 미국의 침례교에서도 치유 목회를 하였으며 잔센파들(Jansenites)의 모임에서도 파실(Paseal)의 조카딸이 한쪽 눈물관이 고장이 나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녀는 거룩한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깨끗함을 얻고 고침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런 기적은 의학적으로도 지지를 받아 대중들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존 웨슬레(John Wesley)도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을 많이 소개하고 있다. 대부분 그가 치유 목회를 통하여 친히 체험한 내용들이었다.⁵⁹⁾

4. 치유 목회의 이해

치유 목회의 이해를 위해 먼저 목회의 의미를 살펴보고 전인적인 회복을 위한 목회의 치유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가. 목회의 의미

하나님과 교회에 의하여 부름을 받고 안수를 받아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전을 집행하며 교회 공동체를 인도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 목사는 레위 족속의 제사장 직책과는 기술적으로 구별된다.⁶⁰⁾ 왜냐하면 동물 희생 제사와 제의법(ceremonial law)은 기독교의 목회 사역에서 더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목사라는 단어는 '보호한다'(to protect)는 뜻을 가진 헬라어 '포이멘'(ποιμήν)에서 유래한다. 이것은 바로 '목자'(shepherd)를 의미한다. 헬라어 '포이멘'의 동사 '포이마 이노'(ποιμαίνω)는 신약 성경에서 7회 사용되고 있는데 4번은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쓰였고(마 2:6, 계 2:27; 12:5; 19:15), 3번은 '가축을 치다, 양을 치다'로 쓰였다(요 21:16, 행 20:28, 벧전 5:2). 또한 목사(pastor)란 용어는 라틴어 'pastores'에서 푸른 풀을 연상시키는 '초장'(pasture)에서 유래했다.⁶¹⁾ 목사라는 칭호는 신약에 꼭 한번 기록되었으나(엡 4:11) 일반적으로 목자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목자란 말

59)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235.

60) Thomas C. Oden, 목회 신학 (Pastoral Theology), 오성춘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116.

61) 김득룡, 현대 목회 실천론 신강 (서울: 총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152.

은 신약 성경에 18회 사용되었고, 구약 성경에는 64회 사용되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때 82회나 이 용어가 쓰였다. 이것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의 무리를 먹이는 영적인 목자'를 목사로 칭함을 알 수가 있다.

목회는 먼저 인간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일이다. 그런데 목회가 관심의 대상으로 삼는 인간의 영혼은 인간 속에 있는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과 정신이 하나가 된 인격적인 전인으로서의 영혼이다. 바로 그런 점에서 목회는 하나님을 위한 전인의 성화를 과제로 삼는다.⁶²⁾ 그러나 목회는 일방적으로 인간을 돌보아 주는 일로 끝나 버릴 수는 없다. 개인을 돌보는 일, 즉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일 뿐만 아니라 개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⁶³⁾ 이런 점에서 목회는 개인의 죄를 용서함 받게 하고 병을 고치며 사회와 가정을 돌보는 삶 전체를 보살피는 일이라 볼 수 있다.

나. 목회의 치유적 기능

목회의 기능은 기독교 역사를 통하여 각 시대마다 문화적, 심리적, 종교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목회의 기능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⁶⁴⁾ 그것은 치유 기능, 유지 기능, 지도 기능, 조정 기능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목회의 치유 기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씨워드 힐트너(Seward Hiltner)는 치유를 고통, 왜곡, 침해 등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고쳐서 전보다 더 발전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본다. 즉 치유는 손상되고 파괴된 인간들을 온전한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므로 치유는 이전 상태보다 차원이 높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⁶⁵⁾

치유한다는 말은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은 '재생성(再生性)'과 같은 말이다. 치유는 손상된 어떤 기능이 완전히 작용하도록 원상 회복시켜

62) Eduard Thurneysen, 목회학 원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성서 교재 간행사, 1979), 44.

63) Rudolf Bohren, 신학 연구 총론, 김정준 외 6인 공역 (서울: 서울 신학 연구소, 1986), 24.

64) 김득룡, 현대 목회 실천론 신강, 117-125.

65) Seward Hiltner, 목회 신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서회, 1981), 117-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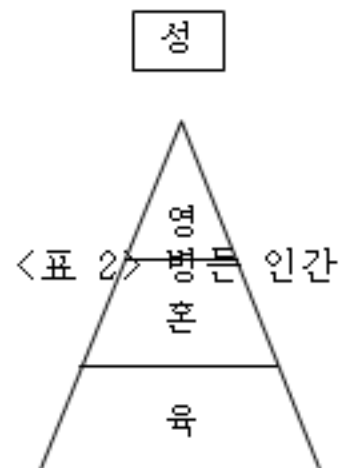
주는 것이다. 목회에서의 “치유는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 영적인 모든 면에서 완전성을 의미한다”⁶⁶⁾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힐트너는 치유 목회를 세 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⁶⁷⁾ 치유 목회는 1단계로 환자의 병을 시인하고 수용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환자의 감정에 동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여기에는 환자 자신이 자신의 병과 그 병으로 인한 제한성을 수용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2단계로는 전인적인 회복에 초점을 두어 육체의 치유와 더불어서 생을 재발견하고 인격을 재체제화(再體制化)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지향하도록 하며 전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목회이다. 마지막 3단계는 치유 목회는 종교적 깊이의 차원에서 시작하여 종교적인 회복으로 종결되는 목회이다. 결국 목회에서의 치유 기능은 손상된 기능을 원상 회복시키는 것이요 본래의 모습으로 온전케 하는 목회이다. 그러므로 치유 기능은 단지 질병으로부터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유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치유 목회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병을 근원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역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치유 목회가 다루어야 할 질병과 치유에 대한 이해를 도표를 통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은 건강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표 2>는 구원 받아야 할 대상인 병든 인간을 나타낸 것이다. 성서는 모든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선언하고 있다(롬 3:10; 23).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표 2>의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교통함으로써 행복과 건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과 혼, 육의 질서가 어긋남으로 해서 전인적인 건강을 상실해 버렸음을 보여 주고 있다.



66) Ibid., 119.

67) Ibid., 117-123.



표에서 보면 인간의 치유는 어떤 한 영역에 대한 것만으로는 미흡하다. 앞에서 언급한 많은 학자들의 치유에 대한 견해들을 통해서 본 바와 같이 치유는 육신적인 병고침이나 정신 질환의 고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차원에서의 구원을 의미한다.

치유의 유형에 대해서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는 다음의 <표 3>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⁶⁸⁾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치유의 은사를 행하는 차원에서의 이해는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오히려 본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치유 목회의 관점에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치유 목회도 일반 의학이나 심리요법, 또는 정 신과적 처방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들과 밀접한 협조 체계를 유지함이 바람직하지만 <표 1>과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 문제의 해결이 언제나 근본적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치유 목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치유 목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전인적 치유를 가져오는 것이며⁶⁹⁾ 그외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지혜에 의한 보조적인 수단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68) Francis MacNutt, 치유, 변진석, 변창욱 공역 (서울: 무실 출판사, 1992), 207.

69) 이재범, "치유 목회 현장론",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112.

5. 치유 목회의 문제점

한국 교회는 치유 목회 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채 치유 경험에 의한 실천적인 면만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⁷⁰⁾ 먼저 용어 사용의 문제에 있어서 ‘치유 목회’, ‘치유 사역’, ‘신유 은사’ 등을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어쩔 수 없는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치유 목회를 ‘치유’ 혹은 ‘신유’의 좁은 의미로 이해할 때 사단의 유혹이나 거짓 선지자들의 훼방의 여지가 남는 위험이 있게 된다(신 13:1-3). 또한 치유 목회가 병 고침이라는 단순 논리에 집착하면 치유자가 강조되고 그에 따라 인간이 높임을 받게 되는 위험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오컬트(occult)나 심령 치유 등이 치유 은사와 혼동을 가져오는 것도 치유가 오직 병 고침에 초점을 두고 이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 치유의 유형

70) Ibid., 114.

질병	질병의 원인	기도의 처방	통상적 처방	목회적 처방
(1) 영의 질병 -흔히 정서적 질병을 일으킴. -때때로 신체적 질병을 일으킴	개인적인 죄	회개		예배 설교 성례전 심방과 상담 성경공부 봉사
(2) 감정의 질병 -흔히 영적 질병을 일으킴 -흔히 육체적 질병을 일으킴	타락한 인간의 상황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입은 마음의 상처)	내적 치유를 비는 기도	상담	
(3) 육체적 질병 -정서적 질병 -영적 질병을 일으킴	질병, 사고, 스트레스로 정신, 신체적 질병이 생김	치유를 비는 믿음의 기도	의학적 치료	
(4) 위의 세 가지 중 한 두 가지, 혹은 다 나타날 수 있음	귀신의 억누름이 발병의 원인	축사(逐邪)를 위한 기도		

만약 작금에 통용되고 있는 병 고침이나 능력 행함의 차원에서 치유 목회를 규정한다면 특정한 은사 중심의 목회로 치달을 위험성이 다분하며 균형 잡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영적 치유, 전인 치유-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치유 목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주어지는 것이다.⁷¹⁾

또한 신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치유 사역을 전인적 치유-구원-의 관점인 치유 목회적 입장에서 통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무속 종교와 구분할 수 없는 혼합 종교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치유 목회가 특정인들의 전유물인 양 인식되는 잘못된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신학적 재조명을 통해 이루어질 때 성서적인 치유 목회가 바르게 자리잡을 것이다.

71) 오성춘, "신유의 은사와 영적 치유의 상관성",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91.

제 3 절 교회 성장의 신학

하나님께서서는 오늘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 3절에서는 ‘교회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와 함께 교회 성장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과의 상관성에 대해서도 짚어 볼 것이다.

1.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

교회 성장에 대한 이해는 그것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르며 또 그 용어가 지니는 광범위한 개념 까닭에 그 끼친 영향력과 공헌에 비해 적지 않은 오해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교회 성장의 필연성과 정의, 그리고 교회 성장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교회 성장의 필연성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Church growth is the will of God)⁷²라고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교회 성장의 당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초대 교회나 현대 교회의 목회에 있어서 교회 성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매우 크다. 따라서 목회자의 목회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목회의 본질인 것이며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림자처럼 항상 따르는 필연적 과제이다.⁷³

초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목회의 목적은 예수께서 친히 부탁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행 1:8)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교회를 세우며 성장시키는 목회 사역을 수행했다. 교회 성장의 의미는 불신자를 구원시키며, 그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훈련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은 교회를 성장시키는 사역이 곧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것으로 확신했다.

72) 명성훈,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6), 4에서 재인용.

73) 방지형, 교회 성장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91), 23.

또 사도 바울이 “그에게서 온 몸이....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엡 4:16) 한 것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교회 성장에 얼마나 힘썼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모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한다. 잃은 자를 구원하여 주의 몸된 교회의 회중 속에 연합시키며 생산적인 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교회 전체가 이 목표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희생을 감내 할 때 교회 성장은 시작된다⁷⁴⁾

나. 교회 성장의 정의

도널드 맥가브란(Donalds A. McGavran)에 의하면 교회 성장의 정의를 삼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⁷⁵⁾ 첫 단계로, 교회 성장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성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당연히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로, 교회 성장은 잃은 자를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양들을 우리 안에서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일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꼴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 성실해야 한다고 한다. 마지막 단계로, 건전한 교회 성장이란 교인들이 그 사회에서 진실하게 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을 함으로써 교회들을 발전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성실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한다.

피터 와그너(Peter Wagner)는 교회 성장을 정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아무런 개인적 관계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와 더불어 교제를 가지도록 해주며 책임 있는 교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의미한다”⁷⁶⁾라고 하였다. 티페트(A. R. Tippet)는 교회 성장을 외적으로 볼 때는 외형적이고 수적인 성장으로, 내적으로 볼 때는 영적이고 질적인 성장으로서 폭 넓고 생동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다.⁷⁷⁾ 박선희는 교회 성장이란 곧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을 뜻하는 것으로서 그

74)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90), 249.

75)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문 출판사, 1979), 23.

76) Peter Wagner, 교회 성장의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10.

77) A. R. Tippet,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세계, 장중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77), 20.

리스도의 주권의 확대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뜻하고 그 나라의 의(righteousness)가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⁷⁸⁾고 하였다. 미국 교회 성장 협회에서 작성한 교회 성장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회 성장이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마 28:19-20)는 하나님의 명령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관련된 교회의 본질, 확장, 개척, 증식, 기능, 건강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교회 성장학은 교회의 성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속의 영원한 신학적 원리를 현대 사회과학이나 행동과학의 가장 좋은 원리에 통합하려고 노력하며 도널드 맥가브란 박사의 연구 작업을 최초의 좌표계(座標計)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⁷⁹⁾

다. 교회 성장의 본질

교회 성장은 교회 성장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교회 성장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⁸⁰⁾ 첫 번째 질문은, '교회 성장은 과연 성서적이냐?' 하는 것이다. 교회 성장은 철저하게 다음과 같은 교리에 충실해야 한다. 성경의 영감과 권위, 그리스도의 신성, 성령의 인격과 사역, 교회 중심적 세계관, 인간의 전적 타락, 천국과 지옥의 실재,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등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체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셨다. 즉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이다. 하나님의 교회이므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고전 3:5-7). 그러므로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장하기 원해야 하고 또 마땅히 성장해야 한다. 교회 성장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필수 사항이다.

두 번째 질문은, '교회 성장에는 어떤 영역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교회 성장은 무조건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하고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가치와 학문적 연구와 총체적 균형을 서로 조화 있게 추구하는 것이 교회 성장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교회 성장의 영역을 네 가지로 말해 주고 있다. 먼저 제1영역은 영적 성장이다. 42절에 보면 초대 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열심히 모여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

78) 곽선희, "교회 성장의 신학적 이해", 복된 말씀, 1973년 12월호, 12.

79)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 성장 연구소, 1996), 41.

80) Ibid., 40-42.

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하였다. 즉 예배와 말씀과 성찬 등의 영적인 일에 몰두한 것이다.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성장(growing up)이다. 제2영역은 내적 성장이다. 44-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성서적 원시 공산주의의 모습이다. 교회는 일치가 되어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성장한다. 내적 성장은 신자들과 함께 하는 성장(growing together)이다. 제 3 영역은 외적 성장이다. 47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했다. 오늘 의 교회가 교회 성장을 제대로 원한다면 신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한 교회도 되어야 한다.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워 주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비스센터가 되는 성장(growing out in service)이 되어야 한다. 제 4 영역은 양적 성장이다. 47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하였다. 교회에 사람을 채워 주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다. 인간이 숫자를 목표로 세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날마다 더하여 주셔야 숫자적으로 성장한다(growing more in numbers).

2.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의 상관성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성장하는 교회들의 유형들을 크게 내적 성장, 팽창 성장, 확장 성장 그리고 선교 성장의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⁸¹⁾ 그리고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과는 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가. 교회 성장의 유형들

교회 성장의 유형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적 성장으로 기독교인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성장하는 것이며 둘째는 팽창 성장으로 그 교회가 사역하는 지역 내에 비기독교인들을 복음화함으로써 지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고 셋째는 확장 성장으로서 일반적으로 같은 동질적인 그룹 내에서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며 넷째는 선교 성장으로서 다른 문화권에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81) Peter Wagner, 교회 성장의 원리, 342.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 가지의 성장 유형들을 통하여 치유 사역이 교회 성장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내적 성장

내적 성장이란 이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기독교인의 영적 성장을 말한다. 이것은 회중들의 신앙적인 면에서의 깊이와 질적인 발전을 뜻한다.⁸²⁾ 즉 교회 내부를 '온전케 하는 일'(딤후 3:17)로서 질적 성장은 내적인 충실을 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지식(벧후 3:18), 사랑(살후 1:3), 교제(고전 1:9), 소망(히 3:6), 열심(히 6:11), 인내(히 10:36) 등을 가르쳐 거룩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다(마 13:23, 롬 6:22). 이렇게 될 때 교회는 구조적으로 건실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행 6:1-7).

내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⁸³⁾ 교회는 복음 전파를 통한 영적인 치유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고전 3장).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를 성장케 하신다.

그런데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간에 서로 용서해 주고 사랑하며 냉담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 복음 전파와 함께 이런 사역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속에 성장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육체적인 질병에 앞서 영적인 질병의 치료에 힘써야 한다. 육체적인 질병의 많은 원인이 영적, 정신적 해결을 보지 못한데서 오기 때문이다. 프란시스 맥너트도 인간의 육체와 정신적, 영적 건강 사이에는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어떤 질병은 근심과 고뇌의 뿌리가 제거될 때 깨끗이 사라진다고 하였다.⁸⁴⁾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정신적 치유를 통한 내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복음을 받는 것이며 복음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럴 때 내적 성장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82) 박찬섭, 교회 발전과 성령 은사 (서울: 엘멘 출판사, 1990), 149.

83) Peter Wagner, 교회 성장 전략, 이재범 역 (서울: 도서 출판 나단, 1991), 134.

84) Francis MacNutt, 치유, 78.

(2) 평창 성장

평창 성장이란 비그리스도인을 복음화함으로 지역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⁸⁵⁾ 평창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내에 상담 기구를 두어 전도의 기회로 삼는다. 교회가 치유 목회 차원에서 전문 상담 기구를 두어 외부의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각종 고민과 어려운 문제를 상담해 줄 때에 그들은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더욱 쉽게 받아들일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팀 사역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팀 사역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이웃 주민들에게 전인적인 치료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러한 팀 사역은 주민들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가 혼자 할 수 없는 여러 영역들을 효율적으로 짧은 시간에 감당할 수 있다. 의료 선교 팀이나 불우 이웃을 위한 봉사 팀, 찬양 선교 팀이 여기에 해당하는 팀 사역의 한 모습들이다. 세 번째는 능력 치유, 능력 전도이다. 이것은 교회가 가장 두드러지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능력 치유는 즉각적으로 밖에 드러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표증이 되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나 초대 교회 사도들에게서도 많은 사람들이 치유 사역을 보고 소문을 들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던 것은 능력 치유로 인한 표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막 1:45; 눅 5:17-26; 행 16:5).

‘제3의 물결’이란 용어를 만든 피터 와그너는 “나는 하나님의 신유 역사를 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다. 교회가 회심이나 신생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적, 정서적, 영혼의 치료를 기대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⁸⁶⁾고 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오순절 주의나 은사주의의 배경이 없었던 많은 교회들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⁸⁷⁾ 존 Wimber(John Wimber)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로서 능력 전도(power evangelism)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능력 전도는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또한 그 이성을 초월하는 복음의 표현이다. 복음에 대한 설명은 이적과 기사를 통한 하나님의

85) Peter Wagner, 교회 성장 전략, 342.

86) Peter Wagner, 성령의 능력과 교회 성장, 이재범 역 (서울: 나눔터, 1997), 260.

87) John Wimber, 제3의 물결을 타고, 변진석, 변창욱 역 (서울: 도서 출판 무실, 1991), 40.

능력 시위와 함께 해야 한다. 왜냐하면 능력 전도에 있어서 복음의 거부감은 초자연적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제거되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수용성이 매우 높게 되기 때문이다.⁸⁸⁾

영적인 은사들은 사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목회 사역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는 수단이기도 하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한다. 능력 받고 전도하며, 능력 받고 치유해야 한다.

(3) 확장 성장

하나님 나라를 가장 신속하게 확장시키는 방법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다시 말하면, 새롭고도 건강한 교회들을 계속 세우는 것이다.⁸⁹⁾ 피터 와그너는 확장 성장을 “같은 동질 그룹 내에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⁹⁰⁾라고 했다. 여기서 치유 사역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존 워버의 경우 주로 능력 전도를 통하여 포도원 교회를 6,000명의 교회로 성장시켰다. 그는 2,000 년까지 북아메리카 전체에 1만 개 이상의 포도원 교회를 설립할 꿈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그들은 포도원 교회 협의회에 250개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⁹¹⁾ 에쿠아도르의 구아야킬에서는 치유의 실재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놀랍게 경험되었다. 그 당시의 치유의 역사로 1,500명의 새로운 신도들이 세례를 받았고 6주간 7개의 새로운 교회를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⁹²⁾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 중앙 교회는 치유 목회와 함께 구역 조직(home cell groups)의 활성화로 평균 출석 신도가 약 이십 오만 명이 넘는,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급성장을 하였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성령의 강한 역사와 더불어 구역 조직과 복음주의가 교회 성장의 열쇠”⁹³⁾라고 조용기는 말하고 있다.

88) Ibid., 48.

89) Peter Wagner, 교회 성장 전략, 138.

90) Ibid., 342.

91) Peter Wagner,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임마누엘, 1991), 90.

92) Ibid.

93) David Yonggi Cho, Successful Home Cell Groups (Seoul: Logos, 1997), 57-58.

(4) 선교 성장

교회는 또한 선교를 통하여 성장한다. 선교의 정의에서 바르넥(G. Warneck)은 “선교란 비기독교 세계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한 복음 전파이다”⁹⁴⁾라고 했다. 도날드 맥가브란도 “선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들고 문화의 경계를 넘는 것이며 사람들을 권하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의 교회의 책임적인 회원이 되게 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도와 사회 정의를 위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⁹⁵⁾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교 성장은 다른 문화권에 교회를 설립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⁹⁶⁾

나.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

치유 목회는 먼저 인간의 전인적인 치유와 돌봄을 통해 병이 나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감사함과 충성심이 원동력이 되어 신앙이 깊어지는 질적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함으로써 누룩의 효과와 같이 교회의 양적 성장을 가져오는 상관 관계가 있다.

(1) 목회와 치유의 관계

목회는 목회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과 교회에 의해 주어진 법에 따라 정당한 위임에 근거를 두고 실행되어지는 활동으로서 설교, 성례전, 교육, 상담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 이러한 목회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강조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것을 ‘영혼의 돌봄’ 또는 ‘영혼의 치료’(cura animarum)라 한다.⁹⁷⁾ 영혼의 치료는 보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교회 안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활동들의 기초와 목적이 된다.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치유를 논하면서 “구원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

94) Gustav Warneck, 선교학 (Evangelisch Missionlehre), 전호진 역 (Gothe: Friedrich Andreas Perthes, 1987), 20에서 재인용

95) Arther F. Glasser and Donald A. McGavran, 선교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전호진 역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21에서 재인용

96) Peter Wagner, 교회 성장 전략, 342.

97)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 위원회, “목회”, 기독교 대백과 사전, vol. 6 (서울: 기독교문사, 1994), 347.

로 치유이다. 다시 말하면 꺾어지고 무너진 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⁹⁸⁾이라고 하였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에서의 치유와 영적인 죄악에서의 구원, 그리고 공동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그 부분 뿐 아니라 전인적인 와해의 위기를 맞게 된다고 보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는 질병 이전보다 더 완전한 전인적인 인간 회복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목회는 예수님처럼 인간을 전인 회복의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목회는 단지 인간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개인 개인의 영혼을 돌보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목회는 성도의 개인의 죄 문제, 질병의 치유 문제, 가정과 사회의 삶 전체를 보살피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목회에 있어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면과 더불어 성도들을 돌보고 치유하여 전인 구원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목회와 치유 사역은 밀접한 관계에 있다.

(2) 치유와 교회 성장과의 관계

초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성령의 역사와 치유 사역이었던 것을 살펴보고 오늘날 교회 성장을 위한 치유 목회의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여기서 전인 치유와 치유 공동체를 통하여 교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치유와 교회 성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가) 초대 교회의 경우

초대 교회 성장의 요인은 교회 성장의 네 가지 유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 성장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에 의한 것이었다. 거버(V. Gurber)는 "성령은 믿는 성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이 되신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는데도 생명이 되신다"⁹⁹⁾라고 하였다. 또한 존 스톱(John Stott)은 "초대 교회는 성령의 카리스마 운동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자유와 사랑, 내적인 해방감, 넘치는 기쁨과 평안,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강한 의식, 사랑의 교

98) Paul Tillich, *Systematic Theology*, vol. I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277.

99) V. Gurver, *교회 성장 진단 연구법*, 조동진 역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사, 1974), 19.

제, 선교에 대한 불타는 열심 등을 경험함으로써 급성장해 나갔다”¹⁰⁰고 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치유 사역 중에서 병 치료 은사를 사용하시어¹⁰¹ 초대 교회 성장의 밑거름을 삼게 하셨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순간부터 성령을 체험하고 치유를 행하며 선교하는 공동체를 이룬 것이 교회 성장의 비결이었다면, 오늘날도 치유를 통해 병자들을 고치고 싸매어 주는 결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나) 교회 성장을 위한 치유 목회의 적용 가능성

초대 교회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에서 본 바와 같이 치유의 역사가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 성장이 크게 정체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치유 목회가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교회 성장을 이루기 위한 치유 목회의 적용 가능성은 먼저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영적인 시각이 새롭게 뜨여짐으로 해서 영적이고 내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사람이 아프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도 아파서 병석에 누워 있는 동안에 생각이 더욱 깊어지고 마음이 더 겸손해진다. 따라서 병이 나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실재에 대한 신앙이 보다 깊어져서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즉 내적 성장으로 인한 외적 변화(inner growth, outer change)를 가져온다. 따라서 치유 목회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병이 나은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함으로써 교회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병이 나은 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아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되고 교회에 대한 충성이 배가(倍加)된다. 치유 목회는 병이 나은 사람이 뜨거운 감격과 감사와 충성심이 원동력이 되어 신앙생활이 활발해져서 전도와 봉사에 힘쓰게 됨으로 교회의 양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인 치유 목회로 병들고 비인간화된 인간들이 전인적인 치유를 받고 건강하게 될 때, 그리고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healing community)가 될

100) John R. Stott, 오늘날 성령의 역사, 조병수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원, 1983), 3.

101) 여기서 하나님의 병 치료를 통한 치유는 전인 치료 방법 중의 하나이지만 필자는 이외의 다양한 치유 목회 방법들을 간과하고 있지 않다. 전장(제2장 제2절 치유 목회의 신학)과 후장(제4장 제2절 치유 목회의 방법들)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전인 치유 목회 방법의 틀 안에서 병 치료 은사를 보고 있다. 즉 병 치료 은사가 치유 목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다.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제 4 절 요약 및 결론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질병으로 인해 파괴된 인간을 치유하시어 온전케 하는데 있다. 질병은 우리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 원인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잘못된 삶에서 오는 것으로, 그것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어지고 자연과 환경의 평형 상태가 파괴되어 오기도 하고,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로 공동체 내의 평화가 깨어질 때 오기도 하며, 정신적, 육체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기도 한다. 둘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는 유전적 요인, 병균의 전염, 숙주의 활동, 부적응과 위험요인이 원인이며 그것은 수태시에 또는 빈곤이나 풍요로부터 온다. 셋째, 질병의 원인에 대한 성서적인 견해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의 결과로부터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성서는 또한 인간의 질병이 하나님의 섭리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온다고도 말하고 있다.

성서에는 무수한 병들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병마에 시달리며 도탄에 빠진 인간들을 건져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환자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인격으로 보았으며 또 전인으로 보셨다. 율법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죄사함의 은혜까지도 베풀어 주셨다.

치유의 목회는 병든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의 성장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서 치유의 목회를 해야 한다.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가 바로 '신유'(divine healing)이다. 오늘날 점점 조직화되고 제도화되고 기업화되어 가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냉랭해진 교회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서 본래 주님께서 의도했던 방향으로 교회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치유 목회는 교회 성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적인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육신적인 치유를 받아 넘치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으로 모이기에 열심히 함으로 교회가 성장하였듯이 오늘의 한국 교회도 치유 목회로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한국 교회는 치유 목회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치유 목회로 교회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지역 사회와 교회의 현황

지역 사회 안에 있는 교회는 그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세상'이라 부르는 지역사회를 알아야 한다. 3장에서는 보광 장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교회의 현황들을 여러 가지 통계와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지리적인 위치, 인구 감소 추세, 어려운 경제와 문화 생활, 주민의 정서와 종교 성향 등이 교회 성장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 1 절 보광 장로 교회가 소재한 지역 분석

여기서는 보광 장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 산업 경제, 인구 현황과 종교적인 환경을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농촌 교회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도시보다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 지리적인 여건

본 교회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타원형의 도넛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완주군 남쪽의 구이면 평촌리 원평촌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전주시의 동쪽 해발 600미터가 넘는 고덕산 아래에 위치한 길다란 산골짜기 속의 농촌 지역이다. 구이면은 대부분이 산간 지역(78.6퍼센트가 임야)으로 형성되어 있고 산과 산 사이에는 준평야지가 있다.

평촌리는 본래 전주군(1935년 10월 1일 이후로 완주군) 구이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상보, 하보, 원평촌, 소용, 상척, 하척, 태실을 병합하여 평촌리를 만들고 구이면에 편입하였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¹⁰²⁾ 산맥으로

102) 완주 군청, 완주 군지 (전주: 신아 출판사, 1996), 340.

막혀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주시에 가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남쪽 태실 쪽으로 출입을 해야 되며 경제, 교육, 문화 등의 생활권이 모두 전주시에 속해 있다. 북쪽에 위치한 전주시 서학동 쪽으로 직선 거리로는 자동차로 10분도 안 걸리는 거리이지만 산맥으로 가로막힌 도로 구조상 한 바퀴 빙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20-30분이 걸리며 따라서 교통이 매우 불편한 지역이다.

2. 산업과 경제적인 요인

완주군 봉동 지역에 큰 공단이 하나 있기는 하나 이곳을 제외한 완주 지역은 대부분 도시 근교 농업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이 지역의 농업은 1980년대 이래 전주시의 확대와 공업화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왔기 때문에 타 지역이 갖지 않는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다.

완주 군청 당국은 완주 농업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¹⁰³⁾ 첫째, 도시화의 영향으로 과수, 채소 등의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이다. 완주 농업의 유리한 조건은 전주시라는 큰 소비 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로 이 지역에서 상품으로 생산이 되는 농산물은 감, 복숭아, 대추, 은행, 수박, 고추, 딸기, 상추, 생강, 오이 등이다. 둘째,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임금과 생활비가 높아졌다. 청장년층의 도시 유출은 전국적인 경향이지만 이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곳 농가의 경우 전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도시 생활 양식의 변화로 생활비가 높아져 높은 소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곳의 농가들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전업 농업을 하거나 노동 임금 수입을 주로 하는 재촌(在村) 겸업 농가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도시화, 공업화의 진전과 인플레이션에 의해 지가(地價)가 매우 높아졌다. 지가의 상승은 도시 자본과 인구 집중을 수반한 주택 용지, 도로, 학교, 상업 용지, 공장 용지 등 공공 시설 용지로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된 결과이다. 이러한 지가의 상승은 농민의 영농 의욕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 기대 심리로 농업 생산 기반에 대한 투자가 낮으며 영농 규모의 확대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완주의 농업은 좁은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넷째, 도시화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의 환경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 도로, 주택, 공장 건설 등

103) 완주 군청, 완주 군지, 691-692.

에 의한 일조 및 통풍의 약화, 공장 가동에 따른 대기 오염과 오수, 쓰레기 등으로 도시화,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다. 공장 폐수, 생활 폐수 등이 농업 용수로 흘러 들어와 주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천은 심각한 수질 오염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의 도로, 상, 하수도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 용수의 분단, 저수지와 관정(管井)이 고갈되는 등 농업 용수의 확보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지역 농업의 특징은 시장의 유리성, 상대적인 높은 생활비, 높은 지가, 농업 생산의 환경 악화 등 농업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과 불리한 조건을 아울러 갖고 있다. 전주 시가의 확대와 공업화에 따라 이곳의 농업은 다수 농지가 상실되고, 그 유리한 조건이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1992년말 구이면의 경지율은 13.5퍼센트였고 답률(답率)은 60.7퍼센트였다.¹⁰⁴ 주로 벼를 단작(單作)으로 하고 있으며, 아주 적은 면적의 보리와 미나리의 이모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평촌리 지역은 벼의 단작이 대부분이며, 관상수와 화훼 재배가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호당 경지면적은 0.92ha로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한 편이다.¹⁰⁵

3. 인구 현황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3년 동안의 완주군의 인구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으며¹⁰⁶ 1990년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구이면의 인구수와 세대수의 증감 추이는 <표 5>, <표 6>과 같다.¹⁰⁷ 그리고 평촌리의 1999년 12월말 가구는 176가구이고, 인구수는 524명이다(이 수치는 주민등록상 인구 통계 자료임).

이 통계들을 분석해 보면 1980년대까지는 인구수가 상당히 많았으나 도시화, 공업화로 이농현상이 두드러졌고 청, 장년층이 적어졌으며 노인층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구이면의 경우,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는데 가구 수가 조금 늘어난 것이 눈에 띈다. 그 이유는 청장년층의 인구가 계속적으로 농촌을 떠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노년층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독거(獨居) 노인의 가구 수 증가는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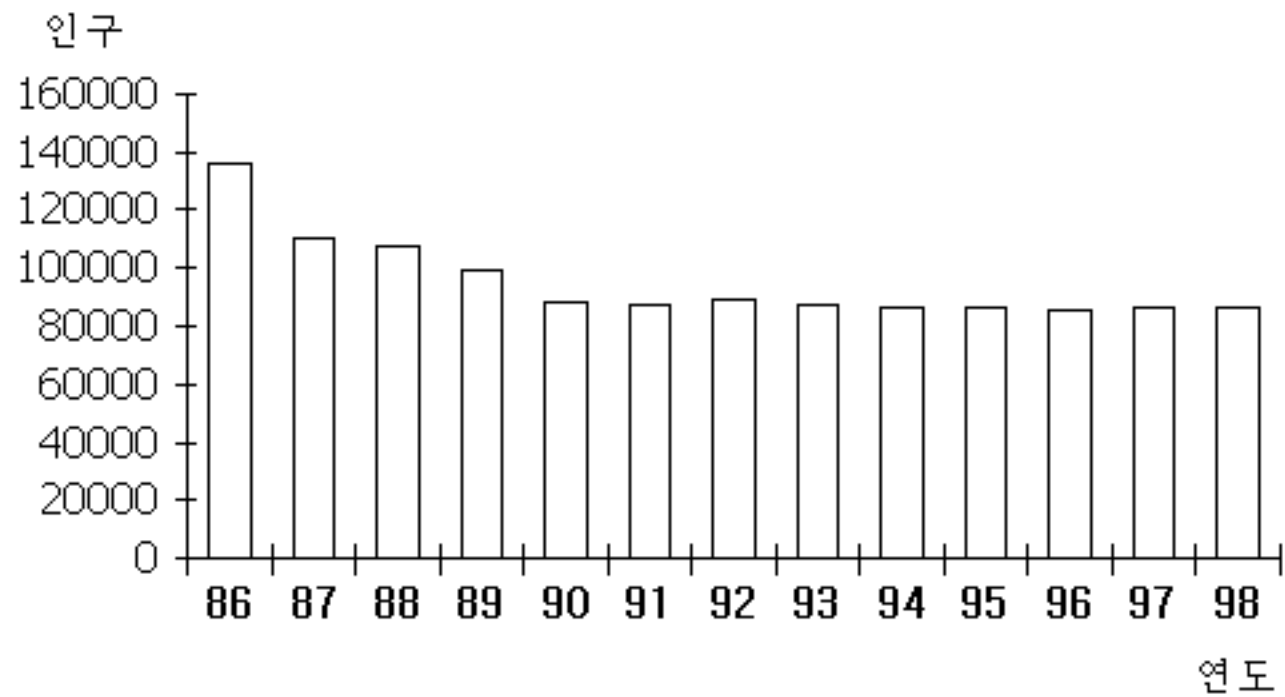
104) 완주 군청, 완주 군지, 693.

105) Ibid.,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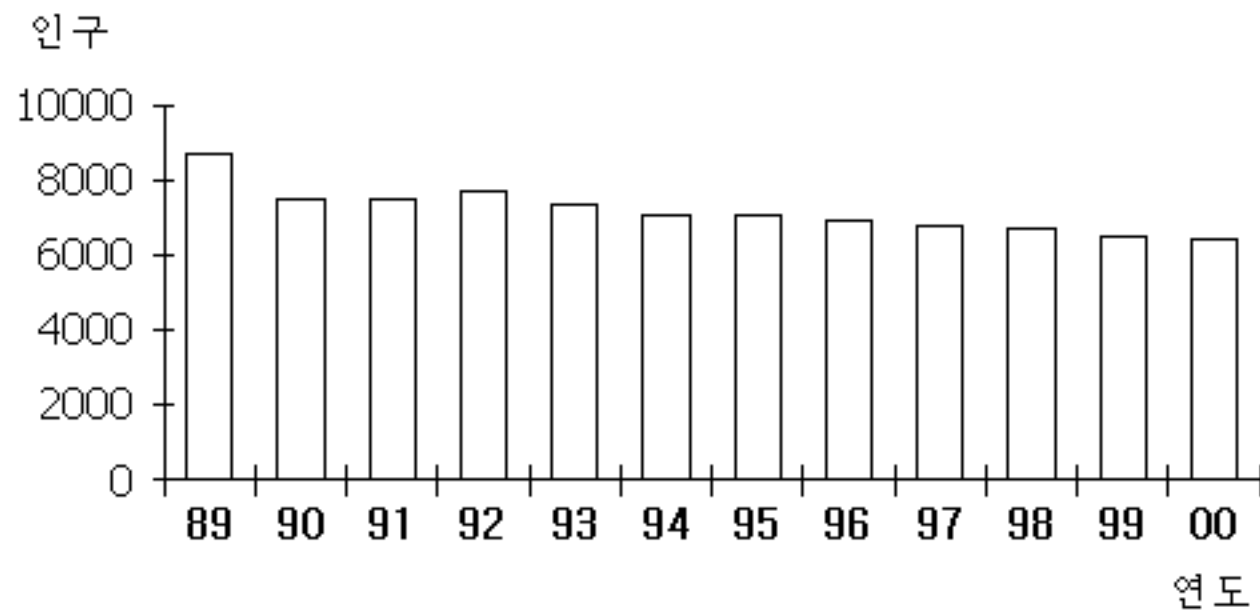
106) 완주 군청, 통계 연보 1999 (전주: 완주 군청 기획 감사실, 1999), 36.

107) Ibid., 38.

〈표 4〉 완주군의 인구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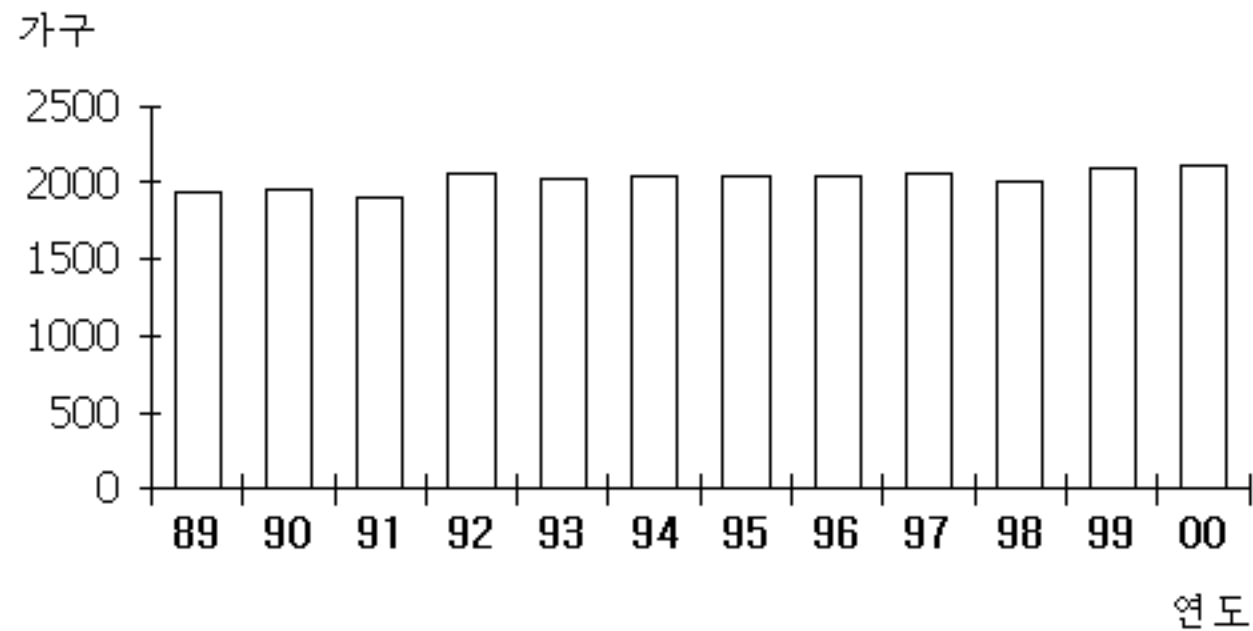
〈표 5〉 구이면 인구 추세



4. 종교적인 환경

보광 장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종교적인 환경으로써 전통적인 무속 종교를 비롯하여 유교, 불교, 기타 종교 등이 있다. 무속 종교는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전통 사회 속에 존재해 왔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끈끈한 영향을 미쳐 왔다. 그후로 불교, 유교, 천주교 등의 외래 종교가 들어와 종교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표 6〉 구이면 가구 추세



가. 무속 종교

한국의 전통 사회는 어디나 다 그렇지만 이 지역 역시 무속 종교가 강세를 이루는 곳이다. 무속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민속 신앙으로서 과학이 발달한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이면에 존재하면서 꾸준히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한 샤머니즘의 문화권에서 오랜 세월 동안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 샤머니즘적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무의식(巫儀式)을 행하는 사제자(司祭者)를 흔히 무당이라 일컬었고 일반적으로 점쟁이, 독경쟁이, 보살, 판수 따위를 무의(巫醫)라 하였다. 한편 무당을 중부 이북에서는 만신, 중부 이남에서는 단골, 제주도에서는 심방이라 한다.¹⁰⁸⁾ 지금도 평촌리에는 마을마다 단골 또는 점쟁이가 한 명 정도 있으며 묘자리를 잡아 주는 소위 '지관(地官)'들도 있다.

음력 2월이 되면 마을에는 동제(洞祭)가 있다. 동제는 마을 사람 공동으로 주관하며 전라도에서는 이것을 별신굿(別神祭)이라고도 부른다.¹⁰⁹⁾ 동제에는 당산제와 기우제 등이 있다. 동제를 지내는 장소는 당산수(堂山樹), 누석단(累石壇), 장승이 있는 곳 등이며 매년 제사를 지내고 사물놀이 등으로 흥을 돋구었다. 동제를 통해서 마을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강하게 할 수가 있었다.¹¹⁰⁾ 동제 중에서도

108) 완주 군청, 완주 군지, 1446.

109) 김동욱 외 3인, 한국 민속학 (서울: 새문사, 1993), 195.

110) Ibid, 90.

구이면 백여리 대모 오봉산 기우제와 평촌리의 고덕산 기우제 그리고 계곡리와 백여리 대모 당산제는 유명하였다.¹¹¹⁾ 본 교회가 처음 창립된 1973년부터 몇 년 동안은 마을의 동제를 주관하는 분들과 교회간에 보이지 않는 대립이 있었고 그것이 초창기 교회 성장에 어려움이 되기도 했다.

나. 유교

완주 지역에 있어서의 유교의 유입과 그 포교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문헌상의 기록이 따로 없다. 지금의 완주 지방이 고대 백제에 속해 있던 영토이었으므로 백제 시대 이래 유입된 유교의 발전사로부터 고찰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남겨진 유교 유물이나 유산 그리고 유교적인 기풍을 통해 이 지역의 유교의 영향과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유교의 유물과 유산으로는 향교, 원우(院宇)와 서당, 유도회(儒道會) 등이 있다. 향교로는 전주 향교와 함께 고산 향교가 유명하며, 서원으로는 구호 서원, 호산 서원, 용강 서원, 봉강 서원, 봉양 서원, 청하 서원, 용진원, 삼현사, 대승사, 반곡사, 백현사, 보광사 등이 있는데 그중에 보광사는 구이면 평촌리 원평촌에 있다. 보광사는 본 교회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이 사우(祠宇)는 현종 46년(1720)에 창건되었으나 대원군의 전국 서원 철폐령에 의거 철폐되었던 것을 1971년에 복원한 것이다. 현재 이 사우에는 이연복 외 7인의 위패(位牌)를 봉안하고 있으며 매년마다 시제(時祭)를 지내고 있다.¹¹²⁾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시에 서로 상부상조하기 위한 '상포계(喪布契)'가 지금도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조상 숭배가 지극하며 묘의 관리와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정서 때문에 기독교 복음 전파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다. 불교

이 지역의 불교 세력 또한 만만치 않다. 그러나 이 불교는 무속 종교와 많이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속 종교인지 순수한 불교인지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다.

111) 완주 군청, 완주 군지, 1443-1445.

112) Ibid., 1151-1170.

구이면 관내에만 대원사를 비롯하여 9개의 소규모 사찰이 있는데 태고종이 7개처, 조계종이 1개처, 관음종이 1개처이다. 평촌리 하보 마을 뒤쪽에는 옛날 절터인 보광사지(普光寺址)가 있다. 보광사에 대해서는 고려말 이 색(李穡)의 저서인 '가정집(稼亭集)'에 약간의 기록이 나올 뿐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보광사는 백제 시대에 창건된 조그마한 고찰로 화엄종계의 사찰이었다고 하며,¹¹³⁾ 그 후로 이 사찰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고 다만 하보 마을 주위에 적은 와편(瓦片)들과 연화문 대좌(蓮花紋 臺座) 그리고 석등 대좌가 마을 뒤편 길옆에 남아 전해 오고 있다.

구이면 관내 사찰에 등록된 불교 신도수는 약 590명 정도이다.(1994년 5월 12일 현재)¹¹⁴⁾ 여기에는 일 년에 한 번 석가탄신일에만 사찰에 가는 신도수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본 교회와 사찰, 또는 신도들과의 마찰이나 갈등은 없는 편이다. 또한 사회를 향한 연합 사업이나 서로간의 관심 또한 거의 없는 편이다.

라. 기타

평촌리에서 천주교에 다니는 가정이 4가정, 여호와의 증인 단체에 다니는 가정이 1가정, 그리고 나이 많은 농촌 총각을 외국(필리핀) 여인과 국제 결혼을 시켜주면 서 '참 가정 운동'으로 파고드는 통일교 교회를 다니는 가정이 3가정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머니는 본 교회를 나오는데 아들은 필리핀 사람과 함께 통일교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가정이 있다는 점이다. 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종교자 내지는 무속 종교, 또는 조상 숭배를 제일로 삼는 유교나 불교 등 혼합 종교를 가진 자들이거나 어느 종교이든지 믿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를 받았거나 실망하여 쉬고 있는 사람들이다.

5. 앞으로의 전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 장로 교회는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그렇게 썩 좋은 조건은 아니다. 지리적으로도 구이면 소재지로부터 한참 떨어진 한쪽 귀퉁이에 자리잡은 외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또한 <표 5>와 <표 6>에서 본 것처럼 인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

113) 완주 군청, 완주 군지, 1245.

114) Ibid., 1259.

다. 청, 장년 층은 줄어들고 노년 층이 늘어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은 점차 줄어들어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농촌이 살기가 힘들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인구적으로 볼 때 농촌 교회의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정적으로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맡겨지고' 있다. 이 아이들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중인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농촌으로 보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농촌의 인구 구성은 구조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다. 농촌 인구의 구성 요소는 농촌 교회 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농사를 지으며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가난과 질병, 소외감과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와 소원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시켜서 자녀들이 잘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도시 사람과 동등한 의료 환경과 복지, 교육, 문화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들에게 교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치유와 봉사의 방법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농촌에 위치하고 있는 보광 장로 교회는 '존재'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기존의 신자들을 건강하게 하고, 밖으로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문호를 활짝 열어 '불신자들에게 편한 예배'(the seeker friendly service)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¹¹⁵⁾ 그리고 교회의 문턱을 더욱 더 낮추어야 한다. 그리하여 삶에 지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하며 목회를 하게 될 때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제 2 절 보광 장로 교회의 현황

보광 장로 교회는 그 역사가 30년이 안된 교회이며 그 구성 수준과 조직 역시 미미한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신앙의 명맥을 잘 이어왔다. 여기서는 보광 장로 교회의 역사와 수적인 현황, 교인들의 직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15) George G. Hunter III,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서로 사랑, 1999), 123-130.

1. 역사적 현황

1970년대 초에 한국에는 김준곤 목사가 조직한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가 대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맹렬한 선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당시 젊은 청년들로서 인근의 구암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던 오창례, 이연길, 이용섭 등은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순(筍) 교육'을 받고 1972년 2월부터 평촌리에 있는 오창례의 집에서 '사랑방 성서 학교'로 모여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것이 평촌리에 보광 장로 교회가 태동하게 된 최초의 모임이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모이고 기도했던 이들은 이듬해인 1973년 3월 25일 부활주일에 이용섭의 집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고 구암 교회로부터 분립하였다.

구암 교회와 분립할 당시의 교구는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기득권이 있는 구암 교회는 엄청나게 세대수가 많은 덕천리 전체와 평촌리의 일부인 태실 마을과 상하척 중 하척 마을의 세대수 1/2을 가져가고 보광 교회는 광곡리와 평촌리의 상하보, 원평촌, 소용 그리고 상하척 중 하척 마을 세대수 1/2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978년 광 곡리에 광곡교회가 새로 설립되자 광곡리 세대수 마저 그 교회에 넘겨주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본 교회에 속한 교구내 세대수는 2000년 6월 30일 현재 120여 가구, 인구 500명 정도가 되는 셈이다.

보광 교회는 교인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가정집에서 감당할 수가 없어 평촌천 냇가 뚝방 옆에 천막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그해 여름에 불어온 태풍으로 천막으로 지어진 교회가 날아간 후 여기 저기 두어 번 옮겨 다니다가 이번에는 냇가가 아닌, 세 그루의 커다란 정자나무가 있는 곳으로 옮겨 허름한 양철 지붕으로 된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연말에는(12월) 초대 교역자로 김홍곤 전도사를 청빙하였다.

그러나 이때부터 동네 사람들의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기독교가 들어와 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마을 어른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상을 몰라보고 제사를 안 지내며 젊은 남녀끼리 함부로 모인다 하여 자녀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단속하고 동제를 더욱 성대하게 지내면서 팽과리 소리 등으로 예배를 방해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서 교회를 그렇게도 싫어하였던 이들을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 1974년 한 해에만 무려 열 사람이 세상을 뜨게 하였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려워하게 되었고 교회를 다시금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후 아무도 교회를 해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개척중에 있는 보광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된 전주 중부 교회에서는 본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고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기 시작했다. 그들의 도움은 커다란 힘이 되었다. 교회는 평촌리 314번지의 밭 374평을 매입하고 장소를 이곳으로 옮겨 1975년 봄에는 예배당 신축 공사의 첫 삽을 뜨게 되었다. 교회는 참으로 힘들게 지어졌다. 부인들은 평촌천 냇가에서 돌, 자갈, 모래를 머리에다 함지박으로 이어 나르고 남자들은 지게로 져서 날랐다. 당시의 근대화된 유일한 운송 수단은 소가 달린 달구지 하나뿐이었다. 붉은 벽돌로 건평 45평 짜리 예배당을 지어 놓고 1975년 6월 1일 첫 주일, 공사를 시작한 지 석 달만에 입당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

1983년 3월 13일 주일에는 창립 10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이용섭 집사가 본 교회 초대 장로로 임직이 되었다. 그리고 1992년 3월 28일 창립 20주년으로 강단, 창문, 출입문 등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헌당 예배를 드렸으며, 이용현, 이기두 두 사람이 장로로, 이용마, 서한평, 이길훈 세 사람이 안수 집사로 그리고 최길자가 권사가 되었다. 1997년 봄, 교육관과 간이 주방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 마당 옆 화단을 밀어낸 후 컨테이너로 된 조립식 건물 12평을 2층으로 지었으며 1999년 여름에는 예배당 지붕이 비만 오면 빗물이 새었던 것을 고급 함석 슬레이트로 교체하고 건물 안팎을 도색하여 말끔하게 단장하였다.

2. 교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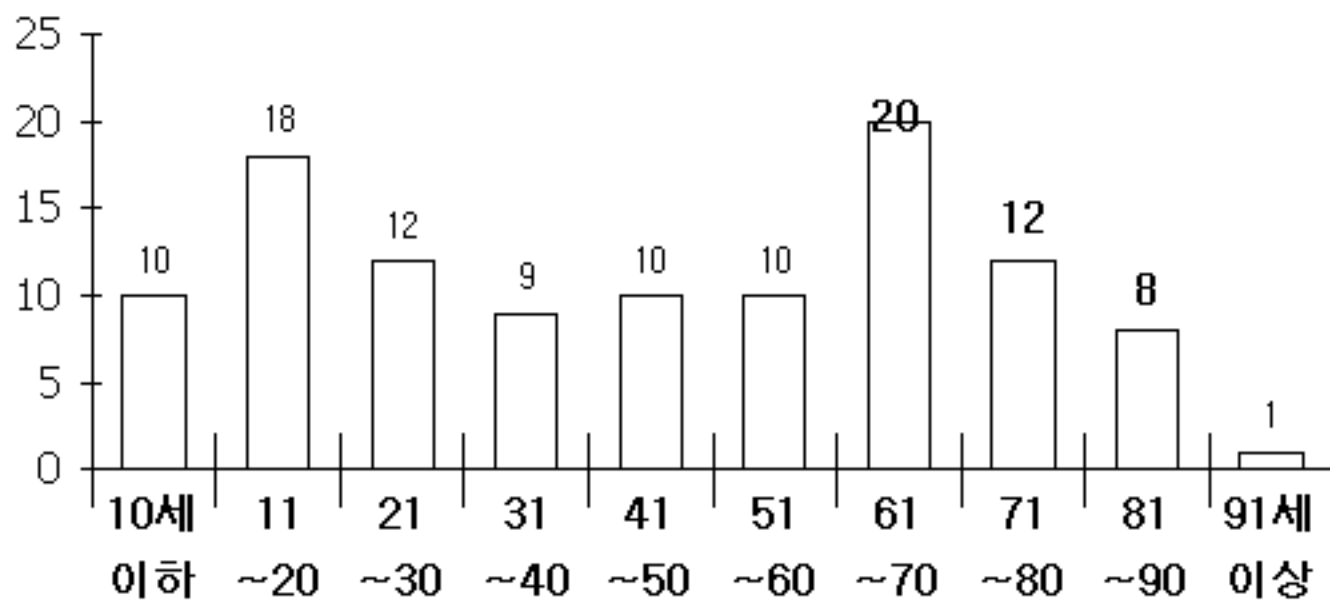
정부 정책의 공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현상은 이 지역 사회의 인구 구성을 크게 바꾸어 놓은 모습은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보광 장로 교회의 수적인 현황과 직업 및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수적(數的) 현황

2000년 6월 30일 현재 본 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출석을 계속한 110명의 교인들(아동부, 중고등부 포함)의 연령 분포를 <표 7>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도표를 보면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많고 30-50대의 청장년층이 아주 적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30세 이하의 연령층이 어느 정도 분포를 이루고 있어서 교회의 전망을 다소나마 밝게 해 주고 있다. 농촌 교회의 구성원들은 농업의 특성상 도시 교회와 같이 유동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나 이들 20세 이상 30세 이하의 청년층은 진학, 군 입대, 결혼, 직장 등으로 인하여 이동 가능성이 높은 연령층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주시에서 먼 이곳까지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두 가정, 두 사람이 있다.

〈표 7〉 보광 장로 교회 교인 연령 분포



보광 교회 구성원 110명의 남녀 성비는 36명 대 74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두 배가 넘고 있다. 취학 전인 유치부 어린이가 10명,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부 어린이는 15명, 중,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5명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청년 부에 들어가는데 인구 분류상 모두 장년부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래서 장년부는 재적 인원이 80명이고, 2000년 1-6월까지 주일 낮 예배 때 장년부 평균 출석 인원은 약 65명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세대수는 모두 46가정이다. 그 중에 혼자 사는 가구가 10가구나 되는데 모두 노인들이다. 그리고 집안에서 혼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4명으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까지 포함하면 24가정이나 되어서 교인들의 신앙 가족 구성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알 수가 있다. 즉 본 교회 전체 구성원 110명을 46가정으로 나누어 보면 1가정당 신앙 가족이 평균 2.4명이 안 된다. 이 중에 부모들은 전혀 교회에 나오지 않는데 아이들만 교회에 나오는 가정이 3가정이 있다.

나. 직업 및 교육 수준 현황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의 직업과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다수 세대가 농업을 하고 있으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교육받은 정도는 도시 사람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46가구 중 42가구가 농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쌀 농사가 대부분이며 그 중에 젓소, 한우, 양돈과 과수를 겸하는 복합영농 가구가 5가구가 있다. 나머지 가정은 비농업 가정으로서 공무원, 사업 등을 하는 가정들이다. 그러나 비생산적인 가구가 많아서 노인들은 국가에서 나오는 복지 연금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학생들을 제외한 20, 30대의 청년층의 자녀들은 군인, 경찰, 회사원 등으로 부모의 농업을 물려받지 않고 이곳에서 전주 시내로 출퇴근하며 경제 활동을 하거나 아예 타지 역에서 독립하여 살고 있다.

교인들 중 현재 초, 중, 고, 대학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 4명,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13명, 그리고 옛날 서당 등을 다녀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요 60세 이상 나머지는 거의 글을 잘 모르는 분들이다. 여기에 교회 교육의 어려움이 있다.

제 3 절 요약 및 결론

이상과 같이 3장에서는 보광 장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의 여러 환경들과 교회에 대하여 다양한 각도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전형적인 산골짜기의 한 농촌이다. 도시 근교에 있기는 하나 독특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를 비롯한 문명의 혜택이 적은 편이며, 이곳 주민들의 주산업

은 농업이다. 인구 현황은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모두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 장년은 대부분 도시로 떠나갔고, 50대 이상의 노년층이 남아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혼자서 살아가는 독거(獨居) 노인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종교적인 환경은 무속 종교를 비롯한 유교가 강세를 이루고 있어서 조상 숭배의 대표적인 제사와 함께 장묘(葬墓) 문화가 발달해 있다. 그 이유는 유교를 적극적으로 숭상했던 500년 조선의 발상지가 이곳 전주 지역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지역에 '제사 문제'와 갈등을 빚기도 했던 기독교가 들어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 30년도 채 안되었다.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보광장로 교회는 밖으로는 소외 받고 살아가는 이 지역을 향해 더욱 열린 교회로서 복음으로 주민과 함께 하며 안으로는 교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4 장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

환자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에게 과거에 아픈 경력과 치료했던 방법을 물어 보듯이,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은 목회자들이 영적인 의사가 되어 교회가 성장을 앓고 있는 원인을 여러모로 진단하고 처방함으로써 건강한 교회의 내실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있다.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 할 수 있듯이 육체적, 영적, 신앙적으로 건강한 교인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¹¹⁶⁾ 4장에서는 보광 장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살펴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질병들을 심도 있게 분석할 것이다. 그런 다음 종합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에 대한 처방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성장을 위한 치유 목회의 방법들로 예배와 교육, 목회 상담과 팀 사역을 위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1 절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치유 목회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의 예배 시간과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고, '질병 분석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를 통해 심도 깊은 진단을 해 볼 것이다. 그리하여 종합 진단의 결과 그에 대한 처방을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조직, 프로그램 등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1.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의 증상과 치유의 필요성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의 증상들을 예배 시간, 교회 생

116) 명성훈, 교회 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70.

활, 그리고 사회 생활에서 살펴보고 치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최근에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이고 육적으로 병이 든 증상들, 잘못된 신앙과 심령들 그리고 고쳐야 할 습관들까지도 모두 열거하였다.

(1) 예배 시간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보광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는 병적인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주일 낮 오전 예배에 나오는 사람,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는 사람 그리고 수요일 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이 꼭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즉 자기가 원하는 예배 시간에만 나오고 그외의 예배 시간에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나오지 않는다. '아멘' 소리가 약하다. 설교 시간에는 물론이고 성가대의 찬양이 끝났을 때에, 심지어 강단에 올라온 장로의 대표 기도가 끝났을 때에도 '아멘' 소리가 작다. '할렐루야' 소리도 거의 없다. 특히 설교 시간 도중에 '응응~' 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어 듣는 사람의 귀에 매우 거슬리게 하고 있다. 얼굴에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다.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들려주어도 잘 웃지를 않으며, 슬픈 이야기를 해 주어도 슬퍼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 특히 수요일 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할 사람(권사 또는 집사)이 결석할 때가 많다. 축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며 기도 시간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성가대원들이 다음에 부를 악보를 찾느라고 움직이고,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움직이고 그리고 안내하는 사람이 움직인다. 어린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이리 저리 돌아다니며 떠들어도 보호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도 가만히 방치하고만 있다. 예배 시작 전에 옆 사람과 세속적인 얘기를 많이 하다가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때서야 자세를 고쳐 잡는다.

(2)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들

서로가 반갑게 인사를 잘 하지 아니한다. 일부 교인이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끼리도 인사를 잘 하지 않을 때가 많다. 주일날 낮 예배 시간에 자녀의 결혼식 시간을 잡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 결혼식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친교실에 식사하러 모였을 때 TV 보는 것을 즐긴다. 때로는 TV 소리가 너무 커서 오후 아동부 예배에 지장을 줄 정도이다. 무슨 일을 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게 되면 먼저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일을 결정해서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거나 무책임한 경우가 있다. 교회의 물건을 목회자에게 말한 마디 없이 가져다 쓰거나 마지막에 예배당의 선풍기, 조명등을 끄지 않고 그대로 나가 버리는 것 등이 그것이다.

나. 일반적인 증상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만 좋아하고, 충고하는 말을 할 때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의 잘못을 좀처럼 시인하려 들지 않는다. 자신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게 되면 서운함을 쉽게 타고 토라져서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간다. 또 경제적으로 신용이 좋지 못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 신탁, 농협 그리고 다른 교인으로부터 많은 돈을 여러 번 빌려쓰고는 전혀 갚지를 않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 개 맡고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에서 교인에 대한 인상을 아주 흐리게 하고 있으며 전도와 성장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다.

이 지역은 연안(延安) 이씨의 집성촌이어서 교인의 대부분이 이씨들이다. 그래서 이씨 집안끼리 이리 저리 촌수가 얽혀져 있어 교회가 마치 이씨 문중 사람들의 일부분을 옮겨다 놓은 것 같다. 그래서 타성씨를 가진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 새로 나온 새 신자들은 텃세를 느끼게 된다. 이씨 집안끼리의 사람들도 반목 질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평소에 자기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다. 치유의 필요성

병은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고 했다. 병은 숨긴다고 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될 뿐이다.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질병의 증상

들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열거해 보는 것은 치유의 방법을 찾아 적절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목회자도 함께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 활동이 위축되고 목회자와 가족들이 탈진(burn out)하고 피곤한 상태(tired out)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병은 키워서는 안 된다. 하루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인들도 목회자도 함께 치유를 받아야 한다.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아니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하든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건강을 회복해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생기가 있게 된다. 건강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녀들로서 기쁨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이다.

2. 보광 장로 교회에 대한 진단

건강한 교회의 표징은 생명이요, 성장이지만 질병에 걸린 교회의 상징은 정체이다. 여기서는 보광 장로 교회에 대한 진단의 방법으로서 한국 교회 성장 연구소의 명성훈이 제시한 '질병 분석을 위한 자가 진단서'를 사용하였다.

가. 보광 장로 교회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 분석

교회의 질병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명성훈은 교회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가를 정밀 분석하기 위해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¹¹⁷⁾

(1) 인구 감소 증세

인구 감소 증세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역 사회 변천 쇠퇴 증(ghost town disease)'으로서 지역 사회가 침체되고 인구가 감소하여 성도가 줄어드는 질병이다. 또 한 가지는 '사회층별 거부증'(ethniskitis)이다. '에프닉'(ethnic)이란 '종족'이란 뜻으로 한 종족이 다른 종족의 유입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감소 증세를 말한다. 이 증세는 수준이 낮은 소수 집단이 유입되면서 기존 교인들은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주일 예배 때만 나온다.

117)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49-55.

(2) 고령화 증세(old age)

이 병은 주로 오래된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로운 성도의 유입이 없으면서 교회가 죽어 가는 질병이다. 증세를 보면 50세 이상의 노년층 성도의 비율이 많아진다.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많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심하게 발견되어지며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 떠나는 지역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교인 분포를 보면 종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다.

보광 장로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이 질병에 걸려 있다. 필자가 1995년 5월 이곳에 부임해 온 이래 3건의 결혼식이 있었던 반면에 12건의 장례식이 있었다. <표 5>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지역 사회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표 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광 교회 교인 연령 분포를 나타내는 그래프는 변형된 역삼각형이며, 젊은이들이 직장을 따라 도시로 떠나고 있다. 결혼식을 주례했던 세 가정 중 두 가정은 도시로 떠났다.

(3) 상호 오해 증세(people blindness)

이 병은 문화적 배경과 생활적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교회의 질병이다. 증세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갈등하게 된다. 다른 사람들의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며 무관심과 오해와 갈등의 태도를 가진다. 대다수의 경우 개척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에서 기존 성도(개척에 참여한 교인)와 새신자들간의 갈등과 물이해가 초래하는 질병이다. 기존 성도가 새로운 성도에게 텃세를 부리고 자신들의 공로를 주장하기 때문에 '공로자 주권증'이라고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는 흑백 논리와 자기 주장만이 강하다.

(4) 친교 과잉 증세(koinonitis)

원래 '코이노니아'(koinonia)는 '교제', '친교'라는 헬라어인데 이러한 교제와 친교가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추구되는 병적인 상태를 말한다. 이 병은 지나친 친교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보다 자신과 내부에만 쏠리는 질병이다. 이 병에 걸린 교회는 모든 활동이 불신자나 새 신자들보다 기존 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교회는 죄인을 위하는 곳이 아니라 교인을 위하는 곳이라는 생각이 지배한다. 전

도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만족에, 영혼 구원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 100명 미만의 교회가 이러한 친교 과잉증에 걸려 있다. 이른바 가족 같은 친밀한 분위기가 깨질까 봐 두려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은근히 거부한다.

(5) 열정 감퇴 증세(St. John's syndrome)

이 병은 '성 요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 버린 교회가 되어 책망을 받은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병은 오래된 교회 혹은 부흥의 시기가 지나간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만 남고 실제적인 능력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된다. 대표적인 증세로는 주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미지근한 신앙이 특징이고 새로운 사비비의 현혹에 솔깃해 한다. 물질적인 부요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세대 교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6) 지도력 긴장 증세(leadership tension)

이 병은 목회자가 자신의 역량을 무리하게 추구하거나 반대로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해 교회가 침체되는 질병이다. 목회자가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한다거나, 지나친 권위주의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협력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효과적인 팀 사역이 불가능해지고 유기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지도력에 긴장이 일어난다. 반대의 경우는 지도력에 무기력 현상이 나타나서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으며 역시 교회가 침체된다.

(7) 영적 발전 제한 증세(arrested spiritual development)

이 병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교인들의 영적 요구를 채워 주지 못하는 경우에 생긴다. 지나친 경건주의와 전통의 고수 등으로 영적 활동과 성령의 역사가 제한되는 증세가 나타난다. 특히 영적 성장에 필수인 영적 은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상존하여 마치 그러한 상태가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양 고정 관념화되어 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거의 이해가 없고 영적 생명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희박하다. 담임 목회자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폐쇄적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

에 무지하여 사용하지 못할 때 이런 질병에 걸리기 쉽다. 혹은 목회자보다 먼저 교회에 있던 고루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의 세력을 잡고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8) 시설 협소 증세

이것은 양적으로 성도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그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부족함으로 성장하던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이다. 증세로는 큰 문제와 영적 어려움이 없는데 갑자기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되기 시작한다. 주차장이 늘 부족하고 예배당의 좌석이 모자라거나 불편하다.

보광 장로 교회에 대한 종합 검진을 위해, 부록에 있는 대로, 명성훈이 제시하고 있는 '교회 질병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를 만들어 보고 점수를 매겨 질병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더니 다음 장의 <표 8>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첫째, 영적 발전 제한 증세가 제일 심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보 광 장로 교회의 영적 수준과 영적 요구 충족도가 아주 미미한 것임을 의미한다. 둘째로, 고령화 증세이다. 이것은 지역 사회의 인구 구조상 어쩔 수가 없다. 즉 지역 인구가 감소하면서 '도시화'로 인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노인들만 남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친교 과잉 증세인데 이것은 영적 발전 제한 증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8> 교회 질병 정도의 진단 결과

No.	질 병	점 수
1	영적 발전 제한 증세	8
2	고령화 증세	13
3	친교 과잉 증세	14
4	열정 감퇴 증세	17
5	지도력 긴장 증세	18
6	상호 오해 증세	22
7	인구 감소 증세	25
8	협동 과잉 증세	33
9	시설 협소 증세	46

또 '연안 이씨' 집성촌이라는 씨족 사회의 특성과 정서가 친교 위주의 모임을 가

져오고 있으며 그래서 신앙 중심보다 인간의 '정(情)' 중심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친교 과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적인 열정은 감퇴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지도력 긴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다만 시설 협소 증세는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교회의 대지가 370평이 넘어 예배당과 사택 그리고 교육관이 차지하는 자리를 제외하고도 교회 앞 마당이 주차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내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교인수에 대한 필요 면적이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9>의 리더십 진단 결과에서는 지도자의 자기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설득 및 동원 능력 그리고 평신도들을 구비시켜 사역하는 능력과 기획 및 조직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의 교회 조직의 진단 결과에서는 선교 조직, 당회 조직, 봉사 조직 순으로 취약하게 나타났으며 조직의 조화성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1>의 프로그램 진단 결과에 있어서는 선교와 치유, 기도와 봉사,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설교가 차례로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리더십 진단 점수표

No.	진 단 내 용	만 점	점 수
1	위임	50	40
2	위기 관리	50	39
3	비전	50	35
4	영적인 권세 (카리스마)	50	34
5	추진 / 집중력	50	33
6	섬김	50	32
7	기획 / 조직력	50	31
8	구비 리더십	50	25
9	설득 / 동원력	50	24
10	자기 개발	50	15
총점수		500	308

〈표 10〉 교회 조직 진단 점수표

No.	진 단 내 용	만 점	점 수
1	교구 조직	50	46
2	구역 조직	50	43
3	조직의 중요성	50	42
4	조직의 사명	50	41
5	교육 조직	50	34
6	조직의 구성원	50	31
7	조직의 조화성	50	26
8	봉사 조직	50	20
9	당회 조직	50	17
10	선교 조직	50	10
총점수		500	310

〈표 11〉 프로그램 진단 점수표

No.	진 단 항 목	만 점	점 수
1	교회 학교	50	36
2	특별 프로그램	50	30
3	문화	50	28
4	설교	50	26
5	성경공부	50	25
6	예배	50	24
7	봉사	50	24
8	기도	50	19
9	치유	50	18
10	선교	50	10
총점수		500	240

3. 종합 진단의 결과와 처방

여기서는 보광 장로 교회에 대한 종합 검진을 실시해 본 결과를 분석해 볼 것이다. 그리고 진단에 대한 자세한 처방으로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조직과 분위기의 쇄신,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가. 종합 진단의 결과

이상과 같이 보광 장로 교회의 질병에 관한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진단해 본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에 심하게 걸려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 보광 장로 교회는 목회자보다 먼저 있는 고루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력을 잡고 있음으로 해서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영적 은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한(행 19:1-2)' 것과 비슷한 현상으로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거의 이해가 없다. 그러므로 영적 생명체로서의 교회 개념이 희박하다. 따라서 영적 분위기가 교인들의 분위기를 채워 주지 못하고 있다.

둘째, 보광 장로 교회는 모든 활동이 불신자나 새신자들보다 기존 신자 중심이요 따라서 거기에 교회 활동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출석 60-70명 정도의 교회라 가족 같은 분위기는 좋을 수 있으나 지나친 인정과 인간적인 친교로 말미암아 추구되는 '친교병(koinonitis)'에 걸려 있는 것이다. 더구나 '연안 이씨'라는 집성촌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고 교인의 대부분이 이리 저리 촌수에 얽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매우 약하고 기존 신자들의 배타성이 많은 교회이다. 이 병은 본 교회뿐만 아니라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소규모의 교회라면 대다수가 걸려 있을 질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셋째, 보광 장로 교회는 그 역사가 30년이 채 안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된 교회처럼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 있고 실제적인 능력이 저하된 열정 감퇴 증세에 걸려 있다. 교회 성장이 부진한 직접적인 원인으로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며 30, 40대의 청·장년층은 적고 50세 이상의 노년층 성도의 비율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 버렸기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하고 무기력 증에 걸려 있으며 열정이 없다. 따라서 주일 낮예배에 출석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비활동 교인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다 상호 오해 증세(people blindness)도 한 몫을 하고 있어서 흑백 논리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장만이 강하다.

나. 진단에 대한 처방

앞서 살펴본 종합 진단의 결과를 더욱 세분해서 목회자의 리더십, 교회 조직과

분위기의 쇠신, 프로그램에 대한 처방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1)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처방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일곱 가지 표적을 말한바 있는 피터 와그너는 그 첫째로 유능한 리더십을 가진 목회자를 꼽았다.¹¹⁸⁾ 그에 의하면 병을 치유하고 성장하는 성장형 목회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필수 은사가 있는데 그것은 곧 믿음의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이다. 리더십의 은사는 영적인 권세(spiritual authority)로서 이것의 세 가지 요소는 소명(calling), 은사(gift) 그리고 훈련(training)이다.

보광 장로 교회에서 목회자의 리더십은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영적 기능을 교인들이 제대로 발휘하게 하고 친교병과 열정 감퇴 증세를 고쳐가면서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존 맥스웰(John C. Maxwell)은 모든 성공의 열쇠는 사람들을 잘 인도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하면서 “리더십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계발되는 것이다”¹¹⁹⁾라고 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일을 하도록 점검하는 일은 경영자의 일이나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보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고무시키는 일은 지도자의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평가해야 한다.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믿음과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임스 민즈(James E. Means)는 목회 사역의 여섯 가지 균형 있는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¹²⁰⁾ 첫째, 영향력이 있는 목회 사역은 목회자의 인격(personality)과 기량(skill)을 전제로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좌우된다. 둘째, 목회자는 반드시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하며,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하고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의 부재를 지도력의 무능, 운영의 나태, 관계 형성의 서투름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셋째, 훌륭한 목회자는 성령의 역사, 영적 전쟁에 사용되는 영적 무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사안들을 성취하기 위해 설교, 가르침

118) 명성훈,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63-64.

119) John C. Maxwell,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8-16.

120) James E. Means,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현석,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사, 1997), 11-12.

등을 포함하는 성경적 지침에 대해 내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넷째, 영적인 지도자는 미래에 대해 전략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고한다. 다섯째,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의 현장에 복음을 침투시키도록 인도하며, 교인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사역을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목회자는 교회의 선교적 영역, 공동체적 영역, 그리고 유기체적 영역들의 최고 효율성을 위해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목회자의 리더십에 대한 처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회자의 자기 개발(self-development) 문제이다

자기 개발의 영역은 매우 많지만 특히 경건 생활, 시간 관리, 지적인 개발, 인간 관계, 가정의 행복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목회자의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한다. 둘째, 시간을 계획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넷째,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가정을 숭선 수범하여 보여 주어야 한다.

(나) 설득과 동원력(motivating and mobilizing)이다

보광 장로 교회의 목회자는 의사 전달(communication)을 효과적으로 하여 교인들이 잘 알아듣고 따르도록 설득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담임 목사의 목회 방침에 동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야 한다. 둘째, 교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목회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 셋째, 설교와 가르침을 즐거움으로 여겨야 한다. 넷째, 교회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많은 성도들이 성공적으로 동원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의 목회 방향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룹이 있어야 한다.

(다) 기획과 조직력(planning and organizing)이다

목회의 사역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기획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비전과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는 능력인데 보광 장로 교회 목회자는 이것

이 더욱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회의 장, 단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성도들이 그 목표 의식을 공유하게 해야 한다. 둘째, 목회의 구체적인 활동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통해 기획되며 그 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모든 계획은 반드시 점검과 사후 평가를 받도록 한다. 넷째,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성도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는 소그룹들이 잘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라) 구비(具備) 리더십(equipping leadership)이다

보광 장로 교회의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노동자가 아닌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하여 그 은사에 따라 일을 시킨다. 둘째, 평신도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셋째, 목회자가 직접 나서서 일하는 것보다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도록 한다. 넷째, 목회자와 성도간에 신뢰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신뢰의 구축을 위해서는 목회자가 정직, 성실, 근면해야 한다. 다섯째, 교인 하나 하나가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 즉 항상 목사를 바라보게 하지 말고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야 한다. 목사만 보고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 쉽다.

(마) 섬기는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이다

섬기는 리더십은 성도들을 분발시켜 과정과 방법을 가르치고 목표를 달성시킨다. 이것은 머리로 하는 헤드십(headship)과는 달리 아버지 같은 강한 믿음과 어머니 같은 자상한 사랑이 있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사람들이 쉽게 자신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해야 한다. 셋째, 목회자들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관용해야 한다. 넷째, 교인들의 요구나 필요를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교회의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2) 교회 조직과 분위기에 대한 처방

보광 장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조직의 취약과 열성의 부족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인들의 은사적 관심에 따라 은사를 활용하여 사역케 해야 한다. 즉 전도에 대한 전략과 기획 등을 담당하는 전도 위원회를 조직하여 이 사명을 감당케 한다. 또한 새 신자들은 불신자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의 접촉점과 가능성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전도의 역할이 탁월한 새 신자와 기존 신자 한 사람을 일대일로 잘 조화시키는 '전도의 순'(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둘째로, 당회 및 제직회 조직과 분위기의 쇄신이다. 당회장인 담임 목사와 평신도의 대표자인 장로로 조직되는 당회가 그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지 않도록 '섬김'을 전제로 하는 '열려진 당회'가 되도록 한다. 당회가 전적으로 교회 성장에 열려 있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당회에서의 갈등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을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만이 목회자와 장로의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이다. 여기서 당회원들은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이해하고 협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못하면 사사건건 담임 목사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교회 성장형 당회의 특징은 담임 목사의 뜻에, 또 그 조직원들 사이에 서로 순복하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제직회의 조직도 구제와 봉사 등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로, 봉사 조직의 활성화이다.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봉사 조직이 지속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영성의 성장이 없이 일만 하게 될 경우 많은 문제와 시험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봉사자들을 위한 영성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3) 프로그램에 대한 처방

교회 성장의 4대 요소는 4P, 즉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인 영적 은혜와 리더십이 훌륭한 목회자(pastor), 열정적인 평신도들(people)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좋은 프로그램(program)이 있어야 한다. 성장하는 보광 장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취약한 다음의 몇 가지 프로그램을 크게 보강하여야 한다.

교회가 성장형 교회가 되고 역동적이 되기 위해서는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한 전도에 대한 전략을 수립한다. 먼저 전도 학교를 1주 과정으로 개설한다. 여기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의와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론과 체험으로 겸비한 훈련을 시키며 추후에 각자 발표를 통하여 전도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고 재충전한다. 둘째, 전도할 가정 설정에 있어서 수용성이 높은 가정부터 전도한다. 환자가 있는 가정, 상(喪)을 당한 가정, 어려운 시험에 든 가정부터 전도할 가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셋째, 여름에는 '모정(慕亭) 전도'를, 겨울에는 '사랑방 전도' 또는 '경로당 전도'를 개발한다. 왜냐하면 농촌 지역이므로 여름에는 일을 하다가 시원한 정자나무 아래 모정에 모여 쉬고 있을 때가, 겨울 농한기에는 경로당이나 사랑방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전도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이다. 넷째, 개인전도 전략 지침서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CCC)에서 발행한 '사영리'(四靈理) 전도 책자를 사용한다. 다섯째, 불신자들에게 교회적인 초청의 기회를 제공한다. 즉 본 교회의 창립 기념 주일과 부활 주일, 추수 감사 주일과 성탄절에 대대적인 초청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여기서 '구도자(불신자로서 처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친절한 예배 의식'(the seeker friendly service)을 개발하고 그들을 다음과 같이 대한다.¹²¹⁾ 첫째, 구도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죄하지 아니한다. 둘째, 우선적으로 다른 구도자들과 더불어 믿음을 알고 적응하는 데 자유롭게 한다. 셋째,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들어주고 인내함으로 이끌어 간다.

한편 본 교회도 미국의 윌로우 크릭 교회(Willow Creek Community Church)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도의 7단계 전략'¹²²⁾을 응용하여 전도 전략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1단계로 신실한 기독교인 ○○○는 '불신자인 ◎◎◎'와 우정을 도모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마음이 열리도록 기도한다. 2단계로 ○○○는 그 마음이 열림에 응답하면서, 전도 책자와 대화로 복음을 나누고 ◎◎◎와 복음적인 대화를 시작한다. 3단계로 ○○○는 ◎◎◎를 '구도자를 위한 예배'에 데리고 가는데 몇 달 동안 되풀이하여 그 예배에 함께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도와준다. 4단계는 ◎◎◎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원할 때는 수요일에 있는 새로운 공동체 모임에 참여시킨다(이때 ◎◎◎는 다음의 5-7단계에 동의한다). 5단계로 ◎◎◎는 그

121) George G. Hunter III,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182.

122) Ibid., 170.

의 새로운 신앙 생활의 한 해 동안 자기에게 해당되는 소그룹에 참여하고 소그룹원들을 만난다. 6단계로 ◎◎◎는 그의 영적 은사들과 역할 그리고 소명의 열정을 발견하고 소그룹의 한 사역에 참여한다. 마지막 7단계로 ◎◎◎는 '불신자인 또 다른 ◎◎◎'와 우정을 도모하고 그 순환은 반복된다.

한편 새 신자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도 만든다. '새 신자 양육반'을 만드는데 이것은 도널드 맥가브란이 말한 대로 새 신자 양육의 네 단계¹²³⁾를 모델로 삼을 것이다. 즉 1단계로는 찾고(seeking) 2단계는 발견하고(finding) 3단계는 우리(교회)에 넣고(folding) 4단계는 먹이기(feeding), 즉 양육이다.

모든 단계가 다 중요하나 우리에게 넣고 먹이는 3단계부터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에 처음으로 나온 새 신자는 서먹서먹하고 불안하며 무엇을 잘 몰라 당황할 때가 있다. 이러한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새 신자 양육을 담당하는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6개월 동안 주일날마다 지도하게 할 것이다.¹²⁴⁾ 첫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하여, 두 번째, 죄와 인간, 믿음, 구원에 대하여, 세 번째, 주기도문, 사도 신경, 십계명에 대하여, 네 번째, 성경에 대하여, 다섯 번째, 예배, 찬송, 기도에 대하여, 여섯 번째, 교회에 대하여, 일곱 번째, 주일 성수에 대하여, 여덟 번째, 성례에 대하여, 아홉 번째, 세상 종말과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열 번째, 전도에 대하여, 열한 번째, 헌신과 봉사에 대하여, 열두 번째, 헌금에 대하여, 열세 번째, 신앙 생활의 시험과 승리에 대하여, 열네 번째, 심방에 대하여, 열다섯 번째, 교회 절기에 대하여, 열여섯 번째, 소그룹과 구역 예배에 대하여 교육하게 할 것이다.

(나) 기도 프로그램에 대한 처방

한국 교회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의 하나는 기도 운동이었다. 특히 새벽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통성 합심 기도 등으로 기도에 열심 있는 교회는 거의 예외 없이 성장하였다. 명성훈은 기도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가지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교회 성장과 관련시켜 보는 것이라 하였다.¹²⁵⁾ 이제 보광 장로 교회도 다음

123) Donald A. McGavran, 교회 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이요한 외 2인 공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31-32.

124) 박원섭, 새 신자 가이드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93), 10-15.

과 같은 기도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 기도 학교를 1개월 과정으로 개설한다. 여기서 가르치는 기도는 수사학적인 기도(rhetoric prayer)가 아니라 행동하는 기도(action prayer)를 가르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4주간의 '기도 교육 진행표'를 작성하여 기도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친다. 둘째, '교회 성장형 기도의 신학'을 가르친다. 즉 좋으신 하나님의 신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기독교론, 성령과의 교통인 성령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론, 영적인 싸움인 사탄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론 그리고 천국의 현재적 체험인 구원론을 기도와 연결시켜 가르친다.¹²⁵ 셋째, 새벽 기도 시간을 현행 새벽 4시에서 하절기에는 5시로, 동절기에는 5시 30분으로 조정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시간을 바꾼다. 넷째, 새벽 기도 시간 30분전에 깨우는 시스템(wake up call system)을 도입한다. 다섯째, 보광 장로 교회는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으므로 금요일 밤 기도회를 갖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사순절 한 달 동안 구역 예배를 교회에서 기도회 겸 구역 연합 예배 시간으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예배 프로그램에 대한 처방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주일 낮 예배에서는 봉헌 기도와 함께 병자를 위한 치유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순서 가운데 마지막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일어나서 부르는 찬송 524장 1절을 과감하게 빼고, 축도와 송영이 끝난 후에 성도들을 다시 좌석에 앉게 한 다음 '알리는 말씀' 즉 광고 시간을 그때에 모두 갖는 것이다. 이때에는 진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한다. 그리고 사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부정기적으로 첨가할 수 있다. 즉 새 교우 환영, 간증 및 좌담이나 연극 및 뮤지컬, 위임 및 임명 또는 임무 설명이나 직장 이동, 결혼, 입대 또는 이민 등으로 떠나는 교우 송별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주일 오후 예배는 4시에 시작하는데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다. 이 시간에는 각종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과 함께 OHP 또는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을 이용하여 찬양 예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설교 말씀의 메시지는 핵심적인 것만 짧게 전달하고 예배가 찬양에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나도록 한다. 여기에 성령

125) 명성훈,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 (서울: 서울 서적, 1995), 102-106.

126) 명성훈,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 114-132.

과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찬양 시간을 리더하는 것과 연주의 사역을 담당하게 하는데 찬양 예배의 관건이 달려 있다.

수요일 밤 예배 역시 설교가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요일 밤에는 '수요일 밤 성경 공부' 또는 '수요일 밤 기도회'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수요일 밤에는 새 신자들보다 기존 신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영적인 깊은 단계로 들어가기에 좋은 시간이다. 이때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치유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새벽 기도 시간에는 하루의 첫 시간이요 가장 조용한 시간이므로 말씀과 함께 기도와 묵상이 있는 QT가 되도록 한다. 이 시간은 약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나는 시간-바쁜 세상에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늘 쫓겨다니는 것 같은 사람인'¹²⁷⁾-자신의 내면을 성령께서 속삭이는 이 시간에 심령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며 평안함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새벽 기도를 통하여 개인의 신앙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게 된다.

제 2 절 치유 목회의 방법들

치유 목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치유 목회의 몇 가지 방법들로서 예배, 교육, 목회 상담 그리고 팀 사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예배를 통한 치유로서 여기에는 설교와 성례전, 기도와 찬양의 방법이 있다. 교육을 통한 치유로서는 소그룹 성경 공부, QT, 영성 훈련이 있다. 목회 상담에는 내적 치유 상담과 구원 상담을 통한 치유 목회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팀 사역이 있는데 이것은 목회자 혼자만이 아니라 평신도들과 함께 하는 치유 사역을 말한다.

1. 예배를 통한 치유

하루가 다르게 발달되고 있는 현대의 과학 물질문명과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은 영적인 빈곤, 정신적 스트레스, 각종 질병, 산업재해, 교통 사고 등 많은 고통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농촌 교회에는 소외 계층이 모이기 때문에 그

127) Gordon MacDonald,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8), 38.

들에 대한 치유 사역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존 터너(John Turner)는 예배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5단계가 있다고 하였다.¹²⁸⁾ 즉 1단계는 육신을 편안히 하고 긴장을 풀어 주며, 2단계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게 하고, 3단계는 두려움, 분노, 근심, 죄의식에서 자유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며, 4단계는 자신의 원하는 것을 형상화하고, 5단계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감사한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으로 살다가 예배에 참석한다. 주님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살피시고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권능의 손으로 역사를 하여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심령의 상처를 싸매어 치료하신다.¹²⁹⁾ 곧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체험하며, 병든 믿음, 병든 마음을 치유하여 이 세상에 소외된 이들을 위한 섬김의 삶을 실천케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 존 터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인들이 모인다는 것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예배 의식 속에는 누군가에게 어떤 종류의 치유가 일어나게 마련이다”¹³⁰⁾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설교와 성례전, 기도와 찬양 등으로 치유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상담 설교를 통한 치유

예배에서 설교는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담 설교는 설교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함으로써 믿음을 일으키고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회개와 감사 그리고 헌신이 결단되며 그 결과 잃어 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는 것이다.¹³¹⁾

128)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101-102.

129) 오성춘,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271.

130)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91.

131)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서울: 목회 신학 연구원, 1993), 72.

(1) 설교의 치유적 기능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함으로써 전인을 치유하는 것이다. 설교는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¹³²⁾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며 따르게 하는 설교의 기본 목적은 결국 영의 치유와 아울러 육의 치유도 함께 받게 한다. 전인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설교의 치유적 기능이다.¹³³⁾ 그러므로 설교는 삶의 현장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here and now) 청중들의 현실적인 삶과 연관된 메시지가 되도록 한다. 그런 점에서 보광 장로 교회에서는 주로 '농촌'과 '농사'에 관련된 성도들의 삶에 관한 내용이 많다. 또한 치유를 위한 설교를 할 때 설교의 내용을 교리 영역과 생활 영역을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성도의 삶이 '교리'와 '생활'로 분리된다면 그것이 신앙적 병리 현상이 되는 것이고, '지체들의 마비 증세'가 되는 것이다.¹³⁴⁾

삶의 현장과 유리된, 하늘에서 맴도는 설교로서는 치유가 일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앙 생활이 병들게 되고 만다. 치유를 위한 설교를 잘 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첫째, 설교자의 사랑과 긍휼이다. 한 영혼을 진실로 사랑할 때, 방황하며 지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흘러나올 수 있다. 또한 설교자가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설교하고 그가 설교하는 대로 살 때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설교자는 자신의 사역에 성령께서 역사 하시도록 준비해야 한다. 성령은 오늘날도 그 이름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¹³⁵⁾ 설교자가 성령의 능력을 믿고 말씀을 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둘째, 설교의 내용이다. 설교의 내용은 청중에 따라서 다르게 전할 수 있으나 치유를 목적으로 할 때 누구에게나 삶의 의미와 희망을 심어 주는 내용이어야 한다. 조용기는 그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 요한 삼서 1장 2절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것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

132) Helmut Thielicke,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 (Leiden an der Kirche Ein persönliches Wort), 심일섭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37.

133)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268.

134) Helmut Thielicke,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 23.

135) 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서울: 서울 서적, 1985), 38.

라”는 것이다. 그는 개인 영혼 구원의 문제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문제와 그리고 질병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설교의 내용에 담고 있다.¹³⁶ 영혼의 문제와 생활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영혼의 문제를 제일 우선해야 한다. 사람은 먼저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성숙되어야 건강한 것이다.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치유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마음의 상처를 싸매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강조하여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고, 낙심과 절망을 평화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어야 한다. 교인들의 무기력증, 소외감 등을 말씀으로 치유 받도록 하고 생명력을 갖게 해주어야 한다.

셋째, 설교의 유형이다. 전통적으로 설교에는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선포를 중심으로 하는 케리그마(kerygma),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파라클레시스(paraclesis), 신학적 주제를 논하는 호밀리아(homilia), 그리고 교육적 설교인 디다케(didache) 등이다.¹³⁷ 이 모든 설교들은 그 유형과 내용이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지를 선포하는 데서는 일치한다. 치유를 통한 설교도 고난 당하는 성도들에게 찾아 오셔서 그들을 돌보시며 싸매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성령을 선포하는 것이어야 한다.¹³⁸ 설교에서의 치유적 관심은 상처 입은 사람들, 고난 당하는 사람들, 눌린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선포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새 삶을 발견하고 책임적인 인격자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교회의 설교들은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설교보다는 질책과 죄책감, 중압감을 주어 청중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기도 한다. 이제 보광 장로 교회에서는 복음을 통하여 치유를 받아 자유와 해방의 은총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상담 설교’의 개발이 절실하다.¹³⁹ 그러므로 앞으로의 설교 모형은 양육 모형(nurturing mode)에서 치유 모형(healing mode)으로 전환되어 가야 한다.¹⁴⁰ 보광 장로 교회에서의 설교는 상담 설교로서의 치유 모형의 설교가 필요하다.

136) 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251.

137) 오성춘, “치유와 상담 설교”,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46.

138) Ibid., 148.

139) 정태기, “상담 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44-145.

140) 심상권, “설교와 목회 상담”,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63.

(2) 상담 설교의 치유 효과

상담 설교는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주님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다. 그들이 처한 영적, 정신적, 정서적, 육신적, 사회적 형편을 잘 파악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상담 설교는 주님 앞에 이 시대의 고민을 안고 있는 인간들이 대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이다.¹⁴¹⁾

상담 설교는 목사와의 개인 상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개인 상담이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청중을 상대로 하는 집단 상담이다.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응어리를 풀어내야 목회의 궁극적 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청중의 구원이요, 병든 영혼의 치유이기 때문이다. 상담 설교는 인간이 그 영과 정신과 신체와 인간 관계에서 뒤틀려 있을 때 설교로서 이를 잡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다.¹⁴²⁾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Carl G. Jung)에 의하면, 그 자신이 치료한 환자들 거의 모두 영적 장애가 병의 근원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환자의 영적인 장애를 바르게 도와 줄 때, 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인간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 신체적 문제를 설교를 통해서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¹⁴³⁾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광 장로 교회 목회자의 과제는 상담 설교를 통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체험하고 발굴하여 선포하는 것이다. 강단에서의 치유적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개인의 치유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치유까지 이루어 가야 할 것이다.¹⁴⁴⁾

(3) 상담 설교의 실제

상담 설교를 구상할 때는 먼저 교인들의 '삶의 정황'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141) 송길원, "상담 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994년 11월호, 115.

142) 정태기, "상담 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143.

143) Ibid., 137.

144) 심상권, "설교와 목회 상담", 168.

성경 속의 교리에서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sitz im leben)로 옮겨와야 한다. 즉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대답이 되게 해야 한다. 교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으며 과연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본문의 선택은 문제의 상황에 적절한 것으로 선택하며, 설교를 전개할 때는 강해 설교의 형태를 가지고 성경 본문의 세계 속으로 청중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야 하는 필요를 강하게 받았을 때에는 누가 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와, 요한 복음 4장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를 본문으로 구상한다. 또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절실하다고 볼 때는 이사야 41장 10절과 마태 복음 11장 28-30절을 본문으로 하여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는 것을 구상해 보는 것 등이다.

나. 성례전을 통한 치유

예배의 구성 내용 중에서 설교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성례전이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친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말씀과 더불어 성례전을 주셨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인 성경과 선포된 말씀인 설교, 그리고 성례전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임하신다. 거룩하게 집행되는 성례전은 치유의 능력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된다. 여기서 존 칼빈(John Calvin)의 성례전 이해와 함께 성례전을 통하여 일어나는 치유의 사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칼빈의 성례전 이해

칼빈은 성례전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외형적 표징에 의해 확인되는 증거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정을 서로 증거하는 것”¹⁴⁵⁾이라고 정의하면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성례전에서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며 힘을 나타내실 때 위대한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자라게 된다고 보았다. 칼빈은 “성령께서 그의 내적 조명의

145)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homas McNeill ed.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IV.14. 1 & 3.

로 우리의 마음을 성례전이 제공하는 확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때문에 믿음이 더해지고 굳세어진다”¹⁴⁶⁾고 주장한다. 그는 말씀과 성례전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믿음이 양육되고 성장한다고 가르치고 있다.¹⁴⁷⁾

또한 칼빈은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칼빈의 가르침에 의해서 볼 때 한국의 개신 교회는 예배를 설교 위주로 하고 성례전을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성만찬에 있어서 칼빈은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영혼에 힘과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하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영적 유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¹⁴⁸⁾고 강조하였다. 그는 성만찬에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임재를 말하고 있다. 성령은 지금도 성례전을 통해서 구원과 치유의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이다.

(2) 성례전에서의 치유 사역

성례전을 통하여 일어나는 구체적인 치유 사역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구속의 확신을 가지게 된다. 세례의 참 의미는 로마서 6장 3-5절에 잘 나타나 있듯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칼빈은 세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죽음에 접붙이려 하신다. 바른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들의 육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참으로 느끼며 성령이 새 생명을 주시는 사실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하는 것을 느낀다.¹⁴⁹⁾

우리는 성찬식을 통하여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¹⁵⁰⁾ 또한 성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혈관에 수혈되고 그의 살(성찬 때에 먹은 떡)이 나의 근육 속에 힘의 근원이 되는 확신을 가지고 성찬에 참

14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14.10.

147) *Ibid.*, IV.14.11.

148) *Ibid.*, IV.14.10.

149) *Ibid.*, IV.15.5.

150) *Ibid.*, IV.17.4.

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의 신비적 연합(mystical reconciliation)이 일어난다.¹⁵¹⁾ 세례로서 회개를 통한 속죄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성찬으로서 그때 그때의 죄들을 씻을 수 있어서 중생과 죄사함의 체험을 계속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영적 건강, 영의 치유가 이 성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마음의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세례를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짐으로써 죄책감이나 정죄 의식에서 벗어나 자유함으로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된다. 그리고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되고 나 위하여 그 몸을 내어 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사실 속에서 큰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된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살과 피’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¹⁵²⁾ 셋째, 성도의 교제가 되며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주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리마 예식서’¹⁵³⁾에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들의 친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교회적 차원에서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까지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교회적 차원에서의 친교는 ‘성만찬’ 제19장에 나온다. “한 장소에서 한 덩어리 빵과 같은 잔을 나눈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고 참석자들과 그리스도의 일치, 그리고 참석자들끼리의 일치를 드러내고 이룩한다.”¹⁵⁴⁾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친교이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끼리의 친교이다.¹⁵⁵⁾ 그 다음 사회적 차원에서의 친교는 리마 문서 ‘성만찬’ 제20항과 21항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면 하나님의 한 가족에 속하는 이들이, 곧 형제, 자매들로 통하는 이들이, 서로 화해와 나눔을 실천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사회, 경제, 정치 생활에 있어서도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마 5:23-24; 고전 10:16-17; 11:20-22; 갈 3:28).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는 이상 온갖 종류의 불의와 인종 차별과 분리 정책과 자유의 제한을 철저히

152)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106-108.

152)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242.

153) 1982년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Lima)에서 모였던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신앙과 직제 위원회’ 총회에서 채택한 ‘세례, 성만찬, 사역(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이라는 문서. 소위 ‘리마 문서’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의 일치를 구현하고 있다.

154) WCC, ed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III. Eucharist II, 19. (Geneva: WCC Press, 1982).

155) 가흥순, 성만찬과 예배 갱신 (서울: 나단, 1994), 81.

히 물리쳐야 한다. 신앙 인들은 성만찬으로 세계사의 중심 과제와 연관을 맺는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석하는 우리가 세계의 상황과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는 역사적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순된 사람들이 된다.¹⁵⁶⁾

성도의 교제로서의 성만찬은 그리스도인끼리의 교제와 나눔, 그리고 일치를 이루도록 하며,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대사회적, 대세계적인 교제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3) 성례전을 통한 치유의 실제

성례전을 통한 치유의 실제는 세례와 성찬식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세례와 성찬식은 회심과 더불어 영적인 치유와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준다.

(가) 세례를 통한 치유

세례를 통하여 그 치유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단계로 회개의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반드시 주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단계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롬 6:3-5). 이미 개인적으로 회심 체험이 있는 사람은 사죄의 확신을 갖게 하고 회심 체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적 회심 체험을 갖도록 이끌어 준다. 예를 들어 흰 종이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함께 자기의 지은 죄들을 적어 보게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회심 기도 시간을 갖도록 세례 대상자들을 위한 금식 기도를 열어 준다든지 하여 십자가에 자아가 못 박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확신의 단계이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믿는 단계이다.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 하려 함이니”(롬 6:6)라는 말씀처럼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못하게 ‘주와 함께 장사되었음’(롬 6:4)을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칭의(稱義)의 단계이다.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롬 6:5)가 되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즉 죄의 종이던 자리에서 의(義)의 종이 되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단계이다(롬 6:22). 이러한 단계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갈 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영혼의 구원과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156)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II, 20, 21.

(나) 성찬식을 통한 치유

성찬식에서 치유가 일어나려면 첫째,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성찬식을 하기 일주일 전에 성찬을 받기 위한 기도 시간을 공동으로나 개인적으로 갖게 해 준다. 특별 새벽 기도회 등을 열어서 기도에 힘쓰게 한다든지 심야 기도회 등을 가짐으로써 온 성도가 성찬에 앞서 준비를 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성찬식 전의 준비 기도를 할 때부터 역사를 하셔서 성찬식 때에 생명력 있는 영적 치유가 일어나게 해 주신다. 둘째, 떡과 잔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세례는 초신자가 받지만 성찬은 오래된 신자들이 받는다. 오랜 신자들이 받는 성찬은 그만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예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잡수셨던 만찬의 떡은 바로 무교병(無酵餅)이다. 이것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 등의 아무런 첨가물을 넣지 않고 오직 물로만 반죽하여 구워 낸 떡(빵)이다.¹⁵⁷⁾ 각종 첨가물을 넣은 유교병으로는 주님의 몸을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다. 무교병이 주님의 몸을 제대로 뜻한다. 무교병은 주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이 오직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것을 뜻하므로 그 몸이 상하신 것을 무교병으로 고백해야 한다. 또한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포도주를 사용하였으니 이는 십자가 고통의 쓴잔을 의미한다. 성찬식에서 쓰디쓴 한 잔의 포도주로 인하여 나 위해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주님을 더욱 더 생생하게 생각하며 철저히 죄를 고백함으로써 온전한 영혼의 치유와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성찬식 회수의 문제이다. 주님께서 성례전을 제정하신 것은 교회에서 항상 행하라는 것이다. 성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독생자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기에 교회는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자주 행해야 한다.¹⁵⁸⁾ 보광 장로 교회는 일년에 두 차례(봄철과 가을철에)만 시행하고 있는바 이것을 일년에 열두 차례(매월 첫 주일)로 대폭 늘려야 한다. 주님께서 분명히 자주 행하라 하셨던 점을 기억하고 실천해 가야 할 것이다.

157) 칼빈은 *Inst.* IV.17.43 에 ‘누룩을 넣은 떡을 사용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의 문제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교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무교병을 최초로 채택한 사람은 로마의 감독 알렉산더라고 하였다.

158)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V.14.19.

다. 기도를 통한 치유

치유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이다. 기도는 초대 교회의 예배에서부터 말씀, 성찬과 함께 중요시되었다. 예배를 통한 치유에서 기도의 요소는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치유 행위가 된다. 기도는 예배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생한 대화이다. 그런데 이 교제는 본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고 있는 것이어서, 기도는 다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다.

(1) 치유 사역에서 기도의 중요성

칼빈은 기도에 대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버지 곁에 저축되어 있는 부요함에 우리가 닿는 것은 기도의 은총에 의해서이다”¹⁵⁹⁾라고 기도의 필요성을 가르치고 있다. 기도로서 “나의 곤고와 환란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소서”(시 25:18)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병든 영혼이 치유 받고, 근심과 고통의 마음이 치유를 받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의 건강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약 5:15)고 하였다. 기도로서 얻는 치유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육체적인 고통의 치유만을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기도의 방법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자신과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전인을 다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비록 육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다 해도 믿음이 있다면 그는 치유된 사람으로 보게 된다.¹⁶⁰⁾ 기도는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요,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주는 원동력이다.

(2) 치유 기도의 요소

병자를 위한 기도에는 치유가 나타날 만한 요소들이 있어야 한다. 치유를 위한 기도의 첫째 요소는 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병자를 위하여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주어야 한다.¹⁶¹⁾ 성경은 “또 산을 옮길 만

15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20.2.

160) John Turner, *치유하는 교회*, 58-60.

161) Francis MacNutt, *치유*, 198.

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고전 13:2)라고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랑은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는데 효과적이다. 그 다음 둘째 요소는 ‘믿음’이다. 예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막 9:23)라고 하셨고 또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으니”(마 17:20) 병자를 붙잡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치유가 되는 것이다. 기도의 셋째 요소는 ‘감사’이다. 즉 자신이 받은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믿음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응답 받기 전에 믿음대로 된다는 확신이 생길 때 감사를 드리게 된다. 목회자가 목회 현장에서 먼저 하나님을 믿고 감사 드릴 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도의 넷째 요소는 ‘죄의 고백’이다. 죄의 고백은 예배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죄를 진심으로 통회하며 자복할 때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죄는 깨끗이 씻겨지고 성령께서 임재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치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¹⁶²⁾ 기도의 다섯째 요소는 ‘간구’이다. 예수님은 소경을 고치실 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51)고 물어 보셨다. 이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는 간구하라는 것이다. 간구할 때 지극히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비할 데 없는 자비로서 적합한 치료제를 제공하시고 모든 혼란을 진정시키시며 근심과 공포심을 없애 버리신다.¹⁶³⁾ 마지막으로 치유 기도의 여섯째 요소는 ‘중보 기도’이다. 치유 기도를 받는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보 기도는 먼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을 알아야 한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롬 8:34)는 말씀에서 보듯이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우리도 남을 위한 기도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

(3) 치유 기도의 실제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다양하였다. 병자에게 손을 얹든지, 명령을 하든지, 침을 바르든지 하여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셨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치유 기도의 실제는 몇 가

162)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68.

163)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II.20.12.

지가 있다. 첫째, 안수 기도이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믿음을 촉구하시거나 죄사함을 언급하심으로써 영육간의 전인 치유를 행하셨다. 이때 사랑의 표시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신 것이다. “이에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눅 5:13). 이것이 예수님의 안수 기도의 전형이다. “각색 병으로 앓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눅 4:40)¹⁶⁴⁾ 하신 말씀에서처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교회 후기 역사에서 ‘안수’로 지칭되었다.¹⁶⁵⁾

이러한 안수 기도의 방법은 제자들도 사용하였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8)라는 주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도 안수를 통하여 치유가 이루어졌다. 바울이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행 28:8) 추장 보블리오가 낫게 되었다. 바울 자신도 다메섹 사건 이후 아나니아에게 안수 받고 눈을 뜰 수 있었던 것이다(행 9:17-18). 바울은 이때 눈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았으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렬한 제자가 되었다. 안수는 제자들에게 병자 치유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이 되었다.

안수를 하게 될 때 병이 낫고 성령이 임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프란시스 맥너트(Francis MacNutt)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치유 사역자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병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치유 사역자를 통해서 능력의 전이(transfer), 즉 치유 사역자를 통하여 때로는 부드러운 전류가 흐르는 것 같고 때로는 열 같은 것이 흐르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¹⁶⁶⁾ 그 증거로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네게서 능력이 나갔다”(눅 8:46)고 주님이 말씀하신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는 “안수 그 자체가 능력을 가진 기도”¹⁶⁷⁾라고 말한다. 맥너트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치유 능력이 병자에게 전달된다고 확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은 이런 방법으로도 흘러 나가는 것을 알

164) 예수께서 안수하신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 말씀은 마 9:17; 28:8; 막 5:23; 6:5; 7:32; 8:23, 25; 눅 4:40; 5:13; 13:13 등에서 볼 수 있다

165)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90.

166) Francis MacNutt, 치유, 262-263.

167) Ibid., 38.

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오랫동안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병자들을 위해서는 매일 15분 정도 손을 얹고 치유 기도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코발트(Co) 방사선 치료처럼 강력했습니다.¹⁶⁸⁾

안수 기도로 즉각적인 치유는 되지 않아도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서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수기도는 단순히 말로써만 하는 기도보다 촉각을 이용하는 것으로 접촉에 의해서 더 잘 전달된다. 또한 기도를 받는 사람은 공동체 의식과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게 되어 좋은 치유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다.¹⁶⁹⁾

둘째, 명령의 기도이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소경에게 “보라”고 명하시고, 귀머거리에게 “에바다”(열리라) 하고 명하셨으며, 손 마른 자에게 “네 손을 내밀라”고 명하셨다. 또 귀신들린 자에게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막 1:25)고 명령하심으로 치유하셨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행 16:18)고 하였을 때 여종에게 들어 있는 귀신이 즉시 떠나고 깨끗이 치유되었다. 명령이 치유 기도와 관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신적 권위로서 명령하시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다. 즉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이 명령 치유 기도 방법이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은 큰 권위와 효력을 가지고 있다.

셋째, 말씀의 기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으로써 병자를 고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마 8:16),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눅 7:7) 하는 말씀들 가운데서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된다. 말씀으로 병자를 고침은 병자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며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는 효과가 있다. 말씀을 따라 구하고 말씀 자체가 기도가 되고, 말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인 말씀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만사형통의 기도이다.¹⁷⁰⁾

이렇게 안수 기도, 명령 기도, 말씀 기도 등으로 치유하면 믿음이 바로 서고, 개

168) Francis MacNutt. 치유, 263.

169) Ibid., 264.

170) 오성춘, 영성과 목회, 343.

인이 전인적으로 치유되고,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보광 장로 교회에서는 치유 기도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

라. 찬양을 통한 치유

예배를 통한 치유로서 찬양 역시 놀라운 치유를 가져다준다. 찬양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자신도 이웃도 기쁨으로 함께 치유를 받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

(1) 성경에 나타난 찬양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수없이 말하고 있다. 성경에는 찬양과 관련된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80개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낱말은 다른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¹⁷¹⁾

구약에서 최초의 찬송은 노아가 아들 셈에게 하는 축복송에 나타나 있다(창 9:26). 또한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 송할지로다”(창 14:20)라고 하였다. 특히 시편은 이루 다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 다윗도 찬송하기를 좋아하였다. 특히 그는 여호와와 언약체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무리를 세워 여호와와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하게 하였는데,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게 하였으며 그 중에 헤만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책임자로 세웠다(대상 6:31-33).

신약 성서에서는 먼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찬송에 대한 기사를 볼 수 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라고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강조하고 있다.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다(약 5:13). 히브리서에는 구약 시편의 인용으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는 신앙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 하리라”(히 2:12).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응답이 천상의 세

171) Jack R. Taylor,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126.

계에서 찬양으로 표현되어 있다(계 5:9-10; 15:3-4).

(2) 예배와 찬양

부르스 리프블래드(Bruce H. Leafblad)는 “찬양이란 믿는 자들이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표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경축적인 예배”¹⁷²⁾라고 정의하고 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자의 행위는 ‘드림’으로서 나타나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되어야 한다. 예배에서 드림이 강조되지 않고 ‘받음’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현대 교회 예배의 잘못 중의 하나이다.¹⁷³⁾ 그러므로 예배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며, 섬김을 표현해야 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드림의 현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의 대부분이 곧 찬양이다. 예배 중의 찬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계시를 더욱 체험할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¹⁷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밥 소르기(Bob Sorge)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⁷⁵⁾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너무나 기뻐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찬양 가운데 둘러싸이게 하시며 찬양 속에 잠기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누구도 자기 자신 속에는 찬양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찬양하기에 합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¹⁷⁶⁾라고 하였다. 셋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

172)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173.

173) Ibid., 55.

174) Bob Sorge,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Exploring Worship), 최혁 역 (서울: 두란노, 1997), 52-53.

175) Ibid., 26-28.

176) Ibid., 28.

나라”(사 43:21).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목적으로 선택받은 것이다.

(3) 찬양을 통한 치유의 효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있을 때 그의 자세에서 즉 그의 손과 발에서, 얼굴의 움직임에서, 손이나 발로 장단을 맞추거나 미소를 짓거나 한숨을 쉬거나 눈을 감고 음미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가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¹⁷⁷⁾ 찬송은 사람의 심령을 치료하며 구원한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임하여 그를 괴롭게 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음악을 연주하므로 악신은 떠나가고 사울은 정신이 혼쾌하여 나음을 입었던 것이다(삼상 16:23).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 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렸으며 쇠사슬이 풀어졌다(행 16:25-26). 이것은 찬양을 통한 구원의 놀라운 모습들이다.

찬양은 영적인 무기이며(출 15:21; 마 21:16), 마음이 기뻐지므로 영혼의 즐거움과 만족함을 얻고(시 28:7; 사 61:3), 기적이 일어나며(대하 20:14-22; 행 16:25-26), 구원과 성장의 역사가 나타나(행 2:47) 효과가 있다.¹⁷⁸⁾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 많은 찬양을 드림으로써 많은 치유를 받아야 할뿐만 아니라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을 통한 치유

교육은 중요하다. 특히 목회 사역에서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가 있다. 목회자는 교인이나 교회에 있는 병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치유를 할 수 있는지,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의 교육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한 치유

교회 교육은 성경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그룹을 활용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며 공동

177) Juliet Alvin, 자폐아를 위한 음악요법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김군자, 이철규 공역 (서울: 서정 출판사, 1986), 17.

178)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178.

체 안에서 함께 자라나도록 해야 한다. 소그룹의 필요성과 그 유익은 다음과 같다.

(1) 소그룹의 필요성

교회는 전체 교인들이 대중을 이루어 모여 예배하고 성례전이나 기도를 통해서 구원과 양육,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하고 있으나 대중 모임이 지니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소그룹 운동이 필요하다. 대중 모임은 교인들을 손님이나 구경꾼으로 머물게 하기 쉽고 따라서 개인이 받기만 하고 서로 나누는 기회가 별로 없다. 교제가 없으면 이기적인 개체성만 존재하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 성장을 이루기에 부족하다. 소그룹은 이 점을 보완해 준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전에 전체가 모이기를 힘쓰면서도 가정 집회를 병행하였던 것이다.¹⁷⁹⁾

다양성을 가진 대중을 각 계층별로 나누어 활동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 오브리 맬퍼스(Aubrey Malphurs)는 교회에서 필요한 소그룹들은 시설로 국한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확장될 수 있고, 생동적인 대인관계를 조장하며, 평신도 사역을 장려하고, 재정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목양 사역을 비중양집권화하고 지도력 훈련과 동화 과정을 조장한다고 하였다.¹⁸⁰⁾

(2) 소그룹 성경 연구의 유익

소그룹 성경 연구의 유익은 개인 문제와 인간 관계의 치유를 가져 올 수 있다. 첫 번째는 개인 문제의 치유를 가져온다.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성경을 직접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지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내 개인의 문제와 아픔을 치유 받을 수 있다. 설교에만 의존하기 보다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와 결단, 주의 인도하심, 위로와 격려, 기도의 응답, 문제의 해결, 시험에서의 승리, 영적 분별력, 새로운 삶의 능력과 아울러 전인적인 치유를 체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이다.¹⁸¹⁾

179)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총회 출판국, 1990), 33.

180)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 과정, 329-333.

181) L. A. Margaret, 효과적인 성경공부, 정재영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86), 9.

두 번째로 소그룹 연구는 인간 관계의 치유를 가져다준다. 소그룹 성경 연구란 회원들이 성경을 읽고 상황을 찾아내며 그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토론하고 우리 삶의 정황에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결론을 맺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 얻는 유익들은 회원들 상호간에 친교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하며, 인격의 변화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참된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익혀 가게 되는 것이다.¹⁸²⁾ 옥한흠은 소그룹이 치유에 유효한 요소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소그룹이 가지는 기능은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과 성격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깊은 교제를 가지면 성령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는 일을 하신다. 치료의 사역은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에 달려 있지만 소그룹을 통해서 치유 사역을 나타내신다.¹⁸³⁾

그러므로 성도들마다 소그룹에 소속되어 성경을 배우며 활동할 때 영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 가게 된다.

(3) 소그룹 성서 연구의 실제 방법

성서 연구 방법에는 보통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있으나 소그룹 성서 연구에서는 주로 관찰→해석→적용이라는 귀납적 방법을 많이 쓰고 있다. 그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그룹 성경 연구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야 하며, 지혜롭고 또 은혜롭게 진행하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가) 귀납적 성경 연구

성경을 귀납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3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관찰'로서 '이 구절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찾아내도록 한다. 즉 본문의 주제와 상황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알아보는 것이다. 본문이 설화체일 경우, 육하 원칙에 의해서 본문의

182)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50.

183)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2), 199.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많이 나오는 단어, 중요한 단어 또는 구절이 무엇인지도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본문이 강화체일 경우는, 그 배경과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피고 내용별로 개요를 파악해야 한다. 둘째 단계는 '해석'으로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단계다. 본문의 뜻과 사람, 장소, 사건, 행위들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셋째 단계는 '적용'이다. 적용이란 본문에서 해석된 진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찾아내어 나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본문의 사실과 의미와 적용이 성경 연구자에게 말씀으로 밀착시켜 준다.¹⁸⁴⁾

(나) 소그룹 성경 연구의 준비

소그룹 성경 연구를 잘 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첫째,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 먼저 성령께서 당신을 가르쳐 주시도록, 말씀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도록 기도하여야 한다. 둘째, 머리로 준비해야 한다. 성경 구절을 미리 연구해 놓아야 한다.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자료와, 생각을 자극하는 예화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셋째, 질문을 준비해야 한다. 질문은 다른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도구이다.¹⁸⁵⁾

(다) 소그룹 성경 연구의 진행과 정리

먼저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시작할 것이며, 준비된 질문을 회원들의 참여를 위해 던지고 토론의 윤곽과 목표를 알려주며 소수의 몇 사람이 독점하지 않도록 예방하며 진행함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전체 내용이 파악되도록 하여야 한다. 회원들끼리 논쟁이 생길 때, 서로 이해하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룹 토의의 결론을 맺을 때 모든 회원들이 느낀 점을 서슴없이 나누도록 한다. 그룹의 결단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¹⁸⁶⁾

나. QT를 통한 치유

184) L. A. Margaret, 효과적인 성경공부, 13-33.

185) Ibid., 40-47.

186) 이연길, 소그룹의 이론과 방법, 107.

소그룹 성경 교육을 통한 전인적 치유는 소그룹에서 기대하기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다. 배창돈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며(딤후전 4:8), 천국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고(계 14:13), 시험을 이기는(창 39:7-9) 유익을 가져온다”¹⁸⁷⁾고 말하고 있다. Q. T.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을 일체 배제시키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1) 치유를 위한 QT의 필요성

QT는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실제 생활에서 동행하기 위한 교제이다.¹⁸⁸⁾ 즉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는 영성 훈련이다. 성도들은 신앙 생활을 하는 중에 깊은 영적 경지에 이르기 도 하지만 자칫하면 형식적, 율법적, 자기 중심적, 의무적 신앙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병들어 가기 쉽다. 그러므로 QT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체험으로 신앙 생활이 바르게 유지되어 가게 해야 한다. QT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교제의 회복’이라는 신앙의 온전함을 이룸에 합당한 영성 훈련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 그 요체이다.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말씀을 드리는 기도로써 교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2) QT의 요소

QT의 요소로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의 내용이 있다. QT는 생활화가 되어야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정기적으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시간은 나의 생활 형편에 가장 알맞은 시간대에 설정해 놓고 약속된 시간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새벽 시간이든지 밤 시간이든지 일년 내내 일정하고 규칙적이어야 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30분 정도로 시행함이 적당하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도 일정함이 바람직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하고 한적한 장소를 정하도록 한다. 소음과 사람의 방해가 없는 곳으로, 충분히 자기의 내면

187) 배창돈, 큐티를 하고 싶습니까 (서울: 예루살렘, 1993), 29-31.

188)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1), 10.

을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장소라야 한다. 더 나아가 나만의 기도 골방을 확보해 두면 더욱 좋다. 실행 방법은 성경을 차례대로 읽으며 묵상하는 방법 또는 출판되어 나와 있는 교재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묵상할 성경의 양은 하루에 10-20절 정도가 적당하다. 성경책은 내게 익숙한 것으로 하고, 성경 사전이나 주석 성경을 참고하여 사용하면 좋다. 그리고 매일 일기장 쓰는 식으로 은혜 받고 깨달는 내용을 조금씩 적어 가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니 그 뜻대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한다. 회개의 기도, 감사의 기도, 결단의 기도, 그리고 중보의 기도가 따라야 할 것이다.¹⁸⁹⁾

(3) QT의 실제적인 방법

QT는 먼저 신체의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에서 바른 영성이 나온다. 그리고 실행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QT는 사람들에 따라서 실행하는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겠으나 여기서는 'PRESS'라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다음 다섯 가지 순서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가) Pray for a moment

'잠깐 기도하라'는 것이다. 이 기도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하며 성령께서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기도 전에 찬양으로 마음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바라고 말씀을 사모하는 간구가 된다. 5-10분 정도가 적당하다.

(나) Read his word

'말씀을 읽으라'는 것이다. 주어진 본문을 3회 이상 정독해야 한다. 모르는 낱말, 어려운 문맥, 저자의 의도 등이 파악될 때까지 읽어야 한다. 잘 읽지 못하면 묵상이 잘 되지 않는다. 말씀을 잘 읽는 것이 Q, T를 잘 하는 기본이 된다.

(다) Examine his word

¹⁸⁹⁾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15-18.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다. 읽은 본문 말씀을 음미하는 단계다. 마음에 와 닿는 위로와 소망, 경고와 책망 등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때 성령이 말씀과 함께 내 인격에 새로운 창조역사로 나타나는 순간이다. 묵상할 때는 5가지 지침(SPACE)에 따라 묵상하면 유익하다. 곧 자백해야 할 죄(Sins to confess), 붙잡아야 할 약속(Promises to claim), 피해야 할 행동(Actions to avoid), 순종해야 할 명령(Commands to obey), 그리고 따라야 할 모범(Examples to follow)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함께 묵상해야 한다. 한편 말씀 묵상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 하는 점이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하는 것이 말씀 묵상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미 음미된 말씀 속에서 내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Say back to God

‘말씀의 결과를 가지고 다시 기도하라’는 것이다. 주어진 묵상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다.¹⁹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을 얻으며 기도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 간다. 이 기도는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게 하는 묵상 방법이다.¹⁹¹⁾

(마) Share with others what you have found

‘발견한 사실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것이다. 묵상한 말씀이나 적용한 말씀들, 그리고 체험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또 다른 사람의 고백을 듣는 일이다. Q. T.의 꽃이라고 할 이 ‘나눔’은 꼭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눔의 시간에 성령의 역사를 크게 체험한다고 고백하고 있다.¹⁹²⁾

다. 영성 훈련을 통한 치유

영성 훈련은 우리의 인격과 전 존재를 신적 질서에 효과적으로 연합시키기 위해

190)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23-25.

191) 오성춘, 영성과 묵회, 240. 오성춘은 여기서 ‘베네딕트 묵상법’을 소개하면서 성경 말씀을 기도문으로 만들어 기도하는 묵상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92)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26.

의도적으로 정신과 몸을 연마하는 활동이다. 이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초월하는 능력, 즉 영적 영역에서 파생되어 나온 능력 안에서 살 수 있게 해 준다.¹⁹³⁾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영성 훈련을 '절제 훈련'과 '참여 훈련'의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¹⁹⁴⁾ 절제의 훈련으로는 독거, 침묵, 금식, 검약, 순결, 입이 무거움, 희생이 있고, 참여의 훈련으로는 성경 연구, 예배, 찬양, 기도, 친교, 죄의 고백, 복종 등이 있다. 또한 영성 훈련은 성령 충만으로 성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한다. 영성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말씀, 기도, 나눔 훈련을 통한 치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말씀 훈련

성도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져 있어야 성령이 계속 충만케 되고 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겨 영적으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 말씀 훈련에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성경 통독 훈련이다. 말씀으로 충만하려면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한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에 읽을 때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읽어야 한다.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잘못된 것을 뉘우쳐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키시며, 병적인 것은 고쳐 주신다.¹⁹⁵⁾ 둘째, 성경공부 훈련이다. 성경을 읽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다. 성경공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입식으로 성경을 강의하는 방법이 있고 주제에 따라 문제를 구성해서 해답을 써 보게 하는 주제별 토의식 성경 공부가 있고 친구약 전체를 성경별로 그 중심 사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관찰, 해석, 적용의 순서로 연구하는 귀납법적 성경 연구 방법이 있다. 셋째, 성구 암송 훈련이다. 성경 암송의 유익은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둬서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영은 강건해지고 신앙에 생명력을 더하게 되며 아름답

193) Dallas Willard, 영성 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ines),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3), 84.

194) Dallas Willard, 영성 훈련, 182.

195) 오성춘, 영성과 목회, 298-300.

다운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훈련이 된다.196)

(2) 기도 훈련

기도 훈련은 우리 안에 새 삶을 창조하는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히 변화시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사랑하게 한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요,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고질병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여야 한다. 기도를 성숙하게 잘 하기 위한 훈련은 고성 기도 훈련, 묵상 기도 훈련, 그리고 금식 기도 훈련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가) 고성 기도 훈련

큰 소리로 부르짖어 외치는 기도 훈련이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렘 33:3)고 말씀하셨다. 부르짖는 기도는 물 속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에서 청중이 다같이 통성으로 힘찬 기도의 열정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광 장로 교회 교인들은 더욱 그러하다. 신앙 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로 응어리지고 답답한 심령들이 고성으로 부르짖음으로 치유되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나) 묵상 기도 훈련

묵상 기도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이다. 영적으로 무질서해져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것, 어려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하고 살았던 죄를 조용히 회개할 때,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는 기도이다. 그런데 묵상 기도는 잘못하면 즐기도 하고 잡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96) Ibid., 302-306.

(다) 금식 기도 훈련

금식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¹⁹⁷⁾ 무엇보다도 금식 기도는 놀라운 치유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사야 58장 6-9절에 의하면 먼저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기도하는 동안 먹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나를 쳐서 교만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어 달림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 금식 기도는 지은 죄에 대한 아픔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반드시 회개의 기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식음을 전폐하고 오직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이다.

금식 기도로 인한 치유의 효과는 육신의 질병 치유에도 능력을 체험케 한다. “네 치료가 급속할 것”(사 58:8)이라고 했다. 죄악으로 인해 받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고가 낮게 됨을 약속한 말씀이다. 금식 기도는 육체의 질병과 악령과의 투쟁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신앙 훈련의 방법으로 사용된다.¹⁹⁸⁾

(3) 나눔 훈련

예수님은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훈을 하셨다. 마태 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 25:40)”이라고 하여 그들은 양 무리에 넣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러나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은 자들은 염소 무리에 넣어 영벌에 처하게 하였던 것이다(마 25:42-46).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결여된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아무 대가도 바램도 없이 강도 만난 이웃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돌보아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누는 모습이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눅 10:37)”고 사마리아인을 그리스도인의 모형으로 제시하셨다.

기독교의 영성 훈련은 개인적인 훈련, 대인관계의 훈련, 그리고 대사회적인 훈련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197) 오성춘, 영성과 목회, 386.

198) 오성춘, 영성과 목회, 390.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성춘은 영성 훈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성 훈련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개발하여 전인적 구원을 이루어 가는 훈련이므로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장(場)은 곧 영성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그곳으로 불러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여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곳에 현존하신다. 나그네, 배고픈 자, 아픈 자 등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들의 삶에 참여하여 그들을 도우며 봉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 의 만남과 친밀 관계의 개발과 전인적인 구원을 지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에 근거한 나의 적극적인 응답이 있어야 가능하다.¹⁹⁹⁾

(가) 성도간의 나눔 훈련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밖으로는 전도하고, 안으로는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썼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활 속에 나타난 변화는 성도간에 필요를 따라 나누는 삶을 실현했다는 점이다(행 2:42-47). 그들은 매일 함께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었으며 음식을 나누었다. 즉 사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한 식구같이 살았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나눔의 훈련은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한 세상의 것인 물질을 나누는 것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이 초대 교회에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나타났다. 그 결과 사도들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교제하며 나누는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²⁰⁰⁾ 그리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였다.

(나) 이웃과의 나눔 훈련

나눔은 교회 안에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지역 사회와의 나눔을 위해서 ‘사랑의

199) 오성춘, 영성과 목회, 390.

200) Ray Anderson, 오순절의 프락시스, 조주석 역 (서울: 아세아 신학사, 1992), 53.

현장 갖기' 운동이나 어느 복지 기관을 정해서 돕는 방법, 불우한 이웃에게 현금이나 물질을 모아 보내는 일에 동참하게 하는 것 등을 실천할 수 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런 작은 나눔이 지역 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희생적 실천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보광 장로 교회의 경우, 홀로 사는 독거 노인 가정을 위해 여전도 회에서는 가을에 김장을 담가 주기, 대청소, 이불과 담요 세탁, 남선교회에서는 딸감 마련, 추석, 설날 등의 명절과 성탄절에 선물 드리기와 함께 중고등부에서는 매월마다 집안 청소와 성경 읽어 주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그런데 도움을 받는 이들이 물질적 도움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오히려 의존심이나 나태함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혜자들이 자존심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영적인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²⁰¹⁾ 물질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라야 온전한 치유가 된다.

3. 목회 상담을 통한 치유

교인 중에는 아직도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초신자는 물론 기존 신자라도 아직도 중생의 체험이 없는 경우, 믿기는 믿어도 확신이 별로 없고 변화도 안 되는 신자를 치유하는 방법은 심방을 통한 상담이 있다. 이미 앞에서 말한 설교나 성례전, 기도, QT 훈련, 영성 훈련 등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한다 해도 아주 소극적이어서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치유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야 한다. 이것은 성도들을 찾아가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치유 상담을 말한다.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신학을 배경으로 삼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함에 있어 상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추어 자아를 통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담자의 진실한 태도가 동원되어야 한다.²⁰²⁾ 다시 말하면 목회 상담은 일반 상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삶의 의미, 존재 가치 등 인간의 전인적 변화와 치유를 이루는 것이다.²⁰³⁾

201) 오성춘, 영성과 목회, 282.

202) 황의영, 목회 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6.

203) 박윤수, 치유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 기획, 1994), 131.

목회 상담을 통해 목회자는 영적,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지닌 개인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목사는 그의 인격을 또 다른 인격과 접촉케 함으로써 결국 다른 사람 안에서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²⁰⁴⁾ 하워드 클라인벨(Howerd J. Clinebell)은 목사가 상담자로서 또한 치유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⁰⁵⁾ 첫째, 정신병자나 정신요법자들이 일반 상담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목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성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오래 전부터 수립되어 온 목사와의 안정된 기존 관계는 상담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다른 상담이나 정신요법에 대하여 가정과 가까이 접할 수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넷째, 죽음, 질병, 사고 등 위기에 가장 약해지기 쉬운 경우 쉽게 치유 목회를 할 수 있다. 다섯째, 상담을 약속하기 어려운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목회 상담의 이점을 가진 목사는 상담의 원리에 있어서 이상적인 표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다음과 같이 상담하여야 한다. 첫째, 목사는 진지한 마음으로 내담자를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바탕으로 내담자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자신의 견해나 가치관을 일방적으로 내담자에게 설득하거나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않고 개방적으로 경청해 주어야 한다. 셋째, 목사는 먼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따뜻한 마음과 융통성을 가지고 내담자의 실수나 비판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넷째, 지극히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절대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가. 내적 치유 상담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죄책감, 나쁜 습관 등에 시달리고 있든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신자, 형식적이고 바리새적인 신자, 열심히 없는 신자 등 도무지 신앙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성령의 인도로써 하는 목회 상담으로 치유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간단히 치유되기 힘들다. 치유 상담의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다음과 같다.²⁰⁶⁾ 첫째,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 질병의 현상과 증세를 잘 진단해야 한다. 구원의

204) Morton T. Kelsey, 치유와 기독교, 363.

205) Howerd J. Clinebell, 현대 목회 상담, 박근원 역 (서울: 전광사, 1995), 50.

206) Tom Marshall,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4), 138.

확신이 없는 것인지, 회의가 생긴 것인지, 기도하지 않아 생긴 성령의 소멸 상태인지, 교만, 시기, 자기 연민인지를 잘 살펴야 한다. 진단이 정확해야 치료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둘째, 그 영적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귀신에 의한 것인지, 불순종해서 그런지, 기도를 게을리 했는지, 혹은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겨서 그런지, 불안, 초조, 근심이 생겨서 그런지 육신적인 질병 때문인지 가난과 궁핍 때문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 영적인 문제라도 얼마든지 감정이나 육신이나 물질 문제에서 그 원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는 인간관계에서 찾을 수도 있다. 미움, 원한, 용서치 않음, 강박한 마음 등이 걸림돌이 되어 신앙의 병이 낫지 않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상담은 문제와 원인을 파악하지 않고 피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치유하기가 어려우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셋째, 성령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문제의 해결자, 질병의 치유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우게 한다. 넷째, 계속 양육하고 영 분별하여 성장케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게 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충성하도록 해야 한다.

내적 치유가 필요함을 나타내는 증상들을 그 요인과 결과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내적 치유가 필요한 요인과 결과

요 인	결 과
상 처	거절, 버림받음, 불필요한 존재, 신체적·성적·정서적 학대
두 려 움	염려, 공포,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 집착, 모든 것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죄 의 식	수치, 부끄러움, 부적합함, 열등의식, 무가치함, 자기 거부, 부정적 자아상, 낙심, 후회, 혼란
분 노	미움, 격노, 쓴 감정, 원한 용서하지 않음, 완고함, 저항, 비판 의식,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분노, 낙담, 자살
정 욕	음란, 외설, 물질 남용, 질투심, 소유욕
결핍(사랑, 용납, 친밀감, 확신의 결핍)	위의 결과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고조됨

그런데 내적 치유는 명상을 이용한 정신 치료법이나 적극적 사고 방식으로서의 개조나 현실로부터의 도피주의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내적 치유 상담시에 상담자는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어 그 고통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도록 하는 것이다.²⁰⁷⁾ 그리고 예수께서 상처받은 이 사건에 임재하셔서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그러므로 내적 치유 상담은 과거에 입은 쓰라린 기억을 치유하는 것으로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것이며 용서를 적용하는 것이다.

나. 구원 상담

구원은 기독교의 궁극적인 관심이라 말할 수 있다. 특별히 예수의 치유는 구원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수의 치유 사역에 나타난 구원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위기에서 벗어나 생명을 건지는 것이요 둘째, 병을 고치는 것이요 셋째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다. 여기에서 구원의 개념이 치유에 가장 근접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치료된 완전한 존재'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구원 상담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상담자와의 친밀한 상담 관계를 통하여 훼손되고 왜곡된 내담자를 그 문제로부터, 곤경으로부터 이끌어 내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케 하는 것이며²⁰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으로 믿음을 갖고, 예수를 영접케 하여 구원에 대한 체험과 확신을 갖도록 돕는 일이다. 초신자의 경우 세례 문답 때에 실시하고 기존 신자의 경우 심방이나 개인의 영적 고민을 상담하도록 시간을 마련하게 한다. 구원 상담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죄에 대한 회개가 필수 조건이다. 그러므로 구원 상담은 마음과 생활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있다(요 1:12).²⁰⁹⁾ 구원 상담의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가를 묻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게 한다. 둘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게 한다. 셋째, 나는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케 한다. 넷째, 지은 죄를 고백케 한다. 다섯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게 한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

207) Mike Flynn & Doug Greg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한국 기독 학생회 출판부, 1999), 24-26.

208) Edward E. Thronton, The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38.

209)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구들 - 사 1:18; 6:7; 요 1:12; 3:16; 5:24; 요일 1:9; 5:12

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한다.

4. 팀 사역을 통한 치유

본 연구자는 농촌 교회에서 혼자 담임 목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평신도 지도자들을 목회에 활용하고 사역에 참여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절감하고 있다. 평신도의 목회적 활용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닌 목회의 공유이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롬 8:28)'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지름길이다. 그레그 옥덴(Greg Ogden)은 "교회는 곧 살아 있는 유기체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역자들이다"²¹⁰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에 대해 하나님의 대표들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로의 대표들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하는 팀 사역(team ministry)의 의미가 있다.

가. 팀 사역의 성서적 배경

팀 사역은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작업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인데 그것은 꼭 지도자(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성서에 나타난 모범적인 팀 사역 두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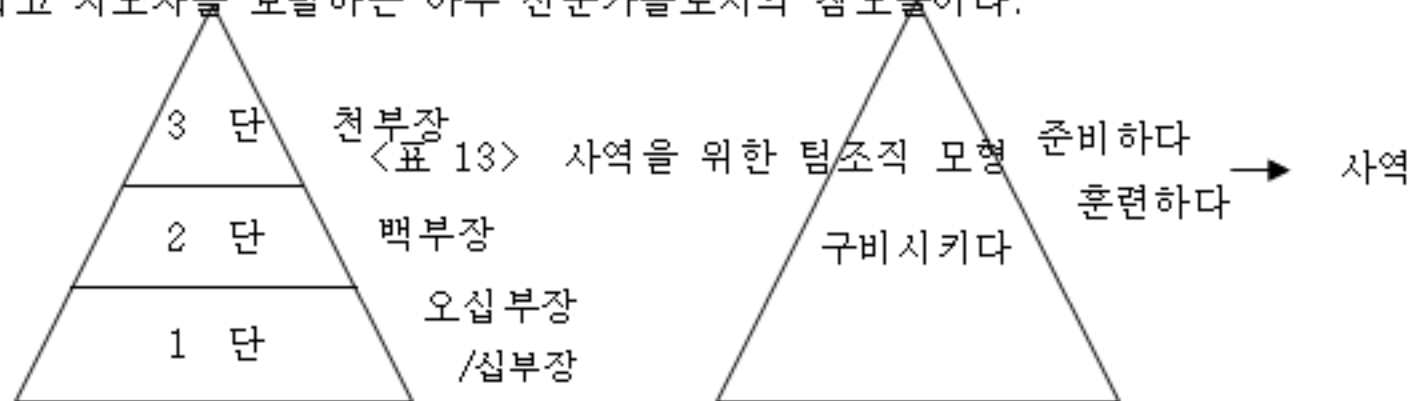
(1) 구약 성서에 나타난 팀 사역

구약 성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팀 사역은 출애굽기 18장 13-26절에 나온다. 멀리 미디안으로부터 모세를 방문하였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데 있어서 아주 비능률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해 달라고 밀려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자서 상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본 이드로는 미디안 족속을 효과적으로 다스렸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에게 사역의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모세는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체제의 골격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팀조직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²¹⁰) Greg Ogden,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션 월드 라이브러리, 1998), 19.

다음 장의 <표 13>과 같다.

사역을 위한 팀조직 모형에서 본 1단계는 여러 종류의 아주 적은 소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와 평신도들이다. 이들은 양육하고 성장케 해 주며 치유하고 회복케 해주는 그룹들이다. 2단계에서는 중간 단계의 지도자들이 1단계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지도하는 중견 그룹이다. 즉 사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훈련시킨다. 3단계에서는 최고 지도자를 보필하는 아주 전문가들로서의 참모들이다.



이 그림은 하부 구조로 내려갈수록 많은 평신도들을 팀 사역에 활용함이 중요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전문가이든 평신도이든 저들이 사역을 위해 준비하고 훈련을 한 후, 무장을 하고 동원될 때 가장 기쁘고 가장 건강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담적(taking in)이요, 봉사적(serving)이요, 출동적(giving out)이요, 공헌적(contributing)이 된다.²¹¹⁾

(2) 신약 성서에 나타난 팀 사역

마가 복음 2장 1-5절에는 한 사람의 중풍 병자와 그의 네 친구들의 믿음과 협동심, 곧 팀 사역이 잘 나타나 있다. 중풍 병자 혼자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가버나움의 집에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는 네 친구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네 친구들은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한 친구를 낮게 하기 위해 침상의 네 귀

211) Aubrey Malphurs,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 과정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2), 224.

통이를 어깨에 메고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까지 당도했다. 그러나 그들은 문 앞에까지 꼭 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안에 계신 예수님께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환자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갔으며, 그리고 지붕을 조심스럽게 뜯어 구멍을 내고는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줄로 달아 내렸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팀웍을 이루어 결국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과 만나게 하고야 말았다.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고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풍 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5절)고 까지 말씀하셨다. 아무리 개인의 믿음이 좋더라도 이웃과 화합할 줄 모르고 협동할 줄 모른다면 그 믿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앙도 자라지 않는다.

또 사도행전 6장 1-6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봉사)하는 일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자 열두 사도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성령과 지혜가 총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일곱 사람을 안수하여 집사로 세워 그 일을 전담케 하고 사도들은 복음 전파에만 진력하게 된다. 이것은 평신도 지도자를 활용하여 사역을 분담함으로써 전체 사역의 효율성을 크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팀 사역의 원리

목회자 혼자서 치유 사역을 모두 감당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님은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셨지만 인간인 목회자는 다르다. 여기서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것을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소유주나 경영자가 아니라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서로 돕는 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사역이며, 평신도들은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깨닫게 되고,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어느 부분에 적합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²¹²⁾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머리아신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활동을 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르므로 전인 치유를 위해서는 포괄적 접근으로 전문인들을 모아 팀을 조직하여 사역함

212) Larry Gilbert, 팀 사역(Team Ministry), 채수범, 황석호 역 (서울: 프리젠티, 1995), 26.

이 중요하다. 그리고 팀 사역으로 치유를 시행할 때는 다음의 몇 가지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첫째, 접근 방법의 뜻(목표)이 같아야 한다(롬 15:5-6). 둘째, 팀의 각 부분들이 모두 귀하고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고전 12:4-11). 셋째,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창 1:27)는 점에서 모든 환자를 평등하게 대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넷째, 치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며 사람들은 환자를 돌보는 직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째, 팀 구성 요원이나 환자를 위하여 온전하게 사역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살전 3:10). 여섯째, 겸손과 섬김으로 서로 짐을 져주고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요 13:12-15; 엡 4:15-16).

다. 팀 사역 치유의 실제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치유에서의 팀 사역을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 중에는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기름을 바르며 치료하는 의사, 한의사가 있고 약사와 간호사도 있다. 또 사업가도 있고 봉사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팀 사역을 통한 치유를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의 전문 치료인들을 잘 조직하여 치유를 위한 공동체를 만든 다음 치료의 대상을 찾고 전인 치료에 들어가야 한다.

팀 사역의 구성원은 영적 치유(spirit therapy)를 맡는 목회자, 신학자와 신체적 치유(somatic therapy)를 맡는 의사(한의사), 약사, 간호사와 정신적 치유(psychotherapy)를 담당하는 정신과 의사, 임상 심리학자와 사회적 치유(social therapy)를 담당하는 사회 사업가, 법률가, 기업가, 장의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예의 하나로 ‘호스피스 프로그램’(hospice program)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불치의 병으로 진단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에게 죽음의 현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팀의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어 환자를 돕는 일로서 주치의는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알려 주고, 간호사는 간호로서 환자를 도와주고 격려하며 사회 사업가는 환자의 가족 문제에 대해 안심시켜 주고, 정신과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질병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목사는 환자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며 장의사는 장례를 돕는 일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²¹³⁾

이런 팀 사역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치유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 사람의 환자와 관련해서 치유해야 할 부분들이 육체의 질병, 심리적 불안, 신앙적 죄책감, 가정 문제, 경제 문제 등 여러 면에서 다양할 뿐 아니라 또한 그의 질병 때문에 주위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치유 사역은 어느 한 사람 혼자만으로는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의 모든 인적 자원들을 그 전문성별로 구조화할 줄을 알아야 한다. 육체의 질병을 담당할 팀, 가정 문제를 담당할 팀, 신앙 지도 상담 팀 등으로 구분하고,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이 치유를 위해 구조화된 모든 팀들을 활용하여 전 교회가 치유에 참여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²¹⁴⁾ 그리고 이러한 팀 사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3 절 요약 및 결론

4장은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으로서, 먼저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질병의 증상들을 여러모로 살펴보았다. 종합 진단해 본 결과, 본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영적 발전 제한 증세가 으뜸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고령화 증세, 친교 과잉 증세, 열정 감퇴 증세, 지도력 긴장 증세...이런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은 '질병 정도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진단에 대한 처방으로서 목회자의 영력과 리더십을 새롭게 강화하고 교회 조직 및 프로그램을 쇄신하며 새 신자 전도에 대한 열정으로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교회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치유 목회의 몇 가지 방법들로서 예배, 교육, 목회 상담, 팀 사역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제시한 치유 목회의 방법들은 보광 장로 교회의 형편과 수준에 맞게 한 것이므로 전체 한국 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며 성장의 효과도 각기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213) 김기복, "호스피스와 임종 목회", 목회와 신학, 1992년 11월호, 97-99.

214) 오성춘, "치유 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기독교 사상, 1984년 1월호, 65.

제 5 장 결 론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한국 교회의 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자는 그 주된 원인이 교인과 교회에 걸려 있는 질병이라고 본다. 그래서 본 연구의 동기가 '질병' 문제로부터 접근하였고 연구의 방법을 질병의 치유에서부터 찾게 되었다. 인간의 불행인 질병은 온전치 못한 인간의 몸과 마음이 제대로 삶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인간들은 생명력을 더욱 더 잃어 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파괴하고 있는 질병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온다. 먼저 성서적으로 본 질병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태초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의 모든 생명 활동이 아주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였으나 그것이 그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사 1:6). 그러므로 성서에서 본 질병의 대부분은 인간의 범죄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하여 인간의 육체는 병으로 망가져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한 인간의 마음 또한 평안함이 결여되어 불안과 공포, 절망과 슬픔, 시기와 질투, 증오와 적개심, 억압과 분노 등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편 어떤 병은 하나님의 뜻이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도 온다고 본다. 둘째로,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잘못된 삶에서 온 것이다. 즉 잘못된 식사, 폭음, 과로, 문란한 성생활 등이 무질서 상태로 고장난 것이며, 자연 질서의 파괴와 인간 공동체 질서의 파괴와 평형의 파괴로 인해 병이 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로, 의학적으로 본 질병의 원인은 병균의 침입과 활동, 유전, 부적응과 위험요인 등이 수태시나 빈곤 그리고 풍요 등으로부터 온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고통의 세상, 병든 인간들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예수님의 목회 활동에 있어서 치유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역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우

리의 목회도 예수님의 목회 사역을 본받아 치유하는 목회가 되어야 한다.

치유 목회는 다음과 같이 큰 네 가지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근거한 목회이다. 예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신 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사역자로서 신적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먼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셨고, 도와주는 이 없고 보호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벌거벗은 자에게 옷을 입혔으며,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셨다. 이와 같이 치유의 목회는 무수한 병들과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병든 인간을 고치고 싸매며 돌보는 목회이다. 오늘날 개인의 영혼과 육체가 병들고 사회의 병이 깊어 가고 있으니 큰 의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제 교회가 이 사명을 담당하여 치유의 대행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치유 목회를 하였으므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치유 목회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설교도 치유를 이루기 위한 설교가 되어야 하고, 교육도 치유를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하며, 봉사도 치유를 이루기 위한 섬김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치유 목회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목회가 되어야 한다. 흔히 '치유 목회'라고 할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육신적 질병을 고치는 것만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든지 정반대로 외면하든지 하는 극단적인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양쪽 모두 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여기서 치유 목회의 위험성과 함정에 빠질 수 있으며 그리고 치유 목회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치유 목회는 인간의 전체적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치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전체적으로 볼 때 치유 사역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병자의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닌 전인 치유의 사역이었다. 폴 탈리히가 "구원은 근본적으로 또한 원칙적으로 치유이다"라고 한 것처럼 진정한 의미에서의 치유는 완전한 인간 회복 즉 구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전인'(whole person)이란 말은 치유 목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이다. "평강의 하나님은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온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아울러 깨끗해져서 전인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치유 목회는 교회 성장을 위한 목회이다. 오늘날의 교회는 점점 조직화, 제도화, 기업화되어 가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세속화된 물질주의까지 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가고 있다. 교회 안에는 복음과 함께 끊임없이 치유와 섬김 그리고 나눔이 일어나야 하는데 오늘의 교회는 복음만 있고 나머지는 부족하다. 그러니 교회가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런데 목장 안의 양들이 병들어 있으면 양들이 불어나지 못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들 역시 병들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그러므로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유의 목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피터 와 그너가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면 치유 목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Healing ministry is the will of God, too)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광 장로 교회는 치유 목회를 통하여 교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치유 목회와 교회 성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번째, 치유 목회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회이다. 칼 바르트(Karl Barth)가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역설하였듯이 교회는 항상 세상과 대면해 있고, 세상과 연대적인 관계에 있으며, 세상에 대해 의무를 지고 있다. 그 큰 의무 중에 하나가 곧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보광 장로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과 환경은 도널드 맥가브란의 교회 성장학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로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다. 도시 근교이지만 외진 산골짜기의 한 농촌 지역, 노년층이 늘어나고 있는 인구 추세, 피폐한 농업 경제, 부족한 의료 혜택과 문화 생활 등은 ‘연안 이씨’들이 대다수 거주하는 씨족 사회와 더불어 독특한 조상 숭배의 정서와 유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 지역에 보광 장로 교회는 꾸준한 복음의 선포와 함께 지역 사회에 대한 치유의 사명이 있다. 교회는 그 자체가 봉사하는 공동체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봉사함으로써 교회의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는 곳이다. 지역 사회에 봉사를 통한 치유도 교회 공동체의 한 몫이다. 만약에 교회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한다면 결국 자신도 병들고 그가 존재하고 있는 이 지역 사회도 병들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보광 장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교회가 ‘치유’로 이곳 평촌리에 봉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며 봉사적인 교회 공동체를

이 지역 사회에 이룩하는 것이다.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healing community)가 될 때 교회는 지역 사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본 연구자는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으로서, 먼저 보광 장로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질병의 여러 증상들을 살펴보고 진단해 보았다. 그 결과 영적 발전 제한 증세가 으뜸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영적 성장에 필수적인 영적 은사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고령화 증세는 이 지역 인구를 구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미지근한 신앙과 무기력증을 치유해야 한다. 그 다음, 친교 과잉에서 벗어나 새신자 확보를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는 전도의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한다. 이것을 위해 목회자 자신은 꾸준하게 영력의 강화와 지도력을 개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은사로서 영적인 권세(spiritual authority)와 인격(personality)과 목회의 기량(skill)을 갖추어야 한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목회자의 치유 사역이 함께 나타날 때 크게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치유 목회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먼저 예배를 통한 치유로 설교와 성례전, 기도와 찬양을 통한 치유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위한 치유로는 소그룹 성경공부와 Q. T., 영성 훈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내적 치유 상담과 구원 상담으로 이루어지는 목회 상담과 팀 사역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목회 방법들은 치유와 함께 반드시 교회 성장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논한 치유를 위한 목회 전략과 방법들은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의 일부분으로서, 본 연구자가 보광 장로 교회를 오랫동안 시무하는 과정에서 체험하고 기도하고 연구한 것을 본 논고로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의 결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후임자가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로 본다.

부록

보광 장로 교회 질병 정도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

다음의 교회 질병 체크 리스트를 읽고 보광 장로 교회 상황에 해당되는 정도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다. 그리고 점수가 낮은 순서대로 질병을 적어 본다. 점수가 낮을수록 질병의 정도가 심하다고 할 수 있다.

(가) 인구 감소 증세

안 그렇다 ◀▶ 그렇다

- ① 교인들의 생활 수준이나 성향이 지역 주민들과 비슷하다- 1 2 3 4 5 6 7 8 9
- ②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지난 10년 동안 지역을 떠난 교인들이 거의 없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④ 핵심 성도들이 대다수 교회 주변에 살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⑤ 주변 지역의 상가나 공장이 지속적인 성장 추세에 있다-- 1 2 3 4 5 6 7 8 9

(나) 고령화 증세

- ① 교인들 인구 구성 비율이 피라미드형 혹은 항아리형이다- 1 2 3 4 5 6 7 8 9
- ② 교회 주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오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③ 교회 학교 교육과 청년부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④ 핵심 일꾼층의 30 퍼센트 이상이 30, 40대 성도들이다-- 1 2 3 4 5 6 7 8 9
- ⑤ 교인들이 과거보다 미래의 비전에 더 관심을 가진다---- 1 2 3 4 5 6 7 8 9

(다) 상호 오해 증세

- ① 교인들의 이해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목회를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7 8 9
- ③ 지역 사회에 맞는 효과적인 전도 전략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④ 고참 성도와 신참 성도간에 조화를 잘 이루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⑤ 당회나 제직회를 할 때 문제가 거의 없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라) 친교 과잉 증세

- ① 교인들이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1 2 3 4 5 6 7 8 9

- ② 기존 교인들이 새신자가 들어오기를 열망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새로운 소그룹 모임이 늘고 있고 또 활성화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④ 새신자의 정착률이 높은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⑤ 교인들이 친교보다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마) 열정 감퇴 증세

- ① 교인들의 대다수가 5년 이하의 신참 성도들이다----- 1 2 3 4 5 6 7 8 9
- ② 다른 집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참석한다----- ① 2 3 4 5 6 7 8 9
- ③ 교인들의 대다수가 철저한 십일조 성도들이다----- 1 2 3 4 5 6 7 8 9
- ④ 예배, 기도, 전도, 성경공부 등의 영성 활동이 강한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⑤ 대다수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바) 시설 협소 증세

- ① 전 성도가 같은 시간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주차장이 여유 있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③ 예배 시간에 늦어도 앉을 좌석이 충분하다----- 1 2 3 4 5 6 7 8 9
- ④ 교육을 위한 공간과 시설이 모자라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 ⑤ 건축이나 증축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사) 지도력 긴장 증세

- ① 제직들 특히 장로들이 목사의 리더십에 순종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② 일을 맡길 부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가 잘 준비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목사가 일보다는 사람을 키우는 양육에 바쁜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④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1 2 3 4 5 6 7 8 9
- ⑤ 목회가 힘들지만 재미있고 보람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1 2 3 4 5 6 7 8 9

(아) 영적 발전 제한 증세

- ①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에 늘 은혜를 받는다----- 1 2 3 4 5 6 7 8 9
- ② 교회 내에 중보 기도 특공대가 활성화되어 있다----- ① 2 3 4 5 6 7 8 9
- ③ 전도 및 새신자 특공대가 활성화되어 있다----- ① 2 3 4 5 6 7 8 9
- ④ 성령의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다----- ① 2 3 4 5 6 7 8 9
- ⑤ 영적 성장을 위한 집회와 프로그램이 풍성하다----- 1 2 3 4 5 6 7 8 9

(자) 협동 과잉 증세

- ① 목사가 외부일 보다는 목회 자체에 골몰한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② 목사가 교단이나 교회 정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 ③ 설교와 기도 준비를 위해서 일주일에 3일 이상 투자한다- 1 2 3 4 5 6 7 8 9
- ④ 목사의 영적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1 2 3 4 5 6 7 8 9
- ⑤ 불필요한 목회자들의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9

목회자 리더십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

(가) 영적인 권세

안 그렇다 ◀▶ 그렇다

- ① 하나님께 목사로 부르신 소명이 확실하다----- 1 2 3 4 5 6 7 8 9
- ②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확신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믿음의 은사와 리더십의 은사가 확실하다----- 1 2 3 4 5 6 7 8 9
- ④ 교회 일의 최종 결정권을 목사가 가진다----- 1 2 3 4 5 6 7 8 9
- ⑤ 사역하는 시간 못지 않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다 1 2 3 4 5 6 7 8 9

(나) 비전

- ① 매일 말씀 연구 2시간, 기도 2시간 이상을 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② 시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하루에 2시간 이상 독서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진다--- 1 2 3 4 5 6 7 8 9
- ④ 주위에 성공적인 목회자 친구와 동역자를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⑤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명예로운 편이다----- 1 2 3 4 5 6 7 8 9

(다) 자기 개발

- ① 성공적인 목회자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1 2 3 4 5 6 7 8 9
- ③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④ 향후 5년 후, 10년 후 교회의 그림이 명확하다----- ① 2 3 4 5 6 7 8 9
- ⑤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전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라) 섬김

- 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편이다-----1 2 3 4 5 ⑥ 7 8 9
- ② 주위의 사람들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 편이다-----1 2 3 4 ⑤ 6 7 8 9
- ③ 반대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편이다---1 2 3 ④ 5 6 7 8 9
- ④ 성도들의 문제나 필요를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1 2 3 4 ⑤ 6 7 8 9
- ⑤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성장에
관심을 가진다-----1-2 3 4 5 6 ⑦ 8 9

(마) 구비(具備) 리더십

- ① 성도들의 은사를 개발시켜 일을 하고 있다-----1 2 3 ④ 5 6 7 8 9
- ② 평신도 사역이 잘 되고 있다-----1 2 3 4 5 ⑥ 7 8 9
- ③ 직접 일하는 대신 사람들을 훈련시켜 일하는 편이다----1 2 3 4 ⑤ 6 7 8 9
- ④ 목사를 신뢰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있는 편이다-----1 2 ③ 4 5 6 7 8 9
- ⑤ 조직이나 직분보다는 관계와 은사를 통해 일하고 있다--1 2 ④ 5 6 7 8 9

(바) 위임

- ① 부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에게 과감하게 일을 맡기는
편이다-----1-2 3 4 5 6 7 ⑧ 9
- ② 목사로서 꼭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1 2 3 4 5 ⑥ 7 8 9
- ③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려고 애쓰지 않는다-----1 2 3 4 5 ⑥ 7 8 9
- ④ 일을 위임할 때 책임과 함께 권한도 맡기고 있다-----1 2 3 4 5 6 7 ⑧ 9
- ⑤ 목사가 자리를 비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 편이다-----1 2 3 4 5 6 ⑦ 8 9

(사) 위기 관리

- ① 결정적인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결단한다-----1 2 3 4 5 ⑥ 7 8 9
- ②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될 때 즉각 목사에게 보고된다----1 2 3 4 5 6 7 ⑧ 9
- ③ 각 부서와 성도들 사이의 갈등을 잘 중재하는 편이다---1 2 3 4 5 ⑥ 7 8 9
- ④ 교회의 문제 특히 비공식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통로가 있다-----1-2 3 4 ⑤ 6 7 8 9
- ⑤ 위기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매달린다-1 2 3 4 5 6 7 8 ⑨

(아) 기획 / 조직력

- ① 교회 목표가 분명하며 성도들이 목표 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② 모든 목회 활동이 사전에 기획되어 문서로 정리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③ 모든 계획은 사후에 그 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④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이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⑤ 성도들의 형편과 요구에 맞는 소그룹들이 잘 조직
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자) 추진 / 집중력

- ①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때마다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② 성도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목사의 계획에 협조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③ 목회적인 전문성을 개발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④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⑤ 결정적인 사역에 기도와 재정 등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차) 설득 / 동원력

- ① 대다수의 성도들이 담임 목사의 방침에 동참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② 교회 전체 흐름이 목회자의 소신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③ 설교와 강의가 신바람 나며 성도들도 은혜를 받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④ 교회 주요 행사에 성도들이 만족스럽게 동원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⑤ 담임 목사를 위한 확실한 봉사자가 20 퍼센트 이상 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교회 조직 정도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

(가) 조직의 중요성

안 그렇다 ◀▶ 그렇다

- ① 목회를 조직적으로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② 성도들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③ 팀을 이루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④ 교회 조직이 영적 재생산에 효율적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 ⑤ 효과적이지 않는 조직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	---	---	---	---	---	---	---

(나) 조직의 사명

- ① 각 조직(사역, 양육, 선교)의 사명과 목적이 분명하다---- 1 2 3 4 5 6 7 8 9
- ② 각 조직이 교회 전체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이다-- 1 2 3 4 5 6 7 8 9
- ③ 각 조직이 목적이 있는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④ 각 조직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당회, 제직회 등)이 목회자의
비전을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다) 조직의 구성원

- ① 각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합당하게 조직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조직의 구성원들이 사명감과 은사를 따라 조직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할 일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④ 각 조직의 책임자들은 능력이 있는 자로 임명한다----- 1 2 3 4 5 6 7 8 9
- ⑤ 모든 성도들이 은사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에 접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라) 조직의 조화성

- ① 교회의 각 조직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협력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교회의 내적 구성이 축제 구조, 회중 구조, 세포 구조로
조화되어 있다----- 1 2 3 4 5 6 7 8 9
- ③ 교회를 힘들게 하는 비공식 그룹이 없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 ④ 조직의 책임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목사의 지도와
훈련을 받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⑤ 공식적인 회의 전에 문제성이 있는 성도는 미리 목사의
설득과 권면을 받는다----- 1 2 3 4 5 6 7 8 9

(마) 당회 조직

- ① 당회와의 갈등이 거의 없어 은혜로운 결정 기관이
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 ② 당회나 제직회의 모임이 항상 부드럽고 은혜롭다----- 1 2 3 4 5 6 7 8 9
- ③ 당회원들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비전에 적극적
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④ 성도들이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며 당회원들을 존경

하는 편이다-----1-2-3 4 5 6 7 8 9

⑤ 당회원들이나 제직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바) 교구 조직

① 부교역자가 성도수에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② 부교역자가 만족할만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1 2 3 4 5 6 7 8 9

③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의사 소통이 원활하다-----1 2 3 4 5 6 7 8 9

④ 부교역자들이 보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우하는

편이다-----1-2 3 4 5 6 7 8 9

⑤ 부교역자들이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기대치를 채워

주고 있다-----1 2 3 4 5 6 7 8 9

(사) 구역 조직

① 성도 대다수가 구역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② 구역 모임이 활발하며 영적 재생산에 충실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③ 구역이 작은 교회로서 목양적 기능을 대행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④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구역마다 행사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⑤ 구역장의 선발 및 훈련 프로그램이 확실하다-----1 2 3 4 5 6 7 8 9

(아) 봉사 조직

① 봉사 희망자가 많아 봉사 기관이 활성화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② 남, 여전도회가 목회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봉사한다 1 2 3 4 5 6 7 8 9

③ 봉사 조직의 책임자는 목사가 기도 중에 임명하여 세운다 1 2 3 4 5 6 7 8 9

④ 중보 기도, 재정, 사역 등에 봉사대가 조직되어 운영된다 1 2 3 4 5 6 7 8 9

⑤ 봉사자들을 위한 영적 훈련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1 2 3 4 5 6 7 8 9

(자) 교육 조직

① 교육 목회를 위한 비전과 철학이 분명하다-----1 2 3 4 5 6 7 8 9

② 교육을 위한 조직과 담당자와 재정이 모자라지 않다-----1 2 3 4 5 6 7 8 9

③ 학생들뿐만 아니라 장년을 위한 주일학교도 활발하다-----1 2 3 4 5 6 7 8 9

- ④ 제자 훈련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1 2 3 4 5 6 7 8 9
- ⑤ 교육 프로그램이 영적으로 재생산을 하기에 적합하다---1 2 3 4 5 6 7 8 9

(차) 선교 조직

- ① 교회 구조가 교회 조직상의 양식(modality) 구조가 아닌 소그룹의 신도회(sodality) 구조에 가까운 편이다-----1 2 3 4 5 6 7 8 9
- ② 전도 특공대가 활성화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 ③ 새신자 특공대가 활성화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 ④ 세계 선교를 위한 부서가 선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⑤ 선교사를 양성하고 후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프로그램 정도 측정을 위한 자가 진단 설문서

(가) 예배

안 그렇다 ◀▶ 그렇다

- ① 예배의 목적을 이루는 예배 신학이 정립되어 있다-----1 2 3 4 5 6 7 8 9
- ②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예배가 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③ 예배 위원회가 있어 예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④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중보 기도 사역이 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⑤ 새신자와 불신자에게도 의미 있는 주일 예배가 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나) 설교

- ① 목사의 설교 때문에 교회에 나온다는 성도가 대다수이다-1 2 3 4 5 6 7 8 9
- ② 교회 성장형 설교의 특성에 맞는 설교를 수행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③ 하나님을 만나고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설교가 되고 있다-----1 2 3 4 5 6 7 8 9
- ④ 주일 설교를 위한 준비를 3일 이상 철저히 하는 편이다--1 2 3 4 5 6 7 8 9
- ⑤ 설교의 내용과 함께 전달 방법이 효과적인 편이다----1 2 3 4 5 6 7 8 9

(다) 성경공부

- ① 출석 성도의 50 퍼센트 이상이 각종 성경공부 모임에 주 1회 이상 참여한다-----1 2 3 4 5 6 7 8 9

② 성도의 수준에 맞는 강의식 성경공부가 주 1회 이상

준비되어 있다-----1-2 3 4 ⑤ 6 7 8 9

③ 소그룹 양육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① 2 3 4 5 6 7 8 9

④ 담임 목사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1 2 3 4 5 6 ⑦ 8 9

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부교역자와 평신도 교사가 다수
확보되어 있다-----1-2 ③ 4 5 6 7 8 9

(라) 교회 학교

① 성도의 80퍼센트 이상이 교회 학교에서 교육받고 있다--1 2 3 4 5 6 ⑦ 8 9

② 교회 학교 교사들의 선발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1 2 3 ④ 5 6 7 8 9

③ 교육 자료와 시설이 충분한 편이다-----1 2 3 4 5 6 ⑦ 8 9

④ 장년 주일 학교도 시행하고 있다-----1 2 3 4 5 6 7 ⑧ 9

⑤ 교회 학교 출신들의 성도가 교회에 머무르며 주요
사역자로 헌신한다-----1 2 3 ④ 5 6 7 8 9

(마) 기도

① 목사 자신이 기도 생활에 모범을 보여 주고 있다-----1 2 3 4 5 6 ⑦ 8 9

② 새벽 기도 혹은 저녁 기도에 출석 성도의 20 퍼센트
이상이 참여한다-----1-2 ③ 4 5 6 7 8 9

③ 특별 작정 기도 모임에 거의 전 성도가 참여한다-----1 2 3 ④ 5 6 7 8 9

④ 기도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1 ② 3 4 5 6 7 8 9

⑤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를 중심으로 중보 기도 특공대를
운영하고 있다-----① 2 3 4 5 6 7 8 9

(바) 봉사

① 출석 성도의 50 퍼센트가 각종 봉사 조직에 가입되어
헌신하고 있다-----1-2 3 ④ 5 6 7 8 9

② 성도들에게 봉사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정팀이 가동되고 있다-----1 ② 3 4 5 6 7 8 9

③ 지역 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봉사 프로그램이 있다-----1 2 3 4 5 6 ⑦ 8 9

④ 구제와 봉사의 전문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1 2 3 4 5 6 ⑦ 8 9

⑤ 지역의 다른 교회와 함께 지역사회 봉사를 시행하고 있다 ① 2 3 4 5 6 7 8 9

(사) 치유

① 전문적인 상담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② 가정적,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1 2 3 4 5 6 7 8 9

③ 질병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기도팀이 있다 1 2 3 4 5 6 7 8 9

④ 목사가 상담 목회, 치유 목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추진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⑤ 성도들의 생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후원회(supporting
group)가 가동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아) 선교

① 세계 선교에 대해 가르치는 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① 2 3 4 5 6 7 8 9

②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후원하고 있다 ① 2 3 4 5 6 7 8 9

③ 파송 혹은 후원하는 선교사와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을 하고 있다 ① 2 3 4 5 6 7 8 9

④ 세계 선교를 위한 헌금과 후원을 독려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⑤ 세계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선교 현장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2 3 4 5 6 7 8 9

(자) 문화

① 삶의 즐거움과 친밀감을 촉진시키는 친교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다 1 2 3 4 5 6 7 8 9

② 세상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극복케 하는 교육과정이 있다 1 2 3 4 5 6 7 8 9

③ 지역 주민에게 기독교 문화를 제시하는 이벤트를
시행하고 있다 1 2 3 4 5 6 7 8 9

④ 멀티 미디어(multi media) 기능을 목회에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1 2 3 4 5 6 7 8 9

⑤ 목사 자신이 문화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은 편이다 1 2 3 4 5 6 7 8 9

(차) 특별 프로그램

- ① 연 1회 이상 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 수련회를

시행한다-----1-2 3 4 5 6 7 8 9

- ② 몇 가정이 함께 숙식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가정 목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1 2 3 4 5 6 7 8 9

- ③ 각종 절기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지 않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이다-----1-2 3 4 5 6 7 8 9

- ④ 부흥회나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있다-----1-2 3 4 5 6 7 8 9

- ⑤ 성장하는 다른 교회, 혹은 목회 현장을 탐방하게 하여

변화의 자극을 주고 있다-----1 2 3 4 5 6 7 8 9

참 고 문 헌

1. 국내 서적

- 가홍순. 성만찬과 예배 갱신. 서울: 나단, 1994.
- 고훈. 교회 성장을 위한 팀목회. 서울: 베드로 서원, 1996.
- 곽선희. "교회 성장의 신학적 이해." 복된 말씀. 1973년 12월호.
- 김기복. "호스피스와 임종 목회." 목회와 신학. 1992년 11월호.
- 김남수. 교회와 음악 그리고 목회.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 김동욱 외 3인. 한국 민속학. 서울: 새문사, 1993.
- 김득룡. 현대 목회 실천론 신강. 서울: 총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 김창규. 설교 방법과 교회 성장. 서울: 쿤란 출판사, 1992.
-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 위원회. "목회." 기독교 대백과 사전. Vol 6. 서울: 기독교 문사, 1994.
- 도한호. "치유 신학에 대한 바른 이해"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 단아한. 성서 의학. 서울: 도서 출판 누가, 1989.
- 라채광. 큐티가 어려워십니까. 서울: 두란노, 1991.
- 명성훈. 교회 성장의 영적 차원. 서울: 서울 서적, 1995.
- _____. 당신의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 서울: 국민일보사, 1996.
- _____. 당신의 교회를 진단하라. 서울: 교회 성장 연구소, 1996.
- _____. 교회 성장 에센스. 서울: 크레도, 1999.
- 박기백. "한국 교회의 치유 목회." 풀빛 목회. 1984년 1월호.
- 박봉량. 인간의 본질. 서울: 형성 출판사, 1982.
- 박원섭. 새신자 가이드. 서울: 한국 문서 선교회, 1993.
- 박윤수. 치유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경성 기획, 1994.
- 박찬섭. 교회 발전과 성령 은사. 서울: 엘멘 출판사, 1990.
- 박형렬. 예배와 성례전. 서울: 목회 신학 연구원, 1993.
- 방지형. 교회 성장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91.

- 배창돈. 큐티를 하고 싶습니까. 서울: 예루살렘, 1993.
- 송길원. "상담 설교의 필요성." 그 말씀. 1994년 11월호.
- 신성종. 신약 신학.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81.
- 심상권. "설교와 목회 상담." 그 말씀. 1994년 11월호.
- 오성춘. "치유 목회를 통한 공동체 형성의 가능성." 기독교 사상. 1984년 1월호.
- _____. "질병, 신앙, 하나님의 치유." 기도. 1985년 6월호.
- _____. 영성과 목회. 서울: 장로회 신학 대학교 출판부, 1990.
- _____. "신유의 은사와 영적 치유의 상관성."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 _____. "치유와 상담 설교" 그 말씀. 1994년 11월호.
- 육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2.
- 완주 군청. 완주 군지. 전주: 신아 출판사, 1996.
- _____. 통계 연보 1999. 전주: 완주 군청 기획 감사실, 1999.
- 이상근. 사도행전 주해. 대구: 성등사, 1990.
- 이연길. 소그룹 연구의 이론과 방법. 서울: 총회 출판국, 1990.
- 이재범. "치유 목회 현장론." 목회와 신학. 1993년 4월호.
- 장중열. 교회 성장과 선교학. 서울: 성광 문화사, 1990.
- 정석현. 교회 성장과 평신도의 역할. 대구: 보문 출판사, 1990.
- 정소영. "상담자로서의 교사" 기독교 교육. 서울: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1992.
- 정태기. "상담 설교의 가능성과 전망" 그 말씀. 1994년 11월호.
- _____. "전인 치유에 관한 연구." 신학 연구. 제35집.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4.
- 조용기.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서울: 서울 서적, 1985.
- 최정성. 구역 관리와 교회 성장. 서울: 엘멘 출판사, 1994.
- 한국 농선회. 농어촌 선교 신문. 2000년 2월 28일자.
- 한미준. 한국 개신교인의 교회 활동 및 신앙 의식 조사 보고서.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9.
- 황의영. 목회 상담 원리.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2. 번역 서적

- Alvin, Juliet. 자폐 아동을 위한 음악 요법 (Music Therapy for the Autistic Child). 김군자, 이철규 역. 서울: 서정 출판사, 1986.
- Anderson, Ray. 오순절의 프락시스. 조주석 역. 서울: 아세아 신학사, 1992.
- Augustine. 예수의 치유. 고재봉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88.
- Barclay, William. 예수의 치유 이적 해설. 김득중, 김영봉 공역. 서울: 컨콜디아사, 1986.
- Barna, George. 교회 성장의 침체를 극복하라 (Turnaround Churches). 안보현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6.
- Bohren, Rudolf. 신학 연구 총론. 김정준 외 6인 공역. 서울: 서울 신학 연구소, 1986.
- Clinebell, Howerd J. 현대 목회 상담. 박근원 역. 서울: 전망사, 1995.
- Collins, Gary R. 크리스찬 카운셀링. 피현희, 이해련 공역. 서울: 두란노, 1984.
- Flynn, Mike & Gregg Doug. 내적 치유와 영적 성숙 (Inner Healing). 오정현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9.
- George, Carl F. & Robert E. Logan. 리더쉽과 교회 성장 (Leading & Managing Your Church). 송용조 역. 서울: 서울 성경학교 출판부, 1990.
- Gilbert, Larry. 팀 사역 (Team Ministry). 채수범, 황석호 공역. 서울: 프리젯트, 1995.
- Glasser, Arther F., and Donald A. McGavran. 선교학 (Contemporary Theology of Mission). 전호진 역.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 Gurver, V. 교회 성장 진단 연구법. 조동진 역. 서울: 크리스찬 헤럴드사, 1974.
- Hiltner, Sewerd. 목회 신학 원론. 민경배 역.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81.
- Hunter, George G., III. 불신자들에게 열린 교회가 성장한다 (Church for the Unchurched). 홍용표 역. 서울: 서로 사랑, 1999.
- Kelsey, Morton T. 치유와 기독교 (Healing and Christianity). 배상길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93.
- Lee, Myoung Soo. 치유 선교론 (A Treatise on Healing Ministry). 박행렬 역. 서

- 을: 나임 출판사, 1993.
- MacDonald, Gordon.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Ordering Your Private World). 홍화옥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98.
- MacNutt, Francis. 치유의 능력. 조원길 역. 서울: 전망사, 1979.
- _____. 치유. 변진석, 변창욱 역. 서울: 무실 출판사, 1992.
- Malphurs, Aubrey. 21세기 교회 개척과 성장 과정 (Planting Growing Churches for the Twenty-first Century). 홍용표 역. 서울: 예찬사, 1992.
- Margaret, L. A. 효과적인 성경 공부. 정재영 역. 서울: 한국 기독교 학생회 출판부, 1986.
- Marshall, Tom. 내면으로부터의 치유. 이상신 역. 서울: 예수 전도단, 1994.
- Martin, George. 예수님의 치유. 이재범 역. 서울: 보이스사, 1985.
- Maxwell, John C.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 강준민 역. 서울: 두란노, 1997.
- McGavran, Donalds A. 교회 성장학. 고원용 역. 서울: 보문 출판사, 1979.
- _____. 교회 성장 이해 (Understanding Church Growth). 이요한 외 2인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 McKeoun, Thomas. 질병의 기원 (The Origins of Human Disease). 서일, 박종연 역. 서울: 동문선, 1996.
- Means, James E. 21세기에는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도 변한다 (Effective Pastors for a New Century). 배현석, 김응국 역. 서울: 나침반사, 1997.
- Oden, Thomas C. 목회 신학 (Pastoral Theology). 오성춘 역. 서울: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출판국, 1987.
- Ogden, Greg. 새로운 교회 개혁 이야기 (The New Reformation). 송광택 역. 서울: 미드라이브러리, 1998.
- Post, Henry W. 개인적인 치유. 이희영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0.
- Roberts, Oral. 기적과 건강. 서울 서적 편집부 역. 서울: 영산 출판사, 1989.
- Schwarz, Christian A. 자연적 교회 성장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역. 서울: 도서 출판 NCD, 2000.

- Seamands, David A. 상한 감정의 치유 (Healing for Damage Emotions). 송헌복 역. 서울: 도서 출판 두란노, 1997.
- Sorge, Bob. 찬양으로 가슴 벅찬 예배 (Exploring Worship). 최 혁 역. 서울: 두란노, 1997.
- Stanger, F. B. 위대한 의사 예수. 배상길 역. 서울: 나단, 1992.
- Stockstill, Larry. 셀 목회로 부흥하는 교회 (The Cell Church). 백광진 역. 서울: 베다니 출판사, 1998.
- Stott, John R. 오늘날 성령의 역사. 조병수 역. 서울: 한국 기독교 연구원, 1983.
- Taylor, Jack R. 찬양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The Hallelujah Factor). 이석철 역. 서울: 요단 출판사, 1997.
- Thielicke, Helmut. 현대 교회의 고민과 설교 (Leiden an der Kirche Ein persönliches Wort). 심일섭 역. 서울: 대한 기독교 출판사, 1982.
- Thurneysen, Eduard. 목회학 원론 (Die Lehre von der Seelsorge). 박근원 역. 서울: 성서 교재 간행사, 1979.
- _____. 목회학 실천론 (Seelsorge im Vollzug). 박근원 역. 서울: 서울 신학 연구소, 1982.
- Tippet, A. R.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세계. 장중열 역. 서울: 보이스사, 1977.
- Tournier, Paul. 성서와 의학 (A Doctor's Case Book in the Light of the Bible). 마경일 역. 서울: 전망사, 1979.
- _____. 인간 치유에의 길 (The Healing of Persons). 황찬규 역. 서울: 보이스사, 1988.
- Turner, John. 치유하는 교회 (Healing Church). 김선도 역. 서울: 도서 출판 광림, 1984.
- Wagner, Peter. 교회 성장의 원리. 권달천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2.
- _____. 교회 성장 전략.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1.
- _____. 제3의 바람. 정운교 역. 서울: 임마누엘, 1991.
- _____. 성령의 능력과 교회 성장. 이재범 역. 서울: 나눔터, 1997.
- Warneck, Gustav. 선교학 (Evangelisch Missionlehre). 전호진 역. Gothe:

Friedrich Andreas Perthes, 1987.

Willard, Dallas. 영성 훈련 (The Spirit of the Disciples). 엄성옥 역. 서울: 은성, 1993.

Wimber, John. 제3의 물결을 타고. 변진석, 변창욱 역. 서울: 도서 출판 무실, 1991.

Wimber, John, and Kevin Springer. 능력 치유. 이재범 역. 서울: 나단, 1991.

3. 외국 서적

Bakken, Kenneth L. The Journey toward Wholeness. New York: Crossroad, 1988.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Cho, David Yonggi. Successful Home Cell Groups. Seoul: Logos, 1997.

Gorden, A. J. The Ministry of Healing. Chicago: Fleming H. Revealing Co. 1961.

Kelsey, Morton T. Encounter with God. Minneapolis: Bethany Fellowship, 1972.

Thronton, Edward E. Theology and Pastoral Counseling.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7.

Tillich, Paul. Systematic Theology. Vol. III.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7.

WCC. eds. "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Faith and Order Paper. no. III, Geneva: WCC Press, 1982.

Vita of
So Am Song

Present Position :

Senior Pastor of the Bo-Kwang Presbyterian Church

Personal Data :

Birth Date : July 1, 1951

Marital Status : Married to Moon Hee Lee with 3 Sons and 3
Daughters

Home Address : # 314 Pyongchon-ri, Kui-myon, Wanju-gun,
Jeonbuk 565-823

Phone : Office & Home (063) 221-9687

Denomination :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dained : April 22, 1992

Education :

B. A.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eoul, 1986

M. Div. Presbyterian College and Theological Seminary, Seoul,
1990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01

Personal Experience :

4/1979 to 12/1981 Manager of the Blueprinting, Kong Yeong Industry
Co., Ltd. Al-Jubail, Saudi Arabia

4/1992 to 12/1993 Assistant Pastor of the Seogwipo First
Presbyterian Church, Seogwipo, Korea